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25-08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2017 No.1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편집자의 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서는 주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중 하나로 해외봉사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봉사단의 변혁적 파트너십(transformative partnership)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적 규모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인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사업을 운영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는 현재 SDGs를 반영한 WFK 중장기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KOICA는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IVCO 연례총회의 기획 및 준비를 담당함으로써, 금년 총회에서 KOICA의 WFK사업의 국제적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SDGs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으로서의 기대역할을 SDGs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동 목표의 이행을 위한 해외봉사의 혁신적(innovative)이고 변혁적인(transformative) 운영 방안, 그리고 나아가 봉사단의 활동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및 KOICA의 해외봉사단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본 호의 이슈 부분에서는 우선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 전략 (주성수)'**에서는 효과적인 SDGs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변혁적 파트너십' 으로서 어떠한 추진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SDGs 달성에 있어 자원봉사가 갖는 영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를 통한 공조적 파트너십 구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두 번째 원고인 **'국내외 봉사활동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박윤애)'**에서는 국내에서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 그리고 국내 자원봉사의 발전과정과 현황,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가능 방안을 해외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KOICA의 WFK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세 번째 원고인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적 운영사례 (양수경)'** 원고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해외봉사 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의 역할과 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국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우리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그리고 한국기업의 봉사활동 프로그램과의 협력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슈 부문 마지막 원고인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해외봉사 성과 측정 동향 분석 (구영은, 최경화)'**에서는 해외봉사 성과측정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흐름에 발맞추어 KOICA WFK 중장기 전략에 적용가능한 WFK 사업 성과 평가 방안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에 대한 동향을 해외 최신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며,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WFK 사업을 SDGs와 연계한 성과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을 모색해본다.

또한 이번 1호 협력지 섹터부문에서는 KOICA가 단내 직원들의 실무경험과 연구와의 연계를 제고하고, 내부 연구자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KOICA 직원 연구공모제(Practice to Research, P2R) 프로그램의 2016년 최종 수상작 6편 중 3편의 원고를 소개한다.

첫 번째 원고인 **'필리핀의 국가개발 정책 내 송금의 영향력 분석 (김태진)'**에서는 개발과 이주, 송금 논의에 있어 그간 비교적 소외되어온 개발도상국에서의 개발정책과 이주, 송금의 연계성이 어떠한지를 필리핀의 중기개발계획과 국정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KOICA가 개발협력과 이주, 송금을 연계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두 번째 원고인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이상급)'**에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을 비롯한 주요 양자원조기관이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KOICA가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유형 정립 및 전략수립을 위해 어떠한 점을 참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부문에서의 원고인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행동경제학과 소셜 마케팅 관련 해외 동향 및 KOICA 보건 사업 분석 (김기현)'**에서는 인간의 실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와 관련된 소셜 마케팅의 등장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선진원조기관들의 보건 사업 중 행동변화를 다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업기획모델을 도출함으로써 KOICA 보건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교훈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1호에서는 SDGs 달성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해외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transformative partnership)으로서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KOICA를 비롯한 국내 다수의 해외봉사단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본 호가 독자들로 하여금 SDGs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해외봉사의 지향점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4월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Ⅰ. 개발협력 이슈

1.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전략 ····· 3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제3섹터연구소장)

2.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적 운영사례 ····· 23
양수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업본부 부장)

3. 국내 · 외 봉사활동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 41
박윤애 (자원봉사이음 대표)

4.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봉사 성과 측정 동향 분석 ····· 79
구영은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최경화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Ⅱ. 섹터포커스

1. 필리핀의 국가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영향력 분석 ····· 121
김태진 (KOICA 지역총괄실 과장)

2.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사례 분석 ····· 141
이상급 (KOICA 경제개발실 대리)

3.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행동경제학과 소셜 마케팅 관련 해외 동향 및 KOICA 보건 사업 분석 ····· 163
김기현 (KOICA 혁신사업실 직원)

Ⅲ.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 227
2. KOICA ODA도서관 2017년도 학술DB 목록 ····· 228
3. KOICA 2016년 12월 ~ 2017년 3월 발간물 목록 ····· 229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233
5.『국제개발협력』원고 기고 방법 ····· 234
6.『국제개발협력』원고 집필 규정 ····· 235

I

개발협력 이슈

1.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전략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제3섹터연구소장)

2.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적 운영사례
양수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업본부 부장)

3. 국내 · 외 봉사활동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박윤애 (자원봉사이음 대표)

4.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봉사 성과 측정 동향 분석
구영은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최경화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전략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제3섹터연구소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전략
1. '변혁적 거버넌스'와 자원봉사
2.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Ⅲ.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임팩트
1. 자원봉사의 인적/사회적 자본 임팩트
2.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임팩트
Ⅳ.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 파트너십 추진 방안
1. 위, 아래, 밖으로부터의 공조
2.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화 지원방안
3.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지원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
5. 국내-국제 자원봉사의 통합 추진전략
Ⅴ. 맺는말
참고문헌

요 약

국제사회는 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SDGs 17개 전체가 자원봉사에 의존해, 자원봉사가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을 SDGs의 중요한 임팩트로 간주한다. '변혁적 거버넌스'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NV는 특히 SDGs 달성의 핵심을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추진전략을 강조한다. 자원봉사를 개발도상국의 SDGs 추진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제사회 파트너들인 정부/국제기관, 기업/기업연맹, NGO/글로벌 네트워크 각각의 개발도상국의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NGO/자원봉사조직)을 공조적 파트너십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다. 개발도상국 자원봉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국내의 자원봉사와 국제사회의 자원봉사가 연계, 통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내 봉사자와 국제봉사자가 SDGs 분야별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단위에서 공조함으로써 SDGs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 특히 국제봉사자들의 지식, 경험, 전문기술이 국내봉사자들에게 전수·보급되어, 개발의 오너십과 역량 강화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을 때 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SDGs, 자원봉사(volunteering), 공조적 파트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 변혁적 거버넌스(transformative governance)

Ⅰ. 머리말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글로벌, 국가, 지역, 지방 등 다차원에서 공공, 민간, 사회 등 3섹터의 자원봉사 진흥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자원봉사(volunteering)의 '세계화' 추세에서 개발도상국 자원봉사도 활성화되고 있어, SDGs 달성에 자원봉사의 기여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도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평균수준에 근접해있다(CAF, 2016). UNV(2009, 2011)는 2001년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International Year for Volunteers)' 이후 8년간 70여 국에서 국가 리더십의 의지로 관련법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 중요한 글로벌 동향이라 평가한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등 국제사회는 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SDGs 17개 전체가 자원봉사에 의존해, 자원봉사가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을 SDGs의 중요한 임팩트로 간주한다.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2011)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자신의 가계나 친지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강제에 의하지 않고 금전적 지급이나 보상이 없는 활동(work)"이라 정의한다. 또 UN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공공선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주요 동기가 아닌" 광범위한 활동이라 정의한다(UNV, 2015c).

SDGs 시행에 앞서 2015년 UN 총회는 "자원봉사가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이하, 2030 어젠다)의 실행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중시해, "자원봉사를 2030 어젠다와 관련 핵심 문건에 통합"할 것을 공표하였다(UNGA, 2015). 이에 따라 국제연합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 이하 UNV)는 2016-30년 기간 개발과 평화에 자원봉사를 통합하는 행동 계획에서 1) 시민참여의 증진과 시민행동을 진흥하는 환경 개선으로 개발 어젠다의 국민의 오너십 강화, 2) SDGs 달성을 위해 자원봉사를 국가와 글로벌 실행 전략에 통합하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UNV, 2015a).

한편 SDGs는 사회-경제-환경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이며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는 보편적(universal) 특성과 접근법의 총체적인(holistic) 특성뿐 아니라 다른 네 가지 특성이 있다(UN, 2015a; UNV, 2015a). 그것들은 변혁적(transformative),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사람과 참여(People and Participation) 특성이다. 이 논문은 후자 세 가지 특성 측면에서 SDGs 실행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이론과 정책, 시행 전략과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SDGs의 '변혁적' 특성은 인권 기초, 거버넌스, 지역 기반, 사람과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UN, 2015a; UNV, 2015a). 인권 기초(human rights-based)에서는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인권과 권리 기반의 개발이 중시된다. 또 거버넌스(governance)에서는 개발의 오너십이 국가뿐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변혁이 자원봉사를 통해 진전될 것으로 강조한다. 또 '지역 기반(local dimension)'은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정착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포용적(inclusive)' 특성에서는 자원봉사가 모든 시민의 참여를 지향하므로 SDGs의 포용적 개발 추진에 적합한 수단이자 목표라 강조한다.

또 SDGs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성과와 임팩트는 개발도상국 국가와

지방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지원이 결합된 다차원 파트너십 전략으로 SDGs를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 동시에 정부 등의 국가 주도적인 사고와 방식의 변혁이 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 또는 정부-기업-NGO 사이의 공조적 파트너십도 변혁적 거버넌스의 핵심 전략이 된다. 나아가 SDGs의 '사람과 참여' 특성은 왜 SDGs 달성에 자원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지 않은 개발은 거버넌스의 원칙이나 포용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변혁적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II.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전략

1. '변혁적 거버넌스' 와 자원봉사

변혁(transform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은 SDGs의 디자인 단계부터 중시된 핵심 개념들이다.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 이후 개발의 국가 오너십이 중시되면서, 공공기관의 책무성과 개발의 효과성 전략들이 추진되어 왔다. 2010년 이스탄불의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개발효과성 원칙들이 채택되면서 활성적인 시민사회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 개발 전략들이 디자인되고 추진되었다. 파리 선언과 이스탄불 원칙들은 포스트 2015 어젠다 설정에서 재확인되며, UN 포스트 2015 어젠다 고위 패널은 '효과적, 개방적, 책무적 기관'과 그리고 연대, 협력, 상호 책무성에 기초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사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 필수적인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혁적 이동(transformative shift)'으로 파악하였다(UNGA, 2015). 변혁적 이동은 개발을 하는 방식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방식이 되는 기술적 투입과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변화와 권력의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접근방식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VSO, 2016:1).

또 2014년 UN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여정』 보고서에서 SDGs 달성이 '변혁적 접근'에 기초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앞서 제시한 보편성, 지속가능성, 불평등, 인권을 완전하게 추구하는 변혁을 의미한 것이다. UN은 '진정한 보편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변혁'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국가, 모든 집단의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보편적 접근법을 시행하며, 2)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에 초점을 맞춰, 모든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고, 3)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 어떤 목표나 타겟도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집단들을 위해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며, 4) 모든 행동들이 국제 기준에 완전하게 합치되는 인권을 존중하고 진전시킨다(UN, 2014).

'변혁적 거버넌스'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NV는 특히 SDGs 달성의 핵심을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추진전략을 강조한다. 거버넌스는 국가의 중앙과 지방, 모든 차원에서 '국정을 관리하는 경제, 정치, 행정 당국의 권위의 행사'와 관련되는데, 특히 '시민들과 집단들이 자신의 이해를 표출해,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격차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과정 및 제도들'을 의미한다(UNDP, 1997:2). 자원봉사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창, 참여, 책무성과 호응성을 증진시키는 기술, 지식 및 전문역량을 동원하는 매개수단으로 개발 문제 해결과 자원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한다. SDGs 달성은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의 충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원봉사는 개발의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민들과 CSO들이 개발협력의 주체로 참여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거버넌스가 개발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중시된 배경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추진과정에서 확인되었다. MDGs가 완료되면서 성과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특히 개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와 관여 부족 문제, 굿 거버넌스와 책무성(accountability)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UNV, 2016:2). 거버넌스는 2011년 부산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총회에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었다. 원조의 효과성 개선 과제는 2003년 로마에서 개시되어 2005년 파리에서 개발되었으며, 2008년 아크라에서 완전한 논의가 이뤄졌다. 파리 총회는 개발 어젠다의 중심에 국가 오너십(national ownership)을 원조 효과성 전략으로 제시했고, 아크라에서는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이 제안되었다. 부산 총회는 시민사회 대표를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로 포용한 최초의 포럼이 되면서 정부 주도의 거버먼트 모델에서 정부-시민사회-기업 공조의 거버넌스 접근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시민참여를 진흥하는 정부의 환경 조성 정책도 요청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모든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참여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재인식한 것이다. SDGs는 사람 중심의 개발을 중시하며 자원봉사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2.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UNV(2015b)는『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보고서에서 SDGs 달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민들로 밝히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실행전략으로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SDGs 달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파트너로는 공공기관들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

개발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을 망라한다. 특히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CSO)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공조적 파트너로 참여해, 기획해 수행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는 '집단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때 개발협력의 임팩트, 즉 SDGs의 달성도가 최대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삼각 파트너십 추진은 풀뿌리 지역사회부터 국가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UNV, 2015c:xiv).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주민과 CSO의 역량 개발과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지방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시행을 위해 일반 주민뿐 아니라 소외층, 취약층은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참여가 중요하다. 여성, 장애인 등 취약층의 욕구와 요구가 정책기획과 결정에 반영되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 풀뿌리 차원부터 참여적 거버넌스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는 정부와의 공조적 파트너십으로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 사회통합과 사회문제 해결의 전략으로 중시될 수 있다. 정부 주도적 방안과 시민사회 주도적 방안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도 이 두 방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주성수, 2013). 첫째는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거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민간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국정 현안의 해결에 공조적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에서도 조례에 의해 그리고 2006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행정관리로 민간 전문가들의 센터운영으로 이뤄진 민관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주성수, 2013, 2016a).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정부는 법과 제도와 재정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진흥 정책을 추진하며, 운영의 주체는 민간 전문가와 CSO들이 맡는 공조적 파트너십이 특징이다(주성수, 2013; 주성수 외, 2012). 둘째는 민간 주도적인 방안으로, 정부 주도적 방안보다는 쉽지 않지만 민간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전담하는 자율적 방안이 민주적 거버넌스 이념에 적합하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조직들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적인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CSO 주도, 민간 주도적이다(주성수, 2013).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온두라스, 모잠비크, 칠레에서 정부가 자원봉사 법 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조하는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UNV, 2015c:39-40).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 부처들이 자원봉사 제도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마다 자원봉사 활용의 정책디자인 작업부터 정부기관뿐 아니라 CSO와 시민대표들이 고루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시행

해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CSO의 자유로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여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보급도 시민들의 자원봉사 논의와 참여를 진흥하는 중요한 정책도구가 된다. 브라질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조해 공공 보건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새로운 보건정책 시행에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언론을 활용하고 인터넷과 눈 등의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으로 청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도 개발도상국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스리랑카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있었던 2009년 이후 2011년 정부는 내전의 교훈과 화해위원회의 보고서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중시했고, 이 내용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단체들에 전달해 평화과정의 참여와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UNV, 2015c:xvii).

글로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들이 개발도상국의 시민 요구, 참여,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ICT 기술의 활용으로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시민사회(CSO)의 자원봉사 제도와 정책, 정보와 교육훈련 등 다양한 역량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Ⅲ.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임팩트

1. 자원봉사의 인적/사회적 자본 임팩트

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유는 시민 개인들의 지식, 역량 등 인적 자본(human capital)뿐 아니라 시민들과 단체들의 협력과 신뢰와 유대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생산하고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성장에 참여”하게 하고,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 지식의 기반을 개선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UNV, 2015a).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신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결과를 생산한다(UNV, 2015a). 자원봉사는 취약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를 고양하며, 사회적 배제를 차단하고 사회적 포용을 지향해 연대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통해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SDGs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중요한 변혁을 이루도록 기여한다.

이 같은 자원봉사의 개발 임팩트 가치는 오래 전부터 UN 등의 국제기관에서 확인한 바가 있다. UN은 2001년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를 추진해 각국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활성화시켰다. UN 총회는 자원봉사가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보건, 재난 예방과 관리,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는 전략에 중요한 요소"라 천명하면서, 각국이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 기반"을 확충해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UNGA, 2001). UNV는 1998년 특별보고서 『자원봉사와 사회개발』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개발의 가치를 중시하고(UNV, 2000), 2011년 보고서에서도 자원봉사를 사회개발과 국제협력의 전략으로 간주한다(UNV, 2011).

자원봉사의 '인적 자본' 임팩트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인적 자본을 개선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술, 사회문제 해결의 방안,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이해 등 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다(UNV, 2015c). 나아가 자신과 이웃을 넘어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발적인 단체 조직으로 지역과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는 여성과 취약층의 자치역량(empowering)의 주요 수단이자 시민문화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봉사 참여의 개발은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과 자원봉사 전문기관들이 공조적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가치는 인적 자본의 강화로 사회변화를 위한 환경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의 내재적 가치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지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들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조하는지, 중장기적인 임팩트에서 찾게 된다. 자원봉사의 연대, 상호 호혜성, 상호 신뢰, 존중 및 공조적 학습이 중요하며, 자원봉사자들은 융통성, 적응성, 접근성, '할 수 있다'는 접근, 그리고 금전적 보상 보다 더 가치 있는 변화에 대한 지지의 동기 등 개인적 자질을 갖추게 된다(VSO, 2016:6). 지역사회나 조직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환경에서 동료와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등하며 신뢰하는 유대적 관계를 갖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집단행동의 촉매자 역할도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어 정보,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의 중개자 역할도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소프트 성과와 하드 성과를 통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하드 성과란 포용적 강사법과 같은 전문기술이나 기술적 지식의 개선으로 나타나며, 소프트 성과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도덕과 윤리, 자기 확신, 문제 해결과 분석기술 개선, 타인과의 협조적 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하드 및 소프트 변화는 사회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선결조건이 되며 사람들이 개발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의 변혁을 지원해준다(VSO, 2016:6). '변화의 이론(theory of change)' 시각에서는 이런 변혁이 이뤄질 때 빈곤퇴치 등의 획기적인 임팩트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 자원봉사가 개발에서 중요한 정당한 근거는 사회자본과 사회통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UNV, 2011). 첫째, 자원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와 연대, 그리고 신뢰의 바탕에서 행해지는 상호 공조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을 제공하는 일은 신뢰에 기초하는 활동으로 사회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체를 규정하는 일이다."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와 상호성의 규범, 즉 사회자본의 표현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네트워크와 규범을 생성시키는 활동이다. 셋째, 자원봉사는 시장이 효과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소외층의 좌절, 무관심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적 활동이다. "자원봉사는 개인의 공동체 참여를 표현하는 일이다." 넷째, 자원봉사는 소외층과 불이익계층의 요구에 호응하며 이들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관대한 관용의 정신을 키워준다. 다섯째, 자원봉사는 소득, 성, 연령 등 계층에 기초하는 분열과 갈등의 사회에 조정과 통합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며 기여한다. 여섯째, 자원봉사는 무수한 유대와 연대에 기초하는 사회자본을 구축하며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퇴치,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2.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임팩트

보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UNV, 2015b).

- SDGs 인식 증진(소외지역과 소외층 포용 캠페인 등) 전문 기술의 제공
- 기획, 실행, 모니터링 과정의 시민참여로 대화와 행동의 장 확장
- 시민주도의 질적, 양적 자료수집으로 SDGs 진전도 모니터링
- 지식 공유 및 이전 증진과 지역 전문기술의 타 지역 보급 확대
- 기초 서비스 부족 지역과 대상층에게 서비스 보충
- 지역의 SDGs 증진을 위한 모범적 행태와 사례 보급

이상과 같은 기여를 통해 자원봉사는 SDGs의 임팩트가 되는 개발과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팩트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UNV, 2015b).

- 참여의 포용적 공간 확장
- 역량개발의 개선과 기술 개발
- 각계각층의 유대적 사회자본과 신뢰 구축
- 지역 현안들에 대한 기회와 오너십 개발
- 시민참여 증대로 지역 거버넌스와 책무성 강화
- 대응력과 준비 강화, 지식 향상과 공동체 책임감 증진
- 시민참여로서 자원봉사에 호혜적인 환경 구축

UN에 따르면, 자원봉사정신과 자원봉사자는 SDG 목표 1부터 17까지 전체 분야에 걸쳐 변혁적 실천으로 기여한다(UNV, 2015b). 2014년의 2030 어젠다에서도 자원봉사단체가 SDGs 모든 목표 실행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SDGs 개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는 먼저 기술지원자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개의 SDGs 가운데 보건(목표 3), 교육(목표 4), 식수와 위생(목표 6), 재생에너지(목표 7), 지속가능한 생태계(목표 13, 14, 15) 등은 자원봉사자의 기술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청년이나 고용시장 접근의 기회가 제한적인 취약층의 고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목표 8과 모든 SDGs). 또 자원봉사는 개인의 행태 모델링과 행태적 개선에서 입증된 기록을 보여주므로, 자원봉사의 활용으로 젠더 평등(목표 5), 식수와 위생(목표 6), 지속가능한 소비(목표 12), 기후행동(목표 13)과 관련된다. 또 자원봉사는 인간관계 개선, 신뢰 구축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므로 SDG 16의 평화와 사회정의와도 관련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기술과 역량으로 SDGs에 대한 기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UNV, 2015b). 첫째는 2030 어젠다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농촌과 오지에서 취약층을 대상으로 지역 캠페인과 창의적 접근법으로 SDGs의 국내화에 기여한다(모든 목표). 둘째는 기술 지원이다. 'MDGs의 미완의 비즈니스(목표 1부터 5까지)'의 기본적인 서비스 부족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며, 다른 SDGs(목표 6, 7, 13-15)에서도 기술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는 행태의 모델링으로 2030 어젠다의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며, 지식과 긍정적 의지의 개선으로 SDGs의 지방화에 기여한다(목표 5, 6, 12, 13, 16). 넷째는 기술 개발이다. 지식과 경험의 전수로 SDGs 많은 목표들에 적용되며 지역의 기술 보급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며 SDGs 달성에 기여한다(목표 8과 모든 목표들). 마지막은 자료의 수집과 SDGs 진도의 사정이다. 참여적 모니터링, 지역 현장 방문, 'My World 2030 서베이'의 보급 확장 등으로 지역의 전문성을 증대한다(목표 17과 모든 목표).

Ⅳ.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 파트너십 추진 방안

1. 위, 아래, 밖으로부터의 공조

개발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전략으로는 밖으로부터의 공조뿐 아니라 위와 아래로부터의 공조 등 삼박자 공조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위로부터의 공조는 국가 리더십의 지지로 SDG 17의 국가계획 수립과 실행전략에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방안을 중시하는 리더십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국가들에서 자원봉사 법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재난 구호의 긴급성 등 다른 요인들도 중요했지만 국가 리더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UNV, 2011a, 2011b; 주성수, 2013).

둘째, 아래로부터의 공조는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라고 볼 수 있다. 빈곤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서도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물질을 기부하며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문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다.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의 글로벌 서베이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15세 이상 인구)은 유럽 19%, 남미와 북미 25% 수준인데, 아시아 23%, 아프리카 20%로 성장해 있다(CAF, 2016:29). 또 기부와 타인 돕기에서도 유럽 36%와 44%, 남미와 북미 29%와 54%인데 비해 아시아 37%와 51%, 아프리카 18%와 58%로, 물질적 기부에서만이 아프리카가 다소 뒤질 정도로 나눔문화는 빈약하지 않다. 특히 국가개발에 국민들의 참여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SDGs 시행에서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들과 제도들에 압력을 행사할 역량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의 전환이 중요하다(UNDP, 2017:29).

셋째, 밖으로부터의 공조는 타국과 글로벌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을 지원하는 인적, 물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UNV와 공조하는 UN 기관들, KOICA를 비롯한 각국의 해외봉사단,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IVAE), 세계시민사회연합(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 등 글로벌 시민사회 연대조직, 한국과 각국의 기업들과 국제상공회의소 등의 기업연맹과 중간지원조직 등, 무수하고 다양한 공적, 민간, 시민사회 조직들이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을 지원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위-아래-밖으로부터의 공조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기업-시민사회 차원과 국제사회의 정부와 국제기관, 기업/기업연맹, NGO와 글로벌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해 SDGs 달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표 1). 자원봉사를 개발도상국의 SDGs

추진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 파트너들인 정부/국제기관, 기업/기업연맹, NGO/글로벌 네트워크 각각의 개발도상국의 국가(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NGO/자원봉사조직)을 공조적 파트너십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2. 정부의 자원봉사 제도화 지원방안

SDGs의 국가 차원의 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국내의 기업과 시민사회가 공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법과 제도의 마련이며, 이를 지원하는 적절한 기금의 조성과 자원봉사 활동을 개설 또는 진흥하기 위한 인프라(제도와 조직 등)와 재정과 행정과 운영과 프로그램 등이 복합된 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다(주성수, 2016b). 이 세 가지 부문 각각이 국제사회의 정부와 국제기관 차원, 기업과 기업연맹 차원, 시민사회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추진 방안의 적절한 조합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사정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방식을 파트너 기능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국가개발목표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의 활용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다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UNV, 2015c:39). 자원봉사활동이 국가개발목표 시행에 기여하며 사회통합,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자원봉사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들이 자원봉사를 개발 어젠다의 실행에 핵심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은 정부의 역할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 법과 제도의 개선과 홍보에 지지적인 활동을 하며 정부의 정통성 지지기반이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정부의 사회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술과 교육훈련 참여에도 지지적이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온두라스, 모잠비크, 페루가 자원봉사 법과 제도를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UNV, 2015c:39-40). 정부가 자원봉사 전문기관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법 제정 과정에 참여를 독려했다. 온두라스는 2011년 의회 입법으로 공공, 민간, 시민사회 조직에서 국가개발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페루의 경우, 법적 제도화 이외에도 자원봉사 행정국의 개설 등 행정지원 체제 구축이 특징적이다. 1988년 이래로 25억 이상의 아동이 홍역 예방주사 혜택을 보게 된 것은 200개국 이상이 공조했고, 국제적 재정 투자와 2천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지도 뒷받침되었다.

〈표 1〉 SDGs 실행을 위한 자원봉사의 변혁적 파트너십 추진 방안

국제사회 /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제기관	기업과 기업연맹	시민사회 (NGO/자원봉사조직)
정부 (중앙, 지방정부)	1) 자원봉사 법, 제도, 정책, 재정지원	4) 자원봉사 제도화진흥 기금	7) 자원봉사 인프라와 생태계 전략수립
기업 (직장, 해외기업)	2) 자원봉사-일자리 사업 지원	5) 직원자원봉사 글로벌 네트워크	8) 직원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리더 개발
시민사회 (NGO/자원봉사조직)	3) 자원봉사 기반의 개발협력사업	6) 자원봉사 혁신과 역량 강화 기금	9) 자원봉사조직(센터) 설립, 관리자교육

출처: 저자 작성

3. 기업의 '포용적 비즈니스' 지원방안

기업, 공공기관 등 직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S) 차원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점차 늘고 있다. 또 KOICA,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해외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Overseas, 이하 VSO) 등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도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청년 구직 지원 등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을 확대해볼 수 있다(주성수 외, 2015). UNV(2015b)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년이나 고용시장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취약층의 고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임팩트를 창출해, SDG 8을 비롯한 모든 SDGs 달성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가나와 케냐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촌 봉사활동으로 주민의 교육과 보건 개선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취업의 디딤돌로 삼았다(UNV, 2015c:39). 의회의 청소년 위원회는 자원봉사 예산을 배정했고, 법 제정 과정에는 자원봉사 기관들의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가 작동되었다.

국제사회의 정부와 국제기관들은 개발도상국 기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인턴십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표 1>참조). 또 기업과 기업연맹도 직장의 CSR 형태의 직원자원봉사 활성화에 재정지원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등의 연대활동으로 직원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 이해, 학습, 정보교환, 워크숍과 심포지엄 지원 등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개발 NGO들과 자원봉사조직들도 직원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자문, 개발지원 사업의 파트너로서 기업과 직장인의 자원봉사 참여 등 다양한 공조적 파트너십이 추진될 수 있다.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의 주요 전략중 하나이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NGO)들을 통한, NGO를 위한 시민들의 자원봉사는 국가별 SDGs 추진전략의 핵심을 차지할 정도로 중시된다. 모잠비크는 2010년 자원봉사 법을 제정했는데, 정부가 2009년에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CSO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국가자원봉사위원회가 기초한 것이다(UNV, 2015c:39). 법 제정 과정은 참여적 과정으로 법의 기본안 마련, 시행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었다. 자원봉사법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국가통합, 사회복지, 재난대응, 환경보호 등 국가개발목표를 진흥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의 지원과 인정,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 방안에 관한 것이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는 조직들이 더 많은, 양질의 직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간접 서비스(Indirect Service) 제공을 말한다(CNCS, 2011: 6). 간접 서비스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핵심 미션, 의무사항 및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능력, 지식, 노력의 제공"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로 기대되는 의도적 결과들로는 1) 프로그램 공급 모델의 지원이나 개선, 2) 조직의 서비스 증대, 확장 또는 개선의 목표에 대한 호응, 3) 간접서비스 제공 참여자들의 서비스 활동이 종료되어도 조직의 많은, 지속적인 양질의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이다. 역량 강화는 주요국 해외봉사기관의 핵심 추진 전략이다(주성수 외, 2015). 평화봉사단(Peace Corps, 2013)은 2014-17년 전략기획에 "자원봉사자의 역량구축 활동"을 중시해, "지역의 기관들과 개인들이 개발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강화시켜, 지역 생활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밝힌다. 영국의 VSO 또한 직접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파견지역의 빈곤퇴치를 해결하는 방식보다 파견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협력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간접 방식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VSO, 2014, 2016).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먼저 정부와 국제기관 차원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에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개발협력 분야는 일반적으로 교육, 보건, 농수산업, 경제, 행정,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환경 등으로 추진되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 자원봉사가 통합되어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앞서 SDGs 모든 분야에 자원봉사가 통합될 것을 제시한 UN의 SDGs 추진전략을 참고해볼 수 있다. KOICA의 경우 젠더 이슈와 환경 이슈를 범분야로 분류한 것처럼 자원봉사도 여기에 포함시켜 범분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기업과 기업연맹의 경우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특히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혁신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금 지원이 긴요하다. 국제사회의 NGO들과 INGO 그리고 자원봉사 전문조직들도 개도국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기술, 자원봉사센터 등의 제도화,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5. 국내-국제 자원봉사의 통합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자원봉사 진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과 추진 방안으로 개도국 국내의 자원봉사와 국제사회의 자원봉사가 연계, 통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내 봉사자와 국제봉사자가 SDGs 분야별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단위에서 공조함으로써 SDGs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봉사자들의 지식, 경험, 전문기술이 국내봉사자들에게 전수, 보급되어, 개발의 오너십과 역량 강화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을 때 개발협력의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봉사자와 국내봉사자의 공조와 협력 모델은 VSO의 오랜 전통이다(VSO, 2014; Devereux and Allum, 2016). 또 2011년 개시한 영국의 DFID 재정지원으로 VSO가 운영하는 ICS(International Citizen Service)는 영국 봉사자(UKV)와 수원국 봉사자(In-country volunteer, 이하 ICV)의 협력을 7개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다. '다른 국가들의 청년들 사이의 공유된 활동과 학습은 프로그램의 핵심 측면'이라 밝힌다. ICS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수원국 파트너기관의 98.4%가 ICS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ICV의 100%, UKV의 91%가 프로그램이 유익했다고 답했다(DFID, 2011).

또 다른 혁신적인 글로벌 자원봉사 프로젝트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AID 자원봉사(AID Volunteers) 이니셔티브를 참고해볼 만하다. 인도적 구호를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와 단체들이 세계의 현장에서 지역사회가 재난의 복구, 대응, 예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구호 자원봉사 프로젝트로, 모집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재정을 지원한다(EU, 2016).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 시니어 프로그램과 18세 이상 청년 참여의 주니어 프로그램이 있다. 2015년부터 6개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66개 파트너 조직들이 참여했고, 4개의 기술지원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22개 파트너 조직들이 참여했다. 12개국에 26개 시민사회단체들과 4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술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활동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 도시 복구, 젠더, 교육, 로지스틱스 등이다. AID 자원봉사를 계기로 EU는 인도적 구호기관들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유럽 표준방안을 갖춰, 인도적 구호 현장 배치에 앞서 자원봉사 교육과 소양 등 준비를 지원한다. 2016-20년 기간에는 약 4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인도적 구호 기관들의 모집으로 교육훈련을 거쳐 글로벌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매년 정기적인 공모에 의해 진행되는데, 자원봉사 교육훈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장을 통해 진행되며, 교과로는 유럽의 위기대응 시스템, 인도적 구호 개론, 안전과 안보와 건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다문화 이해, 주창과 커뮤니케이션, 응급조치, 자원봉사 관리와 조직 개발 등이다.

V. 맺는말

자원봉사 생태계는 개발도상국의 SDGs 국가개발계획의 하나로 도입, 추진될 수 있다.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이 SDGs 달성에 필수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원봉사 법과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국가에 따라 리더십이나 재난 등이 자원봉사의 법과 제도화를 촉진시킨 주요 요인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SDGs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자원봉사 활용을 법과 제도화로 추진할만한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을 지원하면서 개별 국가들의 자원봉사 제도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리더십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원봉사 임팩트 기금을 제공하는 중장기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원봉사센터의 개설 지원이 단기적인 추진 방안이 될 만하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 단위부터 광역과 중앙 단위에 개설되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수요 개발에 SDGs 시행을 접목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앞서 소개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3-4명의 역량을 갖춘 스태프들과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다. KOICA의 경우 해외사무소와 연계해 개발협력 사업에 현지 국내 자원봉사자와 한국인 자원봉사자와의 통합적 접근법을 개발해 추진하는데 현지의 자원봉사센터를 주요 인프라로 구축해볼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의 자원봉사 전문기관 대표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에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자원봉사를 범분야 개발전략으로 중시해볼 수 있다. KOICA의 경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범분야 등 여섯 사업 분야로 개발협력을 기획해 추진한다. 여기에 자원봉사를 범분야(환경/여성/ICT/인권)에 포함시켜,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해 개발 임팩트를 지향하는 추진전략을 제시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 도구이자 국민과 참여 중심의 개발이라는 목표와 비전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UNV 등 UN 기관들과 Peace Corps, VSO 등의 해외봉사기관들도 자원봉사의 활용 방안을 확장해 개발 임팩트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 2013. 『자원봉사 문화와 제도』. 서울: 한양대 출판부.

_____. 2016a. 『나눔문화 :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시민참여』. 서울: 한양대 출판부.

_____. 2016b. "한국 자원봉사는 지속가능한가? 자원봉사 생태계 진단." 2016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2016.08.29.-08.30.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 발제문.

주성수·김성현. 2014. "글로벌 CSR 현황과 추진 방안."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주성수 외. 201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서울: 행정자치부.

주성수 외. 2015. "해외봉사 효과성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CAF(Charity Aid Foundation). 2016. "World Giving Index 2016." London: CAF.

CNCS(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2011. "Demonstrating Impact through Capacity Building." Washington, D.C.: CNCS.

DFID. 2011. "Evaluation of DFID's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ICS) pilot stage - mid term review." London: DFID.

Devereux, P. and Allum, C. 2016. "The interface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volunteering and the implications for IVCOs." IVCO 2016 Conference, held in Bonn from 9-12 October 2016.

EU. 2016. "EU Aid Volunteers," Brussels: EU.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Geneva: ILO.

Peace Corps 2013. "Strategic Plan, FYs 2014-2018." Washington, D.C.: Peace Corps.

UN.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New York : UN.

___.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

UNDP. 1997.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ossary of Key Terms." New York: UNDP.

_____. 2017. "Youth as partn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New York: UNDP.

UNGA. 2001. “Support for Volunteering :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New York: UN.

_____. 2013.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New York: UN.

_____. 2015. “Resolution 70/129: Integrating volunteering into peace and development: the plan of action for the next decade and beyond.” New York: UN.

UNV(United Nations Volunteers). 2000. “Roundtable on Volunteering and Social Development.” Bonn: UNV.

_____. 2009. Laws and Policies Affecting Volunteerism since 2001. Bonn : UNV.

_____. 2011a. The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Bonn: UNV.

_____. 2011b. “Broadening the Civic Space through Voluntary Action.” Bonn: UNV.

_____. 2014. “UNV Strategic Framework: 2014-2017.” Bonn : UNV.

_____. 2015a. “Integrating Volunteering in Peace and Development: The Plan of Action for the next decade and beyond: 2016 - 2030.” Bonn: UNV.

_____. 2015b.“UNV Toolkit: How volunteerism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Bonn: UNV.

_____. 2015c.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15 : Transforming governance.* Bonn: UNV.

VSO. 2014.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London: VSO.

_____. 2016. “VSO's Global Theory of Change.” London: VSO.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적 운영사례

양수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업본부 부장)[1)]

목 차

Ⅰ. 서문
Ⅱ. 지속가능개발목표란?
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
2.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3. SDGs 달성을 위한 노력
Ⅲ. 국가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도
1. 국가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2. 미국 평화봉사단의 의료협력 파트너십
3. 영국 VSO 기업 협력 프로그램
4. 캐나다 CUSO International의 다양한 시도
Ⅳ. 민간 참여 확대–월드프렌즈 NGO봉사단
1. 대한민국 정부 지원 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FK)
2. 민간 단체 협력 프로그램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3.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
Ⅴ.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단 활동
1. 포스코 글로벌 청년 봉사단 '비욘드'
2.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 '라온아띠'
Ⅵ. 결어
참고문헌

1) 이메일 : skyang@ngokcoc.or.kr, 전화: 070-4893-0703, 팩스: 02-2279-1719

요 약

효과적인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등 사업의 주체가 추구하는 방향성, 전략, 재원, 그리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적 요소가 필요하다.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층위와 그룹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중 각국 정부, 민간, 학계에서 운영하는 봉사단 프로그램은 현장의 인적 요소를 채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민간, 기업을 망라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점,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해외봉사 협력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의 역할과 해외봉사의 효과를 확대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이해, 다른 국가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과 다양한 시도들, 대한민국 정부-민간의 협력 모델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그리고 한국 기업의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협력 모델을 파악해 본다.

I. 서 문

효과적인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등 사업의 주체가 추구하는 방향성, 전략,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넘어설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적 요소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철학에 공감하고, 사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설정한 방향과 전략에 맞추어 사업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층위와 그룹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중 각국 정부, 민간, 학계에서 운영하는 봉사단 프로그램은 현장의 인적 요소를 채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봉사단원은 현장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크고 작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봉사단 프로그램은 향후 이들이 국제 개발 협력 분야로 본격 진출하게 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외봉사 활동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해외봉사 활동이

대상, 방식, 내용에 있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국제 개발 협력이 지향하는 목표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민간, 기업을 망라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점, 본 원고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의 역할과 해외봉사의 효과를 확대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해외봉사 협력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지속가능개발목표란?

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

빈곤, 기아, 질병, 환경,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움직임은 2000년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기반으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라는 약속으로 구체화되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회원국들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2015년까지 달성할 개발 협력의 목표와 약속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MDGs는 개발도상국 극빈자 비율 감소, 최빈국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5세 미만 아동 사망 비율 감소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다(UN, 2015).

하지만 MDGs는 UN의 전문가와 관료의 의견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시민사회/시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목표 역시 포괄적이지 않아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 설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왜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MDGs의 8가지 목표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과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MDGs의 기한인 2015년을 넘어 2016년 이후 세계가 함께 달성해 나갈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만들어 진 것이 'SDGs'이다.

2. 미래 세대를 위한 의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등장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UN, 1987)'으로 정의된다.

환경 또는 경제 특정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의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합의된 SDGs는 2016-2030년 동안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 17개를 담고 있다.

〈그림 1〉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홈페이지(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접속일: 2017.04.16.)

SDGs 17개 목표는 사회 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목표 1-6은 사회 발전 영역의 목표로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인간 존엄성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목표 8-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다. 양질의 일자리, 경제 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이 핵심이다. 목표 7, 12-15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고갈에 대한 대응이다. 나머지 16, 17은 1-1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담고 있다.

SDGs를 5가지 키워드 -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 5P로 구조화할 수도 있다.

MDGs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달성 주제/분야 면에서 MDGs가 빈곤·의료 등 사회 분야 중심이었다면 SDGs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포괄한다는 점, 참여주체 면에서 MDGs가 정부 중심이었다면 SDGs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3. SDGs 달성을 위한 노력

SDGs 달성을 위한 각 국가, 주체의 노력은 다양한데, 빈곤과 기아종식, 건강, 보건/의료, 교육, 식수, 에너지, 지역개발, 사회 인프라,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차원의 투자/협력과 개발 협력의 현장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NGO의 사업 역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기업, NGO들의 활동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 중 중요한 것이 방향성, 전략, 재원, 그리고 인적 요소다. 이중 인적 요소는 다양한 층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여러 전문가 그룹 -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산업에너지 분야, 세부적으로는 유아/초등/청소년 교육, 직업 교육, 예체능 교육, 사회복지, 개발 정책, 농업, 임업, 축산, 지역개발, 모자보건,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식수위생, 건축, 설비 등의 전문 인력이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국 현지의 인적 기반 역시 효과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에 더해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해외봉사단원이다.

해외봉사단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 그룹/봉사단이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든 봉사단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현지 기관의 개발 협력 사업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작은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SDGs의

17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작지만 나아가 커지는 소중한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봉사단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도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혁신적 운영 사례, 파트너십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Ⅲ. 국가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도

1. 국가별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2015년 9월 말 기준 63개 국가에서 6,919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연간 379백만 불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Peace Corps, 2015). 1961년 이래 누적 22만 명이 넘는 봉사단원이 전 세계로 파견되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운영하는 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JOCVs)은 2015년 8월 누적 기준 96개 국가, 48,000명이 넘는 봉사단원이 파견되었다.[2)]

이외 영국 해외봉사단(Voluntary Service Overseas, 이하 VSO)도 2015-2016년 기준 24개 국가에서 전문 봉사단 및 ICS(International Citizen Service)라고 하는 청년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가 재정의 27%를, 기타 영국 정부 지원이 51%로 예산의 80%를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VSO, 2016:27).

2. 미국 평화봉사단의 의료협력 파트너십

각국 봉사단은 이미 여러 가지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2년간의 일반 봉사단 프로그램(Peace Corps Volunteer) 외에, 기간은

2) JICA Volunteer Program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citizen/volunteers.html) (접속일 : 2017.04.16)

짧으나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이들을 3-12개월 동안 파견하는 전문 봉사단 프로그램(Peace Corps Response), 그리고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있는 아프리카 5개국(라이베리아, 말라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에 의료진을 파견해 현지 의료진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료협력 파트너십(Global Health Service Partnership, 이하 GHSP)도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12년부터 시작된 GHSP는 미국 평화봉사단과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과 NGO인 시드글로벌헬스(Seed Global Healt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단순히 의료진을 파견하여 의료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 활동을 하는 동시에 의사, 간호사 등 현지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첫 활동 연도인 2012-2013년에는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말라위, 탄자니아, 우간다의 11개 교육 기관에 배치되었고, 2014-2015년에는 42명의 의료 교육진이 동일한 국가의 13개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3)]

미국 평화봉사단의 GHSP는 일반적인 봉사단 활동을 넘어서서 더 전문적이고, 더 정교하게 설계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료 분야가 특별히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들이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더 세밀하게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해당 국가의 의료적 기반을 다져주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이다. 외국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활동을 마쳐도, 현지의 역량으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가능한 의료,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봉사단 사업 수행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 전문 인력, 정부의 정책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파트너십의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3. 영국 VSO 기업 협력 프로그램

영국 VSO는 교육, 건강, 생계수단, 그리고 참여와 거버넌스 4가지 주제 영역을 정하여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봉사단원을 파견하며, 해당 영역별로 설정된 수혜자 목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이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서 10-12주간 활동하는 청년 봉사단 프로그램 ICS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를 운영하는데, 10개의 개발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운용되며, 2012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16년 2월 파견인원 2만 명을 돌파하였다(VSO, 2016, p.16).

3) 자세한 사항은 시드글로벌헬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eedglobalhealth.org/about) (접속일: 2017. 04.16.)

영국 VSO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2015년 UN 총회에서 SDGs 설정 시, SDGs를 달성하는데 있어 민간이 주요 파트너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5년 7월 VSO는 '지식 교류(knowledge exchange)'를 대표적인 기업 연계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다.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 민간 영역 노하우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영국 DFID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하는 VSO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획득하고, 삶을 개선하며, 민간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봉사단원으로 참가하는 직원들은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 유연성, 전략적 사고, 팀 리딩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 타문화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게 보상할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기회를 가지고, 직원의 재능을 발견 또는 향상시킬 수 있고, 신흥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신상품 개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해 증진도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4)]

2015-2016년 VSO '지식 교류'는 NTT Data와 Citi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가해 가나와 케냐에서 활동하였고, 액센츄어(Accenture), IBM, 신젠타(Syngenta), 란스타드(Randstad), 셸(Shell) 등 쟁쟁한 기업들이 봉사단 활동과 자금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였다(VSO, 2016: 19).

사례를 몇 가지 들여다보면, Citi는 우간다, 헝가리, 프랑스,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 등지에서 12명의 기업 투자금융 직원들이 파견되어 활동하였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 전략과 수익 증대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IBM은 CSC (Corporate Service Corp)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00명 규모의 직원을 파견하여 건강, 교육, 사회 및 경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10-15명씩 팀을 이뤄 지역 정부, NGO, 대학,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정부기관의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의 빈곤 감소 활동에까지 이른다.

글로벌 농업기업 신젠타는 방글라데시에서 주민들의 수입 증대와 식량 확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 제한된 농지, 시장 접근성 문제로 소규모 농민들은 수입은 고사하고 먹을 음식을 생산해 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 많다. 'Growing 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신젠타 직원들은 현지의 Rural Development and Relief Services와 협력하여 농민들의 자립을 돕는다. 15명으로 구성된 2개의 팀이 4주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활동한다.

4) 자세한 사항은 VSO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vsointernational.org/volunteering/international-corporate-volunteering) (접속일: 2017.04.16.)

4. 캐나다 CUSO International의 다양한 시도

캐나다의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USO (Canadian University Services Oversea) International(이하 CUSO)은 전문 역량을 가진 봉사단, 협력 파트너십, 그리고 기부자들의 노력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을 감소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CUSO는 커뮤니티, 건강, 생계수단을 주요 영역으로 하여 봉사단을 파견한다. CUSO의 봉사단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 International Volunteering, Diaspora Volunteering, E-봉사단(E-Volunteering), Corporate Volunteering, Volunteer in Canada, South-South Volunteering, Customized Services,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 Community Selector Volunteers, Public Outreach Volunteers가 있다.[5)]

〈표 1〉 CUSO International 봉사단 프로그램 종류

구분	내용
International Volunteering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 파견되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전문 봉사단 프로그램. 활동기간은 6-24개월. 공동체, 건강, 생계 관련 프로젝트에서 세계 동료들과 함께 활동함.
Diaspora Volunteering	국가, 지역,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지리적 · 문화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토대로 활동하는 봉사단. 전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가 간 사업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해외에서의 경험을 공유함. 10년 이상 운영
E-봉사단 (E-Volunteering)	해외에 나가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메일, 스카이프 또는 다른 웹 기반 기술을 통해 활동을 수행함 • Peer-to-peer - 이메일을 통해 해외와 소통 및 업무 수행 • E-mentoring - 스카이프와 같은 온라인 툴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수혜자와 기술 및 경험을 나누고, 역량 강화에 기여 • Task-based technical assistance - 웹 사이트, 사업 계획, 리서치 프로젝트, 마케팅, 캠페인 등의 봉사단 업무를 원격 수행
Corporate Volunteering	다양한 직업 및 연구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해외 기업 및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봉사단원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문화 간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고, 기업 또는 기관은 봉사단원이 귀국 후 업무/연구 복귀 시 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단원의 새로운 전문성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기업 봉사활동은 직원에게 메리트가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임 사업 관리자, M&E 자문, 재정 자문, 전략기획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자문, 프로젝트 관리자, IT 전문가,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활동

5) 자세한 사항은 CUSO International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cusointernational.org/volunteer/types-of-volunteers) (접속일: 2017.04.16.)

구분	내용
Volunteer in Canada	해외 파견이 아니라 캐나다 국내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South-South Volunteering	중남미 또는 카리브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자신의 국가, 지역이 아닌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지역 사회,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지난 20년간 500명에 이르는 봉사단원을 파견함
Customized Services	선발, 교육, 활동 등을 기관이 원하는 형태로 세팅하는 맞춤형 봉사단 프로그램. 50년 이상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이 원하는 양질의 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가능. 직원 대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사업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등
International Youth Internship Program	캐나다 정부 지원으로 2년 동안 35명의 캐나다 청년을 5개 국가의 파트너와 연결. 2017년 3월 31일 종료
Community Selector Volunteers	봉사단 선발 시 해당 지원자의 기초적인 해외 활동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 단계 선발 수행 봉사단
Public Outreach Volunteers	자신의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국제 개발 수행. 봉사단원 선발, 교육, 이벤트 기획 등

출처: CUSO International 홈페이지 Type of Volunteers (http://www.cusointernational.org/ volunteer/types-of-volunteers) (접속일: 2017.04.16.)

이 중 E-봉사단은 기술의 발달로 봉사활동의 형태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이다. 201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현장으로 파견되지 않고도 자신의 사무실, 집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 및 현지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웹 사이트 개발, 소셜 미디어, 제안서 작성, 번역,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CUSO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연안의 20개 국가에서 빈곤층 및 소외 계층의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15년 4월 기준 82명의 E-봉사단을 운영하였다.

눈에 띄는 사례로는, 20년 경력의 무역 전문가 닉 브렌트(Nick Brent)가 프로젝트 관리 및 국제 사업개발 분야에서 캐나다의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스타트업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벨리즈(Belize) 카카오 농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 마야 마운틴 카카오(Maya Mountain Cacao) 팀을 구성해 협력한 것이 그것이다.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확대하여 생활수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마야 마운틴 카카오 팀의 E-봉사단원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멕시코 출신의 브랜딩 전문가, 워싱턴의 분석가 등이 그들이다.

마야 마운틴 카카오는 이제 한 국가에서만 활동하는 소형 벤처 스타트업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유사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Ⅳ. 민간 참여 확대 –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1. 대한민국 정부 지원 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FK)

2009년 대한민국 정부 지원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탄생한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기간, 형태의 봉사단을 세계 곳곳에 파견하고 있다. 월드프렌즈코리아라는 이름으로 2015년 기준 연간 4,814명 파견, 1990년 첫 파견 이래 누적 인원이 55,763명에 이르렀으며 파견 국가는 96개국에 이른다(KOICA, 2016).

〈표 2〉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소관부처	수행기관	봉사단명	파견기간	파견대상
외교부	KOICA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2년	20세 이상
		월드프렌즈 드림봉사단	1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반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	6개월	대학생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1년	18세 이상
		새마을 리더 봉사단	1년	20세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월드프렌즈 자문단	1년	퇴직(예정)자
교육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2~3주	청년/대학생
	(사)태평양아시아협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	1년	이공계 학위
	한국정보화진흥원	월드프렌즈 IT봉사단	4~12주	청년
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월드프렌즈 태권도 평화봉사단	1개월~1년	청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코리아 브로셔” 프로그램 개요

각각의 수행기관은 정보통신, 대학생 봉사활동, 연구 활동, 체육 등 기관의 전문영역에 맞는 특성화된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민간 단체 협력 프로그램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이 중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시민사회, 민간 차원의 참여를 최대화한 것으로, 국제 개발 협력 NGO와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가 운영하는 민간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이다.

세계 각국의 봉사단 프로그램과 WFK 봉사단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봉사단 선발부터 파견,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KOICA-KCOC-파견단체-현지사업장의 역할이 각각 나뉘어져 있고, 파견단체별 배분 인원은 외부전문가 및 KCOC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현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분된 인원 내 봉사단원 선발에 대한 권한은 파견단체에게 주어져 있다.

KOICA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협력 NGO, 즉 파견단체 본부는 단체별 사업계획 및 모집·선발부터 출국 후 단원의 활동 지원·관리 및 사업보고를 담당하고, 파견 단체 현지 사업장은 단원의 현지 업무와 활동을 관리하며, KCOC는 이에 필요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사업의 종합 계획, 단체·단원 심사 및 교육,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의 특징은 국제 개발 협력 NGO의 사업장으로 단원을 파견함으로써 세계 곳곳의 오지로 진출한 한국 NGO의 활동을 촉진하고, 현지 활동을 위한 인적 지원, 나아가 길게는 3년간의 활동을 통해 봉사단원이 개발 협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봉사단원은 해당 국가, 지역,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NGO의 인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NGO의 특성상 현지 지역과 주민의 생활 속으로 더욱 친밀하게 들어가 사업을 수행하는 바, NGO 활동이 길지만 천천히 현지에 기여하고 현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봉사단원이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지식은 그 어떤 봉사단 프로그램보다 실제적이고 농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파견국 현지와의 협력을 통해 단원 파견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봉사단 프로그램이든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단원 파견지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협력 NGO, 즉 파견단체가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파트너십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 KCOC가 선발해 보내주는 단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견단체가 현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이중 봉사단으로 수행할 업무를 정하며, 인원/역할 등 봉사단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단원 선발과 파견,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봉사단 활동의 큰 목적과 방향성은 KCOC가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총괄 관리 역시 KCOC가 수행하나, 단원을 선발하는 것은 파견단체가 해당 단체의 가치, 특성,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수행하고, 현장에서의 사업 내용 및 단원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 역시 KCOC와 공유는 하되 파견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이로써 봉사단원은 KCOC의 이름으로 현지에 파견된다기보다 파견단체의 소속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림 2〉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사업운영 체계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브로셔”

〈표 3〉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세부 프로그램 (2017년 기준)

구분	특징	파견기간	인원
일반 봉사단	협력대상국의 경제 · 사회 발전과 우호협력 증진, 시민사회 개발 효과성 증진, 그리고 봉사단원의 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파견하는 봉사단 프로그램	1년 (2월~)	300명
프로그램 매니저 (PM)	국제 개발 협력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역량 강화, 해외개발사업의 전반적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파견하는 해당 분야 경력자 대상 봉사단 프로그램 ① 프로그램 관리자 : 개별 사업 발굴, 수행 및 평가 ② 분야 전문가 : 보건, 의료, 농림, 에너지 등 전문분야	1년 (2월~)	15명
코디네이터 (코디)	파견국 현지의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지 NGO의 사업 수행능력 증대, 실무역량 강화, 봉사단 관리 지원, 활동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해 파견하는 국가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1년 (2월~)	10명
꿈꾸는 청년봉사단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과 타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성찰,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6개월 (8월~)	15명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사업안내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의 성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밀착형 개발 협력으로 협력대상국 우호협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32개국 80개 단체 189개 사업장으로 연간 327명, 누적인원 3천 명 규모 단원 파견, 교육, 보건, 농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봉사단 파견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나눔을 가능하게 한다. 공모전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사업효과 확대의 측면도 있다. 프로젝트 공모전의 경우 프로젝트 수요 조사에서 실행, 평가까지 프로젝트 단계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파견단체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단원의 성장 및 국제 개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탐방 공모전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국제 및 로컬 NGO 방문으로 활동국가 내에서 다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를 이해하고, 협력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둘째, 앞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국제 개발 협력 NGO의 인적 기반 및 현지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발 협력 현장 경험과 사업 수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 잠재적 인력 기반을 확대한다. 그리고 보건,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분야 등 전문가를 ‘프로그램 매니저(PM)’로 파견함으로써 지역 조사,

사업기획 및 실행, 평가 등 현장 사업 전반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코디네이터' 또한 정보 공유, 교육 등 현지에서 NGO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코디네이터 파견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등 개발 협력 현장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현지 활동과 후속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자 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일반봉사단 활동 후 프로그램 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거나 파견단체의 실무자로 채용되어 본부 또는 지부에 근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봉사단원 활동이 개발 협력 분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중심의 귀국단원 프로그램에서 국제 개발 협력 이해교육, PCM 등 실무교육, 멘토링을 포함한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귀국단원에게 도움이 되는 커리어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 활동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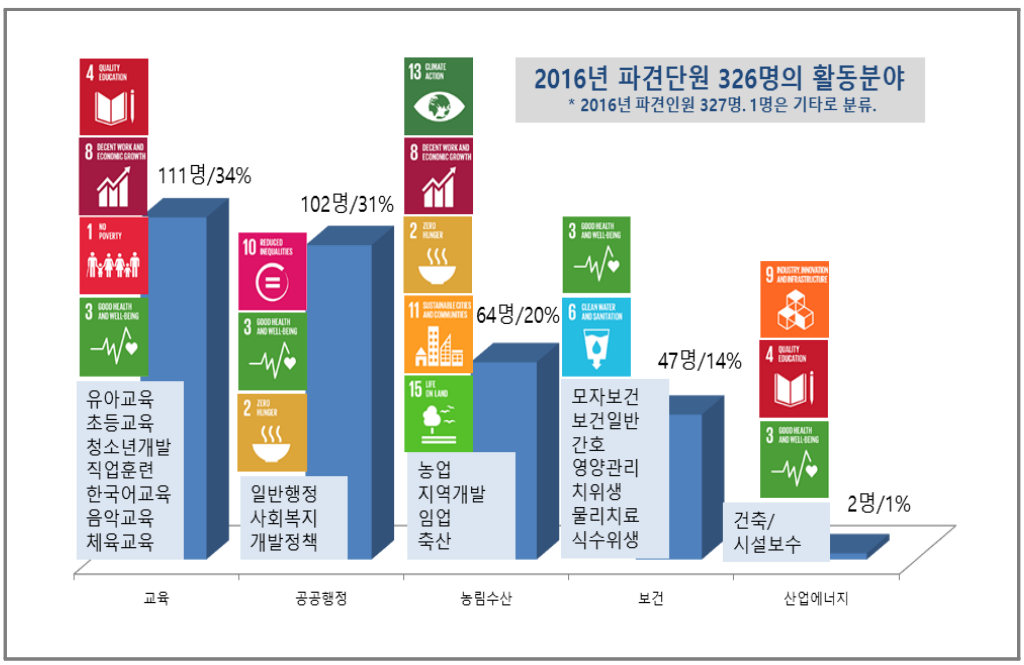
3.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

추가적으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지 밀착형 개발 협력 사업으로, 현지 삶 속으로 한층 가까이 들어가 활동하는 NGO봉사단원의 활동 분야와 SDGs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파견단체 주요 사업들과 SDGs의 높은 연계성도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의 강점이다. 보건/의료, 교육, 환경, 사회적 기업, 지역개발, 주거 개선, 식수 개발,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특화된 NGO들이 포진해 있다.

기동성과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다.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현지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즉각적으로 검토, 실행할 수 있는 순발력이 강점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민간에게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그림 3〉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활동과 SDGs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통계”

V.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단 활동

VSO, CUSO의 경우에도 기업 연계 봉사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증대와 함께 기업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1. 포스코 글로벌 청년 봉사단 ‘비욘드’

포스코가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청년 봉사단 ‘비욘드(Beyond)’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시작되어 매년 전국에서 100명의 대학생들이 선발되어 1년 동안 대한민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2011-2016년에는 포스그룹, 포스코1%나눔재단, 현지 지방정부, 해비타트가 협력한‘포스코 빌리지(POSCO Village)’ 프로젝트를 통해 총 8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건립하기도 했다.

2.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 '라온아띠'

KB국민은행과 YMCA가 협력하는 '라온아띠'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꿈꾸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5개국에 파견한다. 기간은 국내교육 1개월, 현지 파견 5개월이다. 2008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467명의 단원이 파견되었다.

라온아띠는 국제 개발 협력을 위한 기업(KB국민은행)과 시민사회(한국 YMCA)의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라온아띠는 아시아적 감수성을 가진 한국사회 청년 지도력을 키우고, 아시아 현지의 청년,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주인의식과 상호책임의식을 제고하는 참여형, 지역 밀착형 개발 협력 모델을 지향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은 2008년부터 매년 1천 명의 대학생을 봉사단으로 선발, 방학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Ⅵ. 결어

MDGs와 다른 SDGs 특징 중 한 가지는 참여주체 측면이다. MDGs가 정부 중심이었다면 SDGs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SDGs는 태생부터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설정되었고, 따라서 관련 주체 모두가 각자의 섹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제다. 게다가 17개의 목표 중 17번은 아예 'Partnerships for the Goals'로 설정되어 있다. SDGs의 수많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함을 표명하는 것이다.

현장의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에 투입되는 인적 요소에 있어서도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협력을 통하면 더 풍성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해외봉사가 더 확장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개발 협력의 결실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6. 『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Peace Corps. 2015.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15.” Washington, D.C.: Peace Corps, available at https://www.peacecorps.gov/about/open-government/reports/ (접속일: 2017.04.16)

UN. 1987. “Our Common Future, Chapter2: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42/427). New York: UN.

___.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UN, available at http://www.un.org/millenniumgoals/news.shtml (접속일: 2017.04.16)

VSO. 2016.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6.”London: VSO, available at https://www.vsointernational.org/about-us/annual-report (접속일: 2017.04.16.)

미국 평화봉사단 홈페이지: http://www.peacecorps.gov (접속일: 2017.04.16)

시드글로벌헬스(Seed global Health) 홈페이지: http://seedglobalhealth.org/about (접속일 : 2017.04.16.)

VSO 홈페이지 https://www.vsointernational.org/volunteering (접속일 : 2017.04.16.)

CUSO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www.cusointernational.org/volunteer/types-of-volunteers (접속일 2017.04.16.)

JICA Volunteer Program: http://www.jica.go.jp/english/our_work/types_of_assistance/citizen/volunteers.html (접속일: 2017.04.16)

UN 홈페이지: http://www.un.org (접속일: 2017.04.16)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접속일: 2017.04.16.)

국내·외 봉사활동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박윤애 (자원봉사이음 대표)[1)]

목 차

Ⅰ. 서론
Ⅱ. 자원봉사(volunteering)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Ⅲ. 현대적 의미의 한국자원봉사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한국 자원봉사의 주요 발전 연혁
2. 한국 자원봉사 운영 현황 : 2014년도 자원봉사실태조사 분석 결과 중심으로
3. 자원봉사단체
4. 자원봉사센터
Ⅳ. 국내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
1. 정부의 노력
2.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선포
3.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자원봉사
4. 계층별 자원봉사
Ⅴ. 아태지역 자원봉사
1. SDGs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2. 자원봉사 인프라를 위한 역량 개발
3.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사례
Ⅵ. 국내봉사활동 운영 시사점과 해외 봉사활동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언
1. 사람(people)
2. 프로그램(program)
3. 인프라 및 정책(Infrastructure & Policy)
4. 한국의 시행착오가 주는 함의
참고문헌

1) 세계자원봉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IAVE) 아태지역 대표.

I. 서 론

해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의 봉사활동과 따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뤄질 때 해외자원봉사활동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자원봉사활동에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자원봉사 경험을 충분히 하여 그 가치를 알고, 실천이 몸에 배인 경우 해외의 어느 상황에서도 그 가치와 실천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생태환경 보호, 교육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대변 등 여러 크고 작은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힘을 인식하여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policy) 수립과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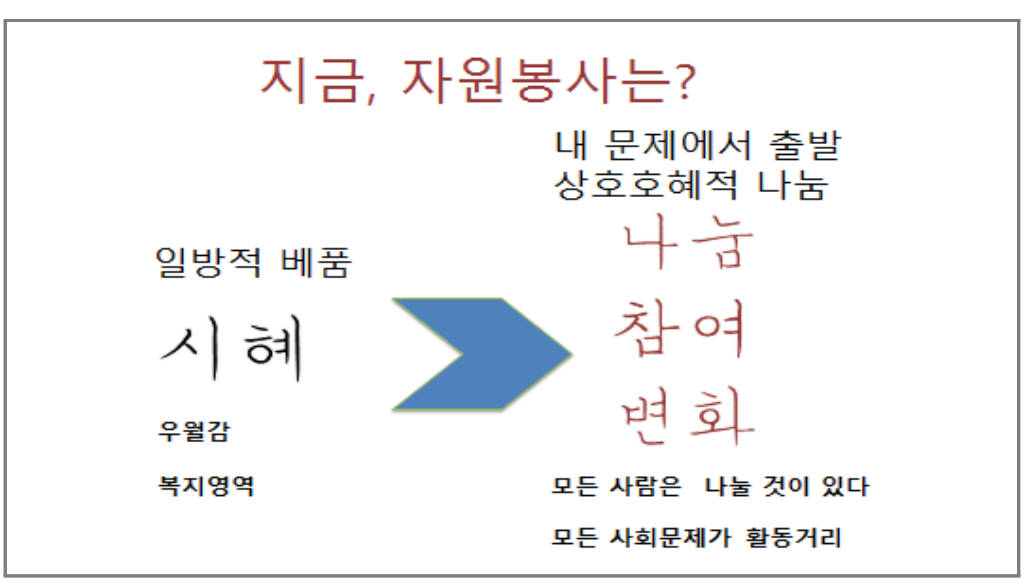
그 결과 자원봉사의 제도화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계 및 생활 유지로 인해 여유가 없어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와 민간의 힘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성급한 제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원봉사가 문화로 자리 잡는 일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고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 사업 운영에 대한 제언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자원봉사의 의미, 자원봉사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본인이 속한 세계자원봉사협회의 아태지역 자원봉사 현장 이야기도 담고자 한다. 아태지역은 KOICA의 현장과 겹치므로 KOICA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 발전과정과 현황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본고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해를 돕고 시사점을 얻기 위한 부분적인 내용이다.

Ⅱ. 자원봉사(volunteering)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volunteering)는 '시간적·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일' 혹은 '좋지만 부담스러운 일'등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봉사활동이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룬다. 즉, 육체적 노력을 통해 타인을 돕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성장과 인격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선행(善行)의 개념을 넘어, 자신이 속한 지역문제에 관여하고 직접 변화를 일구어내는'좋은 시민'이 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인(beneficial) 것이 아니라, 현 우리 사회와 생태계가 처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 자신과 현 세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자원봉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림 1〉 자원봉사의 의미



출처: 박윤애 (2016)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강의 자료

또한 자원봉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스스로가 바라는 형태의 보다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역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문제와 변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재능과 기술로 적극적인 기여를 할 때, 유의미한 변화를 일구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또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케 하는 주요 기제 중의 하나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현대적 의미의 한국자원봉사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한국 자원봉사의 주요 발전 연혁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원봉사가 어떠한 흐름으로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자원봉사 발전상의 중요 이정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한국 자원봉사 발전상의 주요 이정표(1988-현재)

1986	86 서울 아시안게임 자원봉사
1988	88 서울 올림픽 자원봉사
1993	대전 엑스포, 미국 자원봉사대회 참가
1994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설치, 제1회 자원봉사대축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창립
1995	최초의 기업 자원봉사단인 삼성사회봉사단 설립 선진국 자원봉사 인프라 2차 연수 실시 중고생 자원봉사 연간 40시간 필수 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창립, 대학 사회봉사과목 개설(한양대)
1996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시작, 정무제2장관실(1992), 보건복지부(1992), 문화관광부(1996)에서 각기 독자적 자원봉사 인프라 설치
1997	제 6차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개최(서울)
2001	UN 세계자원봉사의 해(IYV) 기념, 전국 자원봉사 물결운동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자원봉사, 제17차 IAVE 세계자원봉사대회 개최(서울)
2005	자원봉사기본법 제정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지향 자원봉사 인프라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007	제1차 자원봉사진흥 국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07-2008	태안 기름유출 사고 기름제거 자원봉사 실시

2011	제 13차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개최(경남 창원)
2012	여수엑스포 자원봉사 실시(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관) 제 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2014	세월호 사건 관련, 전국 분향소 및 안산, 진도, 팽목항 현장 자원봉사 실시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선포(현 진행 중)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준비 및 실시
2017	제 3차 자원봉사진흥 국가 5개년 계획 수립 준비 중

출처: 이강현 · 박윤애(2011, 2016) '한국자원봉사의 발전과정' 강의자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86 서울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반 대중에게 그 의미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촛불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 기업 자원봉사, 대학의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운영체계를 둘러보는 연수를 두 차례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삼성사회봉사단 등 주요 민간 자원봉사단체들과 기업 자원봉사단이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앙일보가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자원봉사 섹션을 만들고, 1994년부터 자원봉사대축제를 진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프라 설립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여성개발원에서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을 운영해오다 1992년부터 정무 제2장관실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보건복지부가 재가복지봉사센터, 1996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말까지 전국에 248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었다. 2005년 자원봉사기본법이 통과된 후 2007년부터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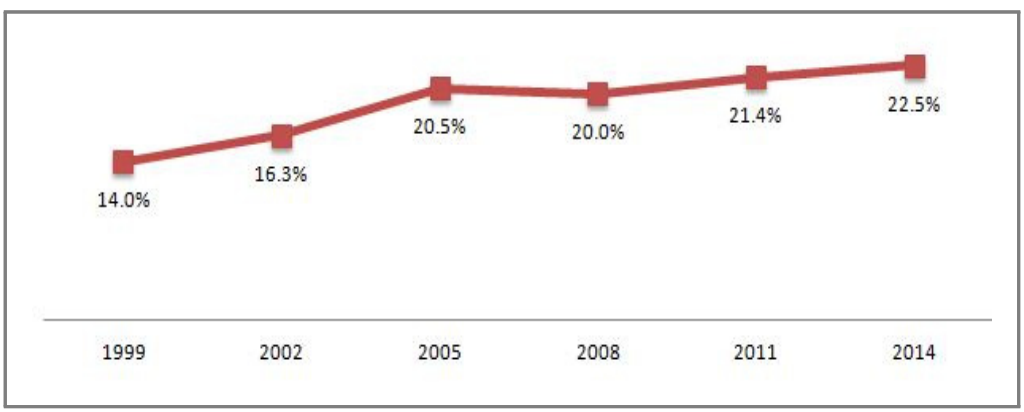
몇 번에 걸친 파주 홍수와 태풍 루사 등의 자연재해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세월호 사건 등 재난이 터질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은 발 벗고 나서서 피해복구와 유가족 지원 등의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민간 외교사절로서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워 왔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2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자원봉사의 재도약을 위해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선포하여 자원봉사 캠페인과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정책 재정립 노력을 진행 중이다.

2. 한국 자원봉사 운영 현황: 2014년도 자원봉사실태조사 분석 결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Volunteering Culture Korea, 전 볼런티어21)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 하에 한국갤럽과 함께 1999년부터 매 3개년 주기로 2014년까지 국내 '자원봉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 2>는 동 자원봉사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를 보여준다. 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2014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22.5%로, 2014년 조사대상자 20세 이상 성인 1,500명 중 337명이 2014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동 수치는 3년 전인 2011년의 참여율 21.4% 보다 1.1% 상승한 수치이다. 아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였으나, 2005년 이후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21-22% 수준에 계속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199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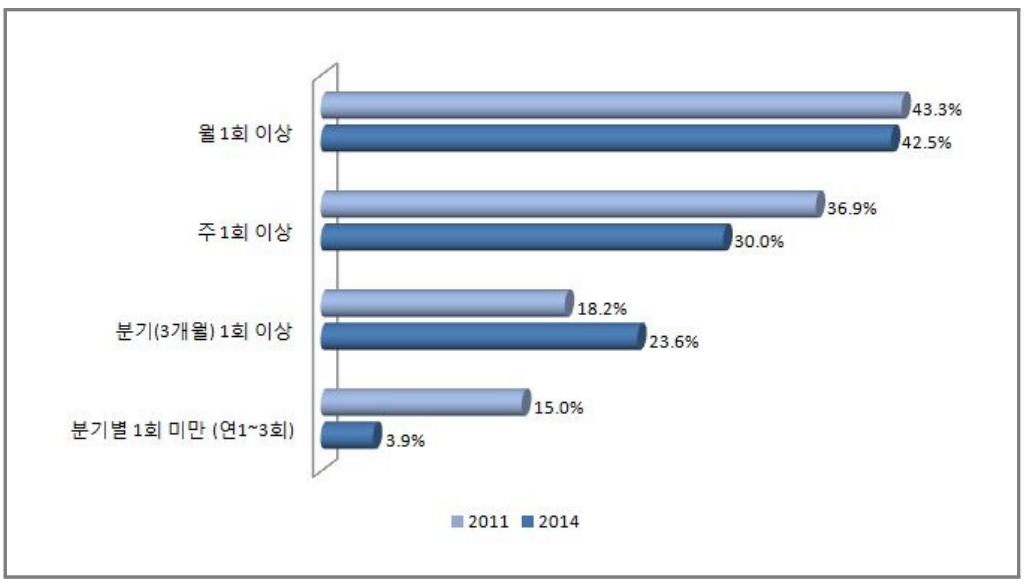


출처: 주성수 외 (2014)

또한 2011년, 2014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참여 비중 및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먼저 2014년 조사 결과,'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종사한다'는 자원봉사자는 전체 1,500명 중 37.7%이며, 그 중 '주 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비중은 30%, '월 1회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 비중은 42.5%이다. 동 수치는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36.9%, 43.3%였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정기 활동자 수가 상당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기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이 봉사자들의 수요 및 현 봉사활동에 대한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제대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20세 이상 인구 4,130만 3,341명 중 조사에서 나타난 자원봉사인구(22.4%)를 추정해보면 9,293,252명이고,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는 7조 9,877억 원으로 2011년의 절반 수준이다.

〈그림 3〉 정기 자원봉사 참여율 (2011,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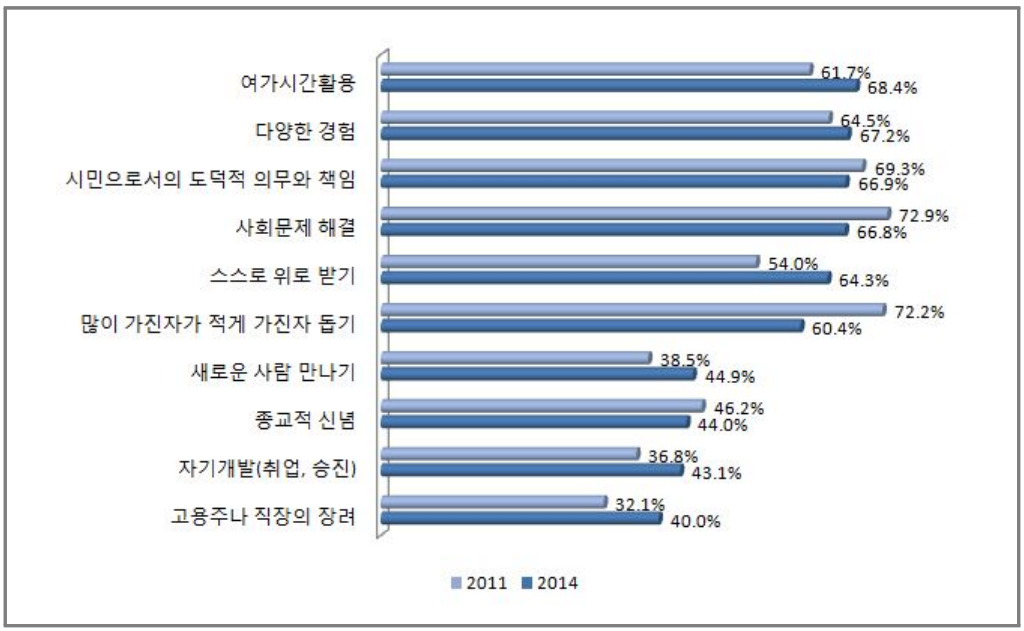


출처: 주성수 외 (2014)

또한 동 2014 '자원봉사실태조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봉사 참여에 대한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동 분석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도구적(instrumental)'동기와 '의무감(sense of duty)' 동기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2] 먼저 2014년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는 '도구적' 동기가 되는 '여가시간 활용'과 '다양한 경험'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의무감' 동기가 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 '사회문제 해결'이 주요 동기로 나타난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도구적' 동기가 '의무감' 동기를 크게 앞서는 특징이 부각된다.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위로받기'와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도구적 동기로 2011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특징이 있다. 반면에 '도덕적 책임', '사회문제 해결', '많이 가진 자의 의무'등 의무감 동기들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이타주의, 도구주의, 의무감 등 다양하다(Clary et al. 1998: 주성수, 2005: 53).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타주의 이외에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자기성장을 위해서 등의 도구적인 동기(주성수, 2005: 53) 또는 시민,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무감(sense of duty)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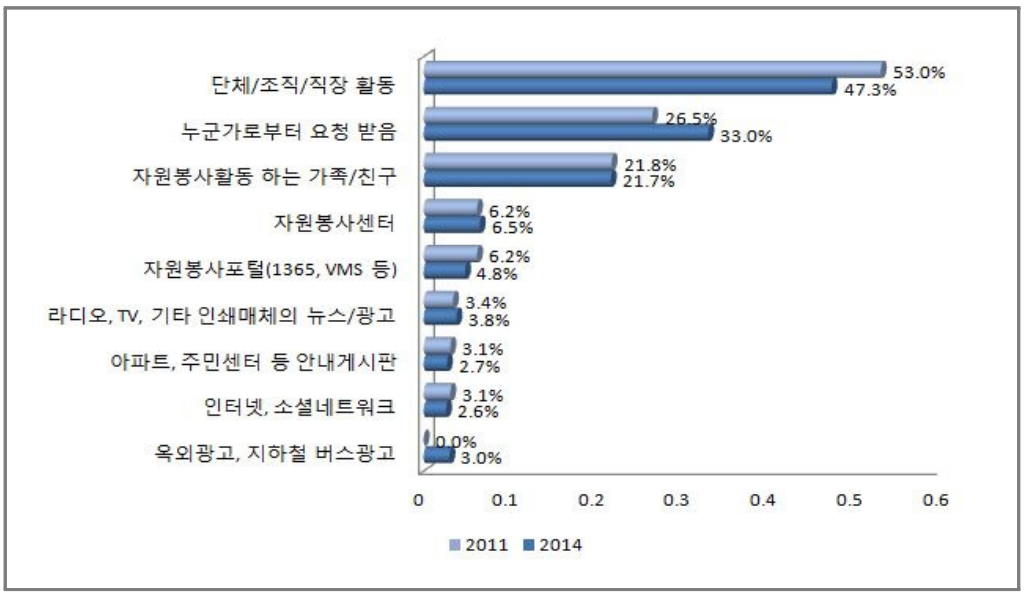
〈그림 4〉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11, 2014)



출처: 주성수 외 (2014)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처음 접하게 될까. 동일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조직(단체)을 통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2014년 자원봉사자의 참여 경로 또한 '소속된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을 통한 참여가 47.3%로 가장 많다. 동 참여 경로는 2011년과 비교하면 약 5.3% 정도 감소한 수치이나, 2011년과 2014년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누구로부터의 요청'으로 인한 자원봉사 참여 방식은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5.5%가 증가한 33% 비중을 보임으로써 보다 중요한 참여 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참여하게 되었다는 비중도 2개년 모두 약 2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참여 경로는 6%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VMS)' 또한 지속적으로 5% 내외를 유지함으로써 참여 경로로서의 영향력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자원봉사 최초 참여 경로 (2011, 2014)



출처: 주성수 외 (2014)

3. 자원봉사단체

우리나라 자원봉사에 있어 민간의 대표 법정기구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3]가 있다. 아래 <박스 1>에서와 같이 「자원봉사기본법」 제 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근거와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박스 1〉 자원봉사기본법 제 17조 자원봉사협의회 설립근거

[자원봉사기본법 제 17조]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 · 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출처: 자원봉사기본법

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관에 대한 상세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vkorea.or.kr) (접속일: 2017.4.14)

동 협의회에는 현재 총 1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6개의 공공기관, △삼성사회봉사단을 포함한 15개의 기업,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 아름다운가게 등 41개의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20개의 사회복지단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교회봉사단 등 7개의 종교단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 8개의 자원봉사 전문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등 5개의 지역협의회, △대한약사회 등 5개의 직능단체,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 3개의 학교 관련 단체, △국제개발민간협의회 등 7개의 국제협력 단체가 속해 있다.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와 단체, 기관 자체가 수많은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 매우 광범위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전문단체들 중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4]는 전국 245개 센터 중 223개의 자원봉사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주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시키는 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들의 역할 정립, 그리고 자원봉사계의 현안과제 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Forum of Volunteerism)은 선진국 자원봉사연수를 함께 다녀온 전문가들이 1995년 창립하여 시민자원봉사헌장 제정, 자원봉사계 현안과제 정책토론 등 한국자원봉사학회(Korea Academy of Volunteerism)와 더불어 자원봉사계의 정책수립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문화는 1996년에 창립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 전국자원봉사실태조사연구 등의 연구, 기업 자원봉사 컨설팅, 프로보노 자원봉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이음(Volunteering Connected, 전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은 자원봉사 실무자, 활동가들의 인적네트워크로서'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5]을 제정, 보급하고 있으며, 성장을 돕기 위한 소모임 운영, 매년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의 날 한 달 전인 11월 5일을 '국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기념하여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시상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4. 자원봉사센터[6]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기본법」 제 19조에 그 설립근거가 있으며, 자원봉사를 필요로

4)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kfvc.or.kr/) (접속일: 2017.4.14)

5) 동 윤리강령에는 자원봉사자, 조직,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www.volunteereum.org/ethics) (접속일: 2017.4.14)

6) 동 절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 정리하였다. 동 자료집의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 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9&nttId=56772f (접속일:2017.4.14)

하는 곳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립되었다. 재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두 명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위탁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 실무자와 리더,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 내 풀뿌리 소모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유관 기관, 기업과의 네트워킹, 자원봉사 인정, 자원봉사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중에는 그 설립 역사가 20년 이상 되는 곳들도 다수이며, 이러한 센터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사정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의 오랜 실무 역량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허브 기능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민간의 역량 한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들에 직면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구조 하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수요(needs)보다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때로는 지자체에 대한 동원성과 일회성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여야 하는 문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기 존재하는 자원봉사조직과 경쟁구도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지역이 민간 자원봉사조직의 자생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간혹 유발하기도 한다.

2016년 말 행정자치부가 발간한『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45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며, 이 중 53.9%(132개)가 직영, 20.4%(50개)가 위탁, 25.7%(63개)가 법인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1,451명이며, 이 중 90%가 민간인, 10%가 공무원이었다. 종사자 중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은 9.6%, 5년 이상은 23.3%였으며, 한 센터 당 평균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센터 당 평균 예산은 92,317천 원이었다.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약 1,140만 명이며 이는 인구 대비 22.4%에 해당한다. 이 중 1년 간 한 번 이상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32.9%(3,746,577명)이며, 여성은 56.9%, 남성은 43.9%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14.4%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 2015년 국내 자원봉사센터 현황

구분	현황		
자원봉사센터의 수	245개		
운영 형태	직영		53.9%(132개)
	위탁		20.4%(50개)
	법인		25.7%(63개)
종사자 수	1,451명	민간인	90%
		공무원	10%
근속연수	10년 이상		9.6%
	5년 이상		23.3%
센터 당 평균 근무자	5.5명		
센터 당 평균 예산	92,317천원		
센터에 등록된 인원	11,383,726명 (인구 대비 22.4%), 활동 인원은 32.9%		
활동한 사람 비율	32.9% (3,746,577명)		

출처: 행정자치부『201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

Ⅳ. 국내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

정부는 대규모 행사 개최 또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각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 설립 및 지원뿐만 아니라, 2005년 「자원봉사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2006년 동 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2007년부터는 「제1차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까지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학생 자원봉사, 대학생 자원봉사 등과 같이 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봉사활동 개최 및 참여주체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 절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활성화 노력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기업 자원봉사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겠다.

1. 정부의 노력

가.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2005년 「자원봉사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후 5년 단위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되 자원봉사의 실행주체는 민간이며,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근본정신을 갖고 있다. 동 기본계획은 현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개 영역의 정책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 2차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2013-2017)」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그리고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으로 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5개 영역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매 년 각 영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 2차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평가와 함께 「제 3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 1, 2차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 1 · 2차 국가기본계획

비전	제 2차 (2013-2017)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	1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 2 생애주기별 시민참여 확대 3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5대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 **자원봉사문화의정립과확산**: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 통일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 가치 증진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 **정부-기업-시민사회파트너십**: ▲시도 평생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 **생애주기별자원봉사참여확대**: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직장인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지원 인프라
	▪ **제도및정책정비**: ▲기본법령 개정 및 관련법 재정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활성화
	▪ **민간인프라확립**: 민간 자원봉사 대표기관 역할 강화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물적인프라구축:** ▲자원봉사 진흥기금 조성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
	자원봉사 관리와 개발
	▪ **자원봉사활동관리체계화및관리자양성:**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시민리더십육성및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 **자원봉사활동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전국 분야별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태조사
	▪ **자원봉사연구활동지원:** ▲한국자원봉사백서 국·영문 발간 ▲자원봉사 전문 학술지 발간 지원 ▲정책과제 연구 활동 지원
	▪ **자원봉사평가체계개선및평가시행:**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 ▲정부 자원봉사정책 성과 평가
	자원봉사 글로벌 협력
	▪ **자원봉사국제개발협력활성화:** ▲전 자원봉사 국제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 **자원봉사국제교류활성화:**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정비 및 개발 ▲국제교류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자원봉사국제사업관리체계구축:** ▲자원봉사 국제사업 관리 체계 구축

출처: 주성수 외 (2012)

나. 자원봉사 종합 안내시스템: 시간실적 관리 정책의 한계

각 정부 부처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원봉사 종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위한 '두볼(Dovol),'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7] 그동안 상호 연계성이 낮음에 따라 현장에서 중복 관리 등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각 부처별 시스템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시스템들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개별 시간 입력 데이터와 실적관리 데이터 모두를 포함하여 시스템 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7) 본문에서 소개된 각 정부 부처의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포털: https://1365.go.kr, △여성가족부 '두볼(Dovol): http://dovol.youth.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http://www.vms.or.kr/index.jsp (접속일: 2017.4.15)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들 또한 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1365 자원봉사포털'의 경우 종종 전산시스템 과부하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전산시스템보다 한 단계 위의 성능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산시스템이 보다 시민 수요 중심으로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경우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이에 대해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은 행정자치부의 동 포털이 시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입장의 통계와 관리 위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제시한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식적으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자원봉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사용자인 센터관리자 및 이용자인 자원봉사자들의 눈높이와 편익을 위해 존재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자원봉사자 및 시민 중심이 아니라 등록, 통계 등의 시스템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2015)[8]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개별 시간 수 적립이라는 현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산입력과 시스템 정비 등 행정관리와 시스템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낭비 문제와 무엇보다 자원봉사가 시간 수 적립이라는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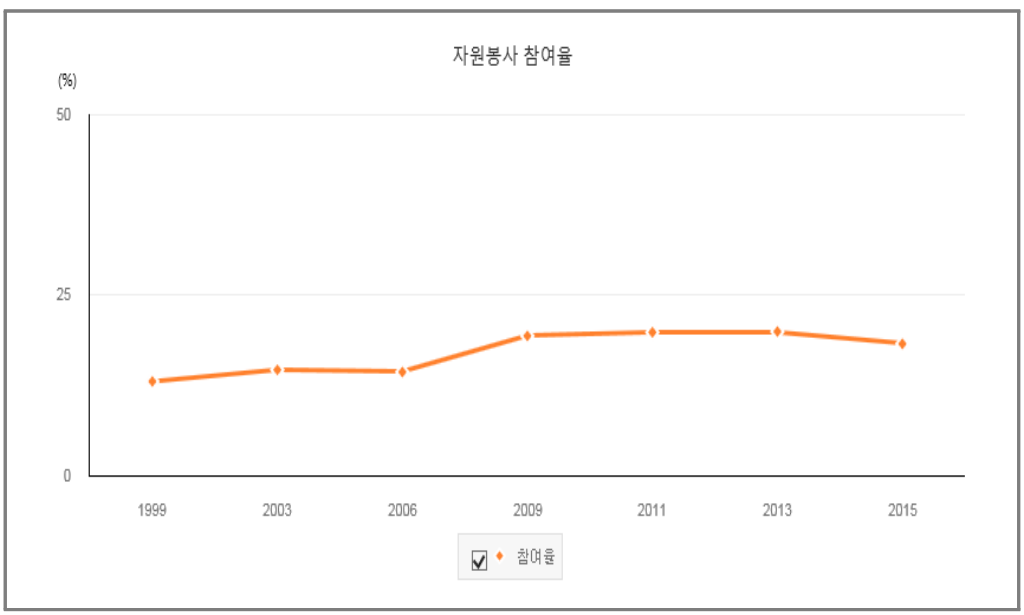
보다 많은 샘플을 갖고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통계청 조사[9]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1년 13.0%, 2003년 14.6%, 2006년 14.3%, 2009년 19.3%, 2011년 19.8%, 2013년 19.9%, 2015년 18.2%로, 20%를 밑돌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체 상태라고 할 수 있다(아래 <그림 6> 참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제출한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의 전문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volunteer.seoul.go.kr/news/notice/view/986?keyword= &searchField= &page=8) (접속일: 2017.4.15)

9) 통계청이 제시하는 자원봉사 참여율 그래프 및 통계표는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88 (접속일: 2017.4.16)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제도화 노력들이 오히려 인프라 중복과 예산 낭비를 낳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시간실적관리로 인해 자원봉사가 실적을 쌓는 일로 인식되는 등 오히려 자원봉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6〉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1999–2015)



출처: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사이트 (http://www.index.go.kr) (접속일: 2017.4.1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5년 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Korea Year of Volunteering)'를 선포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자원봉사의 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3년이란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동 기간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들을 확산 및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자원봉사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내용은 크게 첫째,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가치 고취 노력, 둘째, 자원봉

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선정과 과제별 다양한 사례 발굴 및 보급, 영향력 지표 개발, 셋째,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기본법 개정, 제3차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국회자원봉사포럼 발족 및 파트너십 구축, 자원봉사기금 조성 등의 정책과제가 있다. 다음은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가이드북"에 게재된 사업 내용과 10대 과제 및 추진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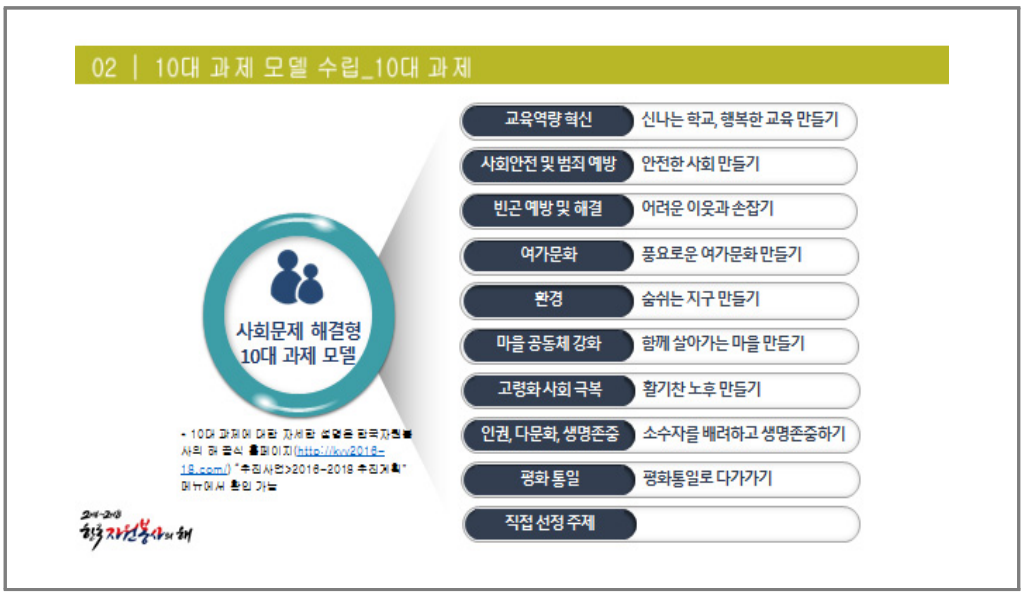
〈그림 7〉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사업 추진 배경



출처: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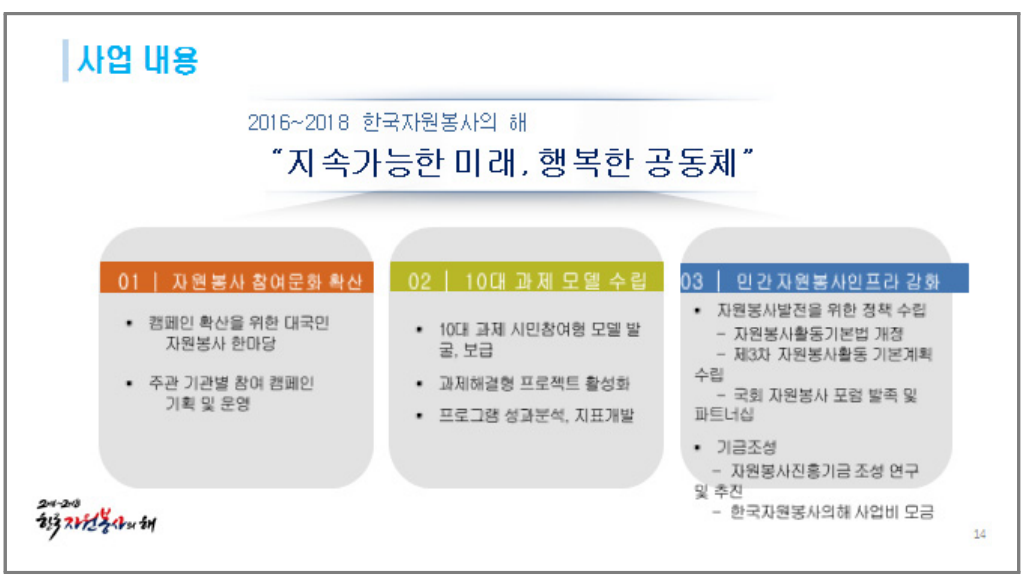
특히 한국자원봉사의 해를 계기로 2018년까지 자원봉사자가 해결해야 할 10대 사회이슈와 과제를 선정하여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표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2030년까지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맥락을 같이하여 여러 관계자의 워크숍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그림 8〉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10대 과제



출처: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가이드북

〈그림 9〉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사업 내용



출처: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가이드북

3.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지구촌의 심각한 사회·생태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 하에 SDG 17에서도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혁신적(innovative)이고 변혁적인 (transformative)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도 자원봉사는 이제 단순히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주도(citizen-led)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해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과 자원봉사센터들 또한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례와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가. 중앙일보 자원봉사대축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4회를 맞고 있는 중앙일보 자원봉사대축제도 사회문제와 관련된 포럼과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공모하여 보급하고 있다. 동 행사는 매년 새로운 주제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노유진 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해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반영하여 주제와 슬로건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IMF 사태 당시의 주제는 '실직자 돕기,' 월드컵을 1년 앞둔 2001년에는 '월드컵과 함께 내 고장 가꾸기,' 2002년에는 '세계로 열린 시민정신,' 2007년은 '지식재능봉사로 만드는 나눔공동체,' 2008년에는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선정하는 식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웹진 49호, 「전국자원봉사대축제 20년의 회고」 인터뷰에서 발췌)[10]

동 행사는 주제적합성, 실행 완성도 및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 및 복합 정도, 차별성과 혁신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모델을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축제와 아울러 시대에 맞는 주제로 특별 포럼도 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와 그 흐름을 같이하여 '자원봉사로 어떻게 사회혁신을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10) 노유진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차장/연구위원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vc1365.tistory.com/653) (접속일: 2017.4.16)

나.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한 풀뿌리 조직 역량 강화

몇 년 전 자살문제가 심각했을 때, 서울시의 여러 자원봉사센터들과 풀뿌리 민간단체들은 '자살예방, 생명존중'이라는 큰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3년 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희망편지 쓰기, 집단상담 등 자살충동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다문화와 자원봉사, 기후변화와 자원봉사, 공동체 회복과 자원봉사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내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 교육과 슈퍼비전(supervision)을 제공하면서 풀뿌리 조직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지표 개발 및 보급

아울러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투여 대비 효과성과 이를 넘어선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표 개발과 영향력(impact) 측정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기업 등이 기존의 수적인 산출(vertical output)만으로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표 또한 적절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하며, 실제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실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보다 정리해나가야 하는 등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11]에 대한 연구(이란희 외, 2013)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자원봉사에 투입되는 인원 및 시간 등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에 치중하였던 것을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 측정을 시도하였다. 동 분석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Volunteer), 조직(Organization), 사회(Society)로 구성된 3개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VOS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모델은 VOS 3개 영역에 대한 11개 평가 항목, 69개 지표로 개발되어, 자원봉사자가 각각의 영역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평가는 자원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자의 대인관계가 개선되었는지, 행복도가 증가하였는지, 조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평판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움이

11)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3년 한국자원봉사문화수행(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이란희 박사, 도움과 나눔 이원규 부대표 등)이 자원봉사자, 조직, 지역사회 분야의 변화를 측정하는 질문을 개발하였다.

되었는지 등에 대해 전후 평가로 측정한다.[12)]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에서도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지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지녀야 하는 특성으로 과정 지표 3단계에서 혁신성, 시민주도성, 협력성의 3가지에 주목하여, 사회적 문제의 파악과 정립, 문제 해결과 사회적 혁신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과정상의 속성을 살펴보고, 결과 지표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확산성과 사회적 변화 2가지에 주목하고 있다(정희선 외, 2016:21-22). 다음 <표 4>는 10대 어젠다 자원봉사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이다.

〈표 4〉 10대 아젠다 자원봉사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분류	영역	개념정의	항목	지표근거
과정 차원	시민 주도성	프로젝트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였는가를 의미함	· 자발적 참여 · 의사결정 태도 · 역할과 책임	·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2009, 2016) ·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2003) 자원봉사정신 · 이은경 · 오민아 · 김태준(2015) 글로벌 시민성
	혁신성	혁신성은 프로젝트가 활동 내용과 방식에 있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을 했는가를 의미함	· 새로운 이슈와 대상 ·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식 · 새로운 기술 활용	· European Commission / OECD(2015) 사회적 영향력(사회혁신) · Social Innovation Review · TEPSIE 사회혁신프레임워크 모델(EU) (2014)
	협력성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들이 적절하게 연계되고 기능하였는가를 의미함	· 파트너의 적합성 · 물적자원 활용 · 소통 · 역량발휘	· 이명신 외(2015) 섹터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 Tennyson(2011) 섹터 간 파트너십 툴
결과 차원	사회적 변화	프로젝트 수행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는지를 의미함	· 사회문제 해결 기여 · 삶의 질 및 지역사회 변화 · 법/제도 변화 · 지역사회 인식 향상 · 참여자 역량 향상	· 이란희 외(2013) 자원봉사 사회적 영향력 지표 · 김용득 외(2010) 사회공헌 성과지표 · UWA 성과관리모델 · Social Value 측정평가모델 · 아쇼카 영향력 측정모델
	확산성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이나 이슈로 적용과 보급이 용이한지를 의미함	· 보급가능성 · 적용가능성	

출처: 정희선 외 (2016)

1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vc1365.tistory.com/969) (접속일: 2017.4.16)

4. 계층별 자원봉사

가. 청소년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의무화가 실시되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자원봉사로 유인하기 위하여 '시간 수 적립'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자원봉사를 '점수 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도 지역사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 거리를 찾기 위해 학생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상황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 행정자치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을 위한 '두볼'등 자원봉사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적합한 활동거리를 찾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청과 한국청소년진흥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청소년 교육 강사 혹은 코치로 양성하여 자원봉사 기본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가 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 대학생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는 대학생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문제 해결력,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전국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봉사는 교육, 연구와 더불어 3대 대학 기능 중 하나이다. 대학생들이 공공(公共)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적 참여에 관한 가치관과 봉사기술을 개발, 장려하는 데 일조하고자[13] 1996년 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이 자원봉사학점 이수제도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해외봉사활동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KOICA와 지자체, 국제개발민간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이러한 기회 제공의 광범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 대학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기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등 학생들의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청소년 시절 경험한

13)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창립발기문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동 협의회의 창립발기문 전문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www.kucss.or.kr/page/profile) (접속일: 2017.4.16)

의무 봉사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거나 소위 경력 쌓기를 위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봉사활동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로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획봉사단과 홍보봉사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팀을 이루어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실행하고 평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다. 은퇴자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대적인 은퇴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예정이다. 조기 은퇴를 하고 사회로 나오는 은퇴자들의 제 2의 인생설계는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들은 공공업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안내자 등 은퇴자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문화는 '앙코르유 센터(Encore-U)'를 설립하여 은퇴자들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학습 멘토(mentor) 역할을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창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50+ 캠퍼스'에서는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평생교육(인문학 등)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와 사회공헌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2차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확대' 부문에서도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 제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회도 많고 비영리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재능과 관심사,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자원봉사 기회를 만드는 일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라. 이주민

어린이, 노인,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는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 함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짬을 내어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국가별로 자원봉사 모임을 조직하여 자원봉사 경험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렇게 경험을 한 이들이 귀국하여 자신의 나라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창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네팔(Nepal)의 네코스(Nepal Korea Culture Exchange & Social Organization, NEKOS)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한국에서 5년간 이주노동자로 근무하며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네팔 이주노동자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한 네팔 현지민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 네코스와 나란히 설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네팔 지진 때 복구 노력과 집을 짓는 활동 및 지역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캠페인과 함께 진행해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Ⅴ. 아태지역 자원봉사

1. SDGs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관련 단체들과 자원봉사단체들이 SDGs와 자원봉사에 대한 콘퍼런스, 워크숍, 사례 발굴, 직접적인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 ‘SDGs와 자원봉사(Volunteerism: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DGs)’라는 주제로‘제2회 전국 콘퍼런스(2nd National Conference on Volunteerism)’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연합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 이하 UNV)과 일본, 홍콩,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서 발표자를 초청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각국의 자원봉사 실천 노력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Building up a new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란 주제로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실천 사례들을 접해보는 연수도 진행하였다.

직접적인 실천의 한 예로, 방콕 부근 촌부리 주(Chonburi Province)의 에코빌리지(Eco Village)는 척박한 토지를 일구어 생태계를 살려내고 그 땅의 산출물로 집도 짓고 음식과 생필품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방식을 비롯해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자급자족 경제방식을 최대한으로 준수하고 자원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빌리지는 지속가능한 자급자족 경제방식을 후대에 교육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영어, 예술 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페이스북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홍보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자원봉사 인프라를 위한 역량 개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베트남 자원봉사문화 활성화 사업'은 개발도상국가의 자원봉사 인프라 지원 및 역량 강화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5번째 정책 영역의 두 번째 과제 세부 목표인 '자발적이고 주도적 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자원봉사 문화지원'의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이후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사업이다.

동 사업 운영은 2013년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시작으로, 2014년 '베트남 자원봉사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교육 및 '베트남자원봉사센터(Vietnam Volunteer Center, VVC)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리자 초청 연수를 시행하고, 2015년에 '베트남 자원봉사지도자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베트남자원봉사센터 관리자 5명을 초청하여 2주간 정부와 기업, 중앙·광역·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하고 자원봉사 체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자원봉사 인프라의 발전과정과 한계점, 운영 노하우, 자원봉사조직 운영 노하우,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획 등에 대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참가자들이 사전에 개별 연수의 목적과 연수를 통해 얻고 싶은 점 등을 연수계획서로 작성하고 연수과정 동안 현장학습을 통해 배운 점, 베트남 현지에 대한 적용 희망사항, 추후 학습 희망사항 등을 일지로 작성 및 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연수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베트남 자원봉사 인프라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한계점, 적용점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4).

3.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사례

라오스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이선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 대외협력본부장은 2000년대 초부터 교류해온 라오스 왕위앙(방비엥) 마을에 2007년 '청소년센터(Youth Center)'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

고 있다. 동 센터의 경우 현지 청소년들을 직접 운영에 참여시키며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현지민의 주인의식(ownership)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은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과 함께 5개 마을에 청소년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푸딩댄 청소년센터(Phoudindaeng Youth Center)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선재 전 대외협력본부장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나는 라오스 왕위앙에 있는 푸딘댕 청소년센터에서 자원 활동을 한다. 2007년에 문을 연 센터는 라오스 안팎으로 꽤 유명하다. 지역에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했고, 지금은 청년들이 어른 없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요즘에는 이 청년들이 푸딘댕 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왕위앙 지역 여러 마을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센터 설립 일을 돕고 있다."(ODA WATCH 뉴스레터 83호, 2013)[14]

UNV의 전략적 목표[15] 중의 하나 또한 지역 청년들의 성장(growth)과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인데, 이러한 점에서 동 센터의 활동은 라오스 현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현지민의 실제 변화와 성장을 일구어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국내봉사활동 운영 시사점과 해외 봉사활동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언

국내자원봉사 운영 경험을 비추어보았을 때,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people)의 변화이자 사회(society)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여 성장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KOICA WFK 사업과 해외봉사활동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할지에 대해 사람, 프로그램, 인프라 및 정책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14) 이선재 전 대외협력본부장의 '라오스 방비엥 청소년센터'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ODA WATCH 뉴스레터'의 "이선재, 라오 이야기 2. 누가 지역을 지키나? - 세상'물' 좀 먹어본 청년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5&document_srl=38427) (접속일: 2017.4.15)

15) UNV의 운영 전략은 UN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unv.org/about-unv) (접속일: 2017.4.15)

1. 사람 (people)

사람의 성장은 현지인의 성장과 봉사자의 성장, 실무자/지도자의 성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가. 현지의 사람

1) 아태지역 자원봉사활동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배운다

세계자원봉사협회의 전체 회원국 구성을 보면, 6개의 지역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가장 많은 국가수가 분포되어 있다. 대상 국가들 중에는 호주, 중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과 같이 우리나라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국가들도 다수이다. 또한 아태지역 각국에서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 대회(IAVE Asia-Pacific Regional Volunteer Conference)가 개최될 경우, 개발도상국 내 자원봉사단체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노하우, 애로사항 등을 다른 나라의 자원봉사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지지는 않았으나 이에 비해 민간 차원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도국 현지 봉사단체들 또한 봉사활동 전문가로서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다.

2011년 경남 창원에서 제 13차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13rd IAVE Asia-Pacific Regional Volunteer Conference)가 개최되었을 당시, 라오스의 참여발전훈련센터(Participatory Development Training Center, 이하 PADECT) 단체 창립자인 솜밧솜폰(Sombath Somphone)[16] 대표가 연사로 초청되어 라오스의 전통과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정신과 환경, 행복을 고려한 개발 활동과 유기농법 사용, 전통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세대 간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자체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이행해나가는 PADECT의 모습이 당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PADECT에서 인큐베이팅하여 설립된 농촌개발기관(Rural Development Agency, RDA)은 현재 세계자원봉사협회의 회원국 중 하나인 라오스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자원봉사협회의 회원국들과 대표들은 활동 현황을 보면 상호간의 장점과 각자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닌 쌍방의 교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6) 라오스 참여발전훈련센터 창립자인 솜밧솜폰 대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en.wikipedia.org/wiki/Sombath_Somphone) (접속일: 2017.4.18)

2) 현지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

'ODA Watch 뉴스레터'의 '미얀마 지역개발 활동가들, 한국시민사회를 만나다'편을 통해 미얀마 지역의 개발활동가들로부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제언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동 편에 소개된 미얀마 활동가 2인의 인터뷰 내용이다. 한국을 찾은 미얀마 활동가 아웅 니우(Aung Niwoo) 씨의 활동 경험은 한국의 ODA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해주고 있다.

>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단순히 미얀마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또는 단체의 사업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얀마에 들어오지 말고 미얀마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미얀마에 들어와서 활동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들을 바꾸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ODA WATCH 뉴스레터 83호, 아웅 나우(Aung Niwoo) 활동가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 "학교 건물 몇 동, 우물 몇 개 등 가시적인 인프라 지원이나 일회적인 지원은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미얀마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얀마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미얀마의 시민사회와 협력・연대할 필요가 있다."(민민(Myint Myint), 'ODA Watch 뉴스레터 제83호' 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보았을 때, KOICA의 WFK 사업이 봉사활동 대상 현지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공동체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곳에서의 자원봉사는 어떤 모습으로 접근 및 실시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모델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봉사활동 사업 운영에 있어 현지민들의 자발적인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를 효과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현지민들로부터 사업 운영의 접근 및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3)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지 단체 설립지원

아울러 기존에 한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는 개인 차원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추후 개발도상국의 현지 봉사활동 단체 설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가령 네팔의 네코스, 미얀마의 미얀마봉사단센터(Myanmar Volunteer Community Center, MVCC) 모두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지민들이 본국에 귀국한 후 설립한 봉사활동단체이다. 동 현지 단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멘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지원받음으로써 단체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현지에서 실제 단체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한국 봉사활동단체 운영 방식의 개발도상국 현지 확산 및 전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은퇴자들의 역할

네팔 네코스의 경우 네팔 현지인들과 네트워크를 맺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현지 지도자 교육 담당자의 구성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소속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 운영 실무 경험이 있던 은퇴자들 또한 포함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선재 전 대외협력본부장의 경우도 은퇴 후 지구촌 귀농을 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자원봉사를 경험한 은퇴자들이 오랜 현장 경험 및 노하우와 함께 은퇴 후 비교적 시간 여유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 현지민들의 자원봉사단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지센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또 다른 일례를 보면,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로의 재직 경력 및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코이카 시니어봉사단원 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듯 은퇴자들의 적극적인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는 해외 현지민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도 추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봉사교육 이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원봉사자들의 성장을 위한 국내 자원봉사단체/센터들과의 파트너십: 자원봉사 기획, 실무 경험,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 대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기획·진행하는 방식의 '기획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의 청소년, 대학생 대상 봉사단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대학생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도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준비-실행-평가와 반성-인정과 축하'의 봉사학습(service-learning)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학생들이 바쁜 학업 일정으로 인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 봉사활동적 접근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아리를 조직하여 6개월-1년 이상 장기적인 활동을 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봉사학습적 접근방식에 따라 봉사활동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다소 보완할 수 있다. 특히 해외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학습적 접근방식을 통해 준비 가능한데, 가령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2주간의 해외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달 동안 사전준비를 시작하고, 봉사활동 종료 후 한 달 간 사후평가 및 인정 등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봉사활동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하에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들은 청소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발굴하고 조직화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속한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도자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는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봉사활동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이러한 노하우가 접목될 수 있다면 파견 봉사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미 국내 곳곳에 역량이 성장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외봉사단원 모집 시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들을 통해 모집을 하면 보다 경험이 축적된 양질의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들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 실무자/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하여: 기본 철학을 배우는 해외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 연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소속 활동가, 관련 실무자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라오스의 푸딩댄 청소년센터에서 실무 역량 강화 연수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동 연수사업에 참여한 어떤 실무자는 연수활동 종료 후 동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 사업 운영 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철학을 배우고 왔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동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란 무엇이며, 지역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지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 또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울러 동 연수기회를 통해 한국의 발달된 수준을 현지민들과 나누러 갔다가 오히려 공동체가 살아 있는 오래된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라오스를 접하게 됨에 따라 연수 참여를 통해 진정한 변화와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몸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동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연수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라오스 청년 리더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와 모금 등의 노력으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후배 실무자들의 성장을 돕는 멋진 실무자들로 변화·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준의 연수라면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안내를 할 수 있는 활동가들과 실무자들의 올바른 철학, 관점,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KOICA에서 국내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가 및 실무자 연수도 사업의 한 부분으로 기획한다면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분야 발전에 있어 큰 변화와 반향을 일으키리라 본다. 활동가 및 실무자들 자체의 역량 강화와 변화는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수준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센터, 기업들이 해외봉사활동을 기획·운영하는데 있어서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면 해외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다르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 (program)

가. 현지 사람들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은 아직 공동체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바람이 불어 외부와의 소통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는 등 우리가 1960, 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겪고 있다. 공동체가 쉽게 파괴되거나 해체되지 않도록 현지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현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는 무엇이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기술과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장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또한 라오스 지역의 푸딘댕 청소년센터 사례와 같이 운영되거나, 네팔 지역의 네코스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가령, 은퇴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도움을 주는 데에 있어서 현지인 중심의 사고와 함께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관점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봉사활동단체 및 센터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유능한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도구 – 현장의 욕구와 언어를 반영한 영향력측정지표, 스토리텔링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KOICA 역시도 WFK 사업 활동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영향력 지표 혹은 평가지표가 현장의 언어와 다를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지표를 활용하기 어렵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전문가나 실무자 중심으로만 지표가 개발될 시에는 자칫하면 현장과 유리되어 실제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현장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 자신이 스스로와 자신의 조직, 자신이 참여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적 영향력 지표를 개발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용어를 어려워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시 질문 하나 하나를 수정하여 쉽게 다듬어간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표(indicator)에 의한 평가'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변화스토리로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몇 개의 구조화된 질문들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인터뷰하여 변화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다. 가령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사진과 간단한 스토리 중심의 자원봉사 내용을 '임팩트스토리[17]'라는 이름으로 엮어 온오프라인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도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홍보하는 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17) '임팩트스토리' 관련 게시글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eochov.or.kr/) (접속일: 2017.4.16)

3. 인프라 및 정책 (Infrastructure & Policy)

가. 현지의 자원봉사인프라 지원: 민간자원봉사역량 강화의 과제

자원봉사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현지인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홍보하고, 스스로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 변화를 주도해나가도록 돕는 자원봉사 인프라 지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민간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하우와 함께 한국에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한 베트남 자원봉사센터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베트남 지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과정에서 한국의 제도화를 부러워했지만, 우리나라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문제점들도 공유했다. 한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원봉사의 민간성과 자율성, 독립성이 법 정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자원봉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적인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제도화가 된 탓에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음을 공유하였다.

태국의 경우 쓰나미 대지진 이후 정부와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한 Volunteer Spirit Network라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급격한 제도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달리, 태국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지만 위에서부터의 급격한 제도화보다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겠다는 기본 방향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 자원봉사단체/센터 실무 경험자를 인프라 지원 봉사단원으로 파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놀랄 만큼 성장을 이루어 크고 작은 지역문제 해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설 수 있었던 우리의 경험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우리의 자원봉사센터와 조직 운영 노하우, 정부와 자원봉사센터의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경험 등은 저개발국의 자원봉사 인프라 설립 지원 시 가치 있는 경험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설립 지원을 위해서는 KOICA WFK 단원 선발 시, 자원봉사센터와 단체에서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간 머물기는

어렵겠지만 인프라 지원 대상 국가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현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하며 밀착하면 인프라 설립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시행착오가 주는 함의: 자원봉사의 가치 훼손 문제, 해외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선순환으로!

한국의 자원봉사는 그동안 자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적지 않은 흐름으로 자리 잡아 왔다. 시간실적에 매이지 않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연인원 120만 명)와 세월호 사건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달려가 진심으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지나친 제도화와 시간 수 적립이라는 행정 편의적 유인책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문화가 오히려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며,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 자원봉사의 고유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개별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을 일일이 관리해주어 과도한 행정력이 투여되고, 자원봉사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자원봉사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봉사활동과의 변혁적 파트너십(transformative partnership)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해외에서 아직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있고, 자원봉사가 아직 발달하진 않았지만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 가치를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사례가 국내에 공유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한 국가별 사례는 태국, 라오스 등을 비롯해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장차 해외봉사활동을 나가게 될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경력이나 시간관리 개념으로 경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해외봉사활동으로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원봉사와 대학생 자원봉사를 안내하는 자원봉사 관계자, 실무자, 지도자들에게 해외의 사례를 적극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면 이 성과는 해외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행착오로부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나친 제도화의 한계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제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 출발단계인 저개발국가에서 공동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KOICA의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나름대로 엄청난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물량공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아 보인다.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투자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 영향력이 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시혜적인 개발보다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조직화하여 문제 해결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람에 투자하여 시민사회 형성에 도움이 주는 것이 KOICA의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이란희·최병대·이원규·우영화·오영수. 2013.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연구』. 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희선·이원규·이명신·김난희·이은구·김민주. 2016. 『한국자원봉사의 해 국민운동을 위한 10대 어젠다(Agenda) 모델사례 발굴 및 보급』. 서울: 행정자치부.

주성수. 2005. 『자원봉사: 이론 제도 정책』.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이강현. 2014.『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행정자치부

주성수· 김현옥· 이금룡·정희선·송정안·천희·이란희. 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최종연구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의해 사무국. 2016.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가이드북'. 서울: 한국자원봉사의해사무국.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4. 『2014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글로벌협력사업 결과보고서(한·베트남 국제개발협력사업)』. 서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행정자치부. 2016. 『201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집』. 서울: 행정자치부.

Clary, Gil, Mark Snyder, Robert D. Ridge, John Copeland, Arthur A. Stukas, Julie Haugen and Peter Miene.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74(6):1516-30.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https://1365.go.kr (접속일: 2017.4.16)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ucss.or.kr/page/profile (접속일: 2017.4.1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http://www.vms.or.kr/index.jsp (접속일: 2017.4.15)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volunteer.seoul.go.kr/news/notice/view/986?keyword=&searchField=&page=8 (접속일: 2017.4.5)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블로그: http://svc1365.tistory.com/969 (접속일: 2017.4.16)

서초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seochov.or.kr/ (접속일: 2017.4.16)

여성가족부 두볼(Dovol) 홈페이지: http://dovol.youth.go.kr (접속일: 2017.4.15)

자원봉사이음 홈페이지: https://www.volunteereum.org/ethics)(접속일: 2017.4.14)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사이트: http://www.index.go.kr(접속일: 2017.4.1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블로그: http://vc1365.tistory.com/653)(접속일: 2017.4.1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vkorea.or.kr(접속일: 2017.4.14)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홈페이지: http://www.kfvc.or.kr/(접속일: 2017.4.14)
UNV 홈페이지: https://www.unv.org/about-unv(접속일: 2017.4.15)
ODA WATCH 뉴스레터 83호(2013.11.5.): 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35&document_srl=38421(접속일: 2017.4.15)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봉사 성과 측정 동향 분석

구영은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최경화 (KOICA 월드프렌즈총괄실 전문관)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소개
Ⅱ. 해외봉사 성과 측정 논의
1. 배경과 흐름
2. 현황 분석
Ⅲ. 이론적 접근
1. 비용효과성 접근
2. 모니터링과 평가 이론
3. 논리모형
4. 논리모형의 적용
5. 삼각측량법
Ⅳ. SDGs 달성을 위한 측정
1. 해외봉사단의 SDGs 기여 측정 현황
2. mapping 모델
Ⅴ. 도전과제
Ⅵ. 종합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요 약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세부 목표와 지표가 합의되고, 봉사활동이 SDGs 이행에 강력하고 범분야적인 수단임이 강조된 현 시점에서, 해외봉사를 통한 SDGs 달성 성과의 증명은 점점 중요해질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 해외봉사 파견기관 및 관련 학계는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봉사 성과 증명의 방법론에 있어서 전 세계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바로 전세계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목적, 형태, 규모, 예산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각기 다른 해외봉사 파견조직이 수행한 성과 평가 연구는 그 목적, 성과 지표, 보고 방법, 평가의 품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별, 프로그램별로 체계적인 성과 비교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봉사 성과 측정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WFK 사업에 적용 가능한 성과 평가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에 대한 동향을 해외 최신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며,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WFK 사업을 SDGs와 연계한 성과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 성과 측정, SDGs, 논리모형

I. 연구 배경 및 소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1951년 호주 멜버른 대학교 자원봉사 대학원생 제도(Volunteer Graduate Scheme) 개설과 호주 해외봉사단(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이하 AVI) 창설을 기점으로, 1958년 영국 해외봉사단(Voluntary Service Overseas, 이하 VSO), 1961년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1970년 국제연합 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이하 UNV) 설립 등을 통해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한국도 1991년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설립과 동시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KOICA가 담당하는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협력 사업으로, 연평균 1,600명 내외의 단원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농어촌 개발,

환경 분야 관련 50여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다[1].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의 초점은 시작부터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특히 과거 1950-60년대까지는 그 목적이 식민주의에 근거한 북-남 기술이전에 치중해있던 반면, 1960-70년대부터는 지역·풀뿌리(grassroots) 관점과 사람중심 접근 강화(예: bottom-up 접근, 남남 봉사활동 등장), 1980-90년대에는 시장중심 접근 강화, 2000년대부터는 시민인권의식 강화,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봉사의 성과·데이터 중심 접근 강화와 함께 볼런투어리즘(volontourism) 및 기업 봉사 등 새로운 참여 형태의 봉사활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Franco·Shahrokh, 2015:20-22). 이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해외봉사의 영향[2]과 성과 측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은 WFK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OICA가 전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동 연구의 초점이 되겠다.

특히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합의되고, 봉사활동이 SDGs 이행에 "강력하고 범분야적인 수단(UN, 2014)"임이 강조된 현 시점에서, 해외봉사를 통한 SDGs 달성 성과의 증명은 점점 중요해질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 세계 해외봉사 파견기관 및 관련 학계는 해외봉사의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이하 M&E) 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관련 연구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내연구[3]에서는 해외봉사 M&E 관련 국외 최신 문헌 검토 및 SDGs와 WFK 간의 성과 연계 등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WFK 중장기 전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에 국내 연구들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해외봉사 성과 증명의 방법론에 있어서 전 세계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바로 전 세계 다양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목적, 형태, 규모, 예산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각기 다른 해외봉사 파견조직이 수행한 성과 평가 연구를 보면 그 목적, 성과의 지표, 보고 방법, 평가의 품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별, 프로그램별, 국가별로 체계적인 성과 비교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봉사 성과 측정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와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WFK 사업에 적용 가능한 질 높은 성과 평가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 월드프렌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worldfriendskorea.or.kr/ view/intro.program.do) (접속일: 2016.11.25.)
2) 영향력(impact)이란 여러 개의 결과가 성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이익 및 성과를 말하며, MDGs 및 SDGs가 그 예이다(Morra-Imas·Morra·Rist, 2009:138).
3) 예를 들어 이태주 외(2016), 주성수 외(2016), 홍문숙 외(2016) 연구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앞선 1차 연구에서는 수원국 중심의 해외봉사단 성과 요소를 검토하고 재분류함으로써 WFK 사업의 수원국 중심 성과요소 수립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구영은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성과 측정 접근법에 대한 동향을 해외 최신문헌 검토를 통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WFK 사업을 SDGs와 연계한 성과 평가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해외봉사 성과 측정 논의

1. 배경과 흐름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그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변화를 거쳤다. 우선 1950년대 해외봉사단 초기에는 성과 평가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단순한 투입물(봉사단 인원, 국가 등)에 대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였으나 산출물과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추적하지 않았다. 또 봉사단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명확히 제시를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방식은 봉사단원 스스로가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와 함께 M&E는 최소한으로만 실시되었다(Lough, 2015:18).

1960년대에 해외봉사활동이 성행하기 시작할 당시 경제성장 모델이 간단했고 서비스 전달을 위한 수요도 방대하였으므로 단순한 투입물 측정으로도 모니터링이 충분했다. 또한 봉사 사업의 모델도 간단하여 파견기간 2년, 북→남 방향 등으로 그 형태가 일정했으며, 측정도 봉사단원 파견규모와 봉사단원 중심(중도 포기자 인원 등)으로 간단했다. 그러나 봉사단 파견단체가 진화할수록 이러한 단순한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Allum, 2016).

봉사단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혜자 인원 추적과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에는 미국 평화봉사단 정도만 추적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 결과나 성과는 봉사단원 개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괄적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했다(Lough, 2015:19). 하지만 개발 협력 사업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결과 중심 문화 역시 해외봉사단 전반에 걸쳐 퍼지기 시작하였고, 기록의 보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 복잡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Lough, 2015:19). 특히 해외봉사단의 다양성 도래와 봉사활동의 가치 증명에 대한 압박 등은 기존의 단순한 방식의 측정 방법에 점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Allum, 2016).

1990년대 말부터 해외 원조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서 결과 중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으면서, 봉사단이 개발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봉사단의 영향,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비구속성 등의 증명에도 관심과 탐구가 시작되었다(Lough, 2015:18).

2000년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봉사단의 기여를 측정 및 증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과거 후진적 측정 접근법(예: 단순한 파견 인원 확장 및 취업률 증가 등을 강조하는 투입물 위주)에 대한 공여국의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학계와 실무자 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개도국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Allum, 2016). 측정의 관심사는 과거 단순한 투입물이었던 것에서 산출물(예: 봉사단원 중심의 성과 등의 output)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다시 보다 고차원적인 결과물(예: 봉사단원 및 개도국 지역사회의 변화 등을 포함한 outcome)로 발전했다. 또한 정확히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봉사 측정을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해외봉사 성과 평가 접근, 이론, 모델 또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해외봉사 성과 측정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최근 영국 등지에서 청년 중심의 봉사 사업이 확장되면서 장기적 영향보다는 또 다시 투입물 위주의 성과 측정(예: 파견 인원 확장, 취업 확장 등)을 강조하는 기조로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봉사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을 위한 봉사(Volunteering for Development, 이하 V4D)'의 가치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갖고, 측정에 관한 이론과 모델에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Allum, 2016).

최근 Post-2015 개발체제의 구축과 함께 전 세계 봉사단 파견기관은 SDGs 로의 기여를 위한 성과 측정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Lough, 2015:19). 특히 봉사활동이 개발에 주는 성과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의 단순하며 임시변통적인 측정 접근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접근, 봉사활동의 가치(예: 경제적 가치 등), SDGs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성과 관련 증거와 증거의 품질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2. 현황 분석

최근 해외봉사의 M&E와 관련하여 Franco and Shahrokh(2012), Haddock and Devereux (2015), Lough, Thomas and Asbill(2015) 등 다수 연구팀이 조사한 바 있다(<표 1> 참고).

〈표 1〉 주요 선행 연구 요약

연구 수행자	내용	주요 주제
Franco · Shahrokh (2012)	봉사의 가치(성과) 측정 및 M&E 관련 이론적 고찰과 최근의 연구 동향 분석	• 영향 측정 이론 • 측정을 위한 최근 노력 • M&E의 목적, 비판, 교훈
Haddock · Devereux (2015)	해외봉사활동의 성과 측정 현황을 분석하고 SDGs 달성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과 측정법(mapping) 등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	• 측정 주요 기준 및 측정 현황 • SDGs 달성을 위한 봉사의 기여측정 방안
Lough · Thomas · Asbill (2015)	회색문헌(grey literature) 연구를 통해 해외봉사의 성과를 중재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해외봉사의 M&E에 있어서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지적	• 해외봉사 성과 중재 요소 • 해외봉사 성과 연구의 문제점 • M&E의 문제점 & 도전과제

출처: 저자 구성

Lough et al.(2015)는 8개의 해외봉사 파견기관으로부터 수행된 124개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회색문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외봉사 사업 M&E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4] Lough 외(2015)가 조사한 대다수의 보고서는 현재 해외봉사 사업에 M&E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으며, 따라서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해 단정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의 보고서는 해외봉사 사업의 내부적 운영 사이클만 평가할 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나 장기적인 영향은 측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몇 개의 보고서들은 특정 산출물의 목록을 단순히 제시하기만 할 뿐, 산출물에서 더 나아간 영향 수준의 성과는 논의하지 않았다(Lough et al., 2015:18).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M&E 체계 부족의 원인을 모니터링 과정의 불충분성, 평가 도구의 약점, 데이터 수집의 비일관성, 평가 설계의 품질 결여, 평가 프로세스의 기본적 결함 등이라 지적하였다(Lough et al., 2015:18). 예를 들어, 해외봉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anecdotal) 평가 데이터 혹은 주관적인 평가 자료(예: 설문지에 자가 응답)에 의존하거나, 해외봉사 사업의 영향이 발견되더라도 영향을 보고하는 방법의 정확성이 부재하다는 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는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공유되거나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Lough et al., 2015:18).

4) 회색문헌 연구는 출판되지 않았거나 널리 배포되지 않은 연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중복 연구를 피하고, 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솔직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 Lough et al.(2015)의 회색문헌 연구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독일의 사례가 포함됐으며, KOICA 사례는 제외되었다.

이처럼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일관적 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Haddock and Devereux(2015)는 해외봉사활동의 성과 보고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 2>와 같이 몇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표 2〉 해외봉사 사업 성과 평가(데이터 수집, 측정, 보고)의 주요 기준

기준	내용
적절성	수집된 정보는 해외봉사 사업의 세부적 맥락, 활동, 정책목표를 반영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정보는 과감히 수집을 지양해야 함.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지역사회와 봉사단원에게 유용해야 함.
현실적	다양한 수준에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봉사활동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 뿐 아니라 측정에 동원되는 직원과 봉사단원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함.
효율적	데이터와 관련 정보는 가급적 해외봉사 파견기관의 기존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틀 안에서 구축되어야 함.
비교 가능	데이터와 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기관 간 그리고 국가 간 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야 함.
신뢰적, 객관적	데이터와 정보는 누가 수집했는지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도록 설계되어야 함. 즉, 정보가 객관적이고 시험 가능해야 하며, 다른 출처부터 삼각측량(triangulation)을 통해 검증되어야 함.

출처: Haddock and Devereux (2015) p.26 재구성

<표 2>에 의하면 데이터 수집, 측정, 보고의 적절성, 현실성, 효율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어야만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 평가가 가능한 것인데, WFK 사업의 경우 현행 적용되고 있는 주요 평가 방법인 1) 봉사단원 활동보고서, 2) 단원 다면평가, 3) 현지 평가회의, 4) 기관장 회의, 5) WFK 종합 만족도조사(예: KOICA, 2016a) 중에서 위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평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단원 활동보고서는 봉사단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자가 평가를 하는 형식이고, WFK 종합 만족도조사는 사업에 대한 봉사단원과 협력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자가 평가 설문)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성과를 측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단원 다면평가, 현지 평가회의, 기관장 회의는 질적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WFK 사업은 이러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 WFK 성과관리 지표개발[5] 및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6]

5) 자세한 내용은 홍문숙 외(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6) 미국의 평화봉사단, 영국의 ICS 및 VSO, 호주 AVID, 일본 JOCV 등도 성과 평가 모형, 방법론, 가치사슬 등의 확립을 추진 중이며, 타국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한편 Franco and Shahrokh(2012)와 Haddock and Devereux(2015)는 해외봉사 M&E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Franco and Shahrokh(2012:28)는 해외봉사 사업 M&E 수행을 통해 사업의 영향 평가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운영방법 향상, 사업 전략의 조율, 이해관계자들의 주인의식(ownership) 향상, 프로그램 관계자의 책임성을 다룰 수 있도록 역량 구축, 학습의 공유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더불어 해외봉사 M&E 관련 지식공유와 학습을 통해 1) 다수 이해관계자의 책임감 독려, 2) 프로그램 전달 향상, 3) 프로그램 전략의 세밀화, 4) 사회적 자본 강화 및 개발, 5) 글로벌 공공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외봉사의 M&E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포괄과 학습, 인센티브를 통해 가난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Franco·Shahrokh, 2012:28). 이는 M&E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학습이 사업 수행에 못지않게 개도국 지역사회 개발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해외봉사 사업 성과 측정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증가는 성과 측정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봉사 사업의 비용적 가치 평가 접근, M&E 접근, 해외봉사 사업의 논리모형 접근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Ⅲ. 이론적 접근

1. 비용효과성 접근

봉사활동 평가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선시하는 점 중 하나는 봉사단원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다. 이는 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를 측정함으로써 봉사 사업이 개발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1) 인구 샘플(population sample), 2) 샘플 중 봉사자 인원, 그리고 3) 봉사자 1인당 봉사활동에 종사한 시간이다. 샘플 중 봉사자의 비율에 총 성인 인구를 고려함으로써 총 봉사자 인원수를 계산하고, 이 수를 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평균 시간에 곱한다.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임한 총 시간을 그림자임금(shadow wage) 혹은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에 곱하면, 봉사활동시간의 금전적 값이 나온다(Franco·Shahrokh, 2012:24).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풀타임 노동의 비중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여러 국가에서 일반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0년 미국의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약 6천만 명의 경제적 가치는 자원봉사 시간(81억 시간)에 시간당 21.36 USD를 곱해서 약 1,690억 USD로 추산되었다(주성수 외, 2012:25). 한국에서도 2011년 자원봉사자 833만 명(연평균 100.4시간)의 활동을 시간당

평균임금(당시 15,933원)으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국내총생산의 1.13%)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주성수 외, 2012:25). 이 수치는 몽고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자원봉사의 대가 없는 노동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7] WFK 봉사단원의 금전적 가치는 지금까지 추론된 적은 없으나, 활동기간이 1-2년 이상(장기봉사단)인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가치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즉, 2015년을 기준으로 총 922명의 활동인원(KOICA, 2016d:7)과 활동지원금(연간 1인당 약 1만 5천 USD로 가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2015년 약 13.8백만 USD, 한화 기준 약 1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무상노동의 형태로 개도국에 기부한 것으로 계산된다. 중기봉사단과 단기봉사단의 데이터도 고려하여 합산한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크게 책정될 것이다.

봉사활동의 성과 평가로 비용효과성을 환산하는 것은 그 가치를 간단한 수치로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점이 지나치게 좁고 단면적이라 비추어질 수 있다. 예컨대 봉사활동의 경제적 기여는 봉사활동이 사회에 주는 많은 혜택 중 극히 일부만을 대표하는 것이다(UNV, 2011b:13). 봉사활동의 금전적 혜택을 강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또한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비대가성 희생정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비용적 가치 이외에도 여러 방면을 아울러 중장기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E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모니터링과 평가 이론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프로그램, 프로젝트, 정책 등의 진행 상황이나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Morra-Imas·Morra·Rist, 2009:34). 평가(evaluation)란 프로그램, 프로젝트, 정책 등의 가치에 대해 확인 및 측정하는 활동이다(Morra-Imas et al., 2009:24). M&E는 모두 성과를 측정하고 검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모니터링은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시행단계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내부적 활동인 반면 평가는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를 기반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Morra-Imas et al., 2009:35).

M&E 접근으로 해외봉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앞에서 알아본 해외봉사의 금전적 가치

7) 동 수치는 무급 자원봉사에 한정된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해외봉사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봉사는 자원봉사와는 달리 활동비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대가가 따르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3조1항)"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산에 따른 지나친 단순함과 단면성을 보완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봉사의 M&E 연구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봉사 사업 M&E 수행의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M&E로의 노력을 위한 장려 부족, 그리고 M&E가 비교적 개방적이지 않은 분야라는 점은 M&E 수행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다(Franco·Shahrokh, 2012:24). 그리고 인과관계(causality)와 관련한 문제도 있는데, 즉, M&E를 통해 단원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됨을 발견하더라도, 이러한 개선이 봉사 사업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도 많은 학계와 이해관계자들은 M&E의 방법론적 견고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인과관계에 대한 전쟁(the causal war)'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M&E의 주요 접근법에는 <표 3>과 같이 큰 차이가 있거나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표 3〉 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M&E) 관련 주요 입장

접근법	설명
실험적 평가 (Experimental)	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가 보다 '과학적(scientific)'인 방법이라는 가정이 널리 퍼져있으며, 유럽·미국 등지의 정책평가 커뮤니티 내에서 실험적 접근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임. 특히 무작위대조연구(Randomised Controlled Trials, RCT)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가장 견고한 과학적 접근을 제공해줌. 무작위대조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반 사실적·사후 가정(counterfactual) 디자인이 구상되어야 함.
변화이론 (Theories of Change)	프로그램이 얼마나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론임. 결과의 어느 정도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인지 평가가 가능토록 M&E 체계 구상을 도와줌. 프로그램이 성공·실패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에 비중을 둠. 변화이론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혁신적 도구이자,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청사진을 보여줌. 변화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논리모형의 논리와 타당성,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는지 여부, 각 요소의 정의, 프로젝트가 명시한 목적의 현실적 달성 가능 여부, 요소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일관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
현실적 평가 (Realistic Evaluation)	프로그램은 대체로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특성, 지각, 태도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역동성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을 구체화시키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정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현실적 평가의 목표는 프로그램 구조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개인/그룹에게 어떻게 성과를 주는지를 탐구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식공유/향상에 비중을 두어 평가계획을 설계하고 현재 혹은 향후 프로그램의 디자인을 조정함. 때문에 현실적 평가는 체계적 학습(systematic learning)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음.

출처: Franco and Shahrokh (2012) p.27 및 Morra-Imas et al.(2009)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위에서 명시한 접근법 중 실험적 접근(예: 무작위대조연구(Randomis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이 인과관계 및 영향을 증명해주는 가장 신뢰도 높고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험적 접근이나 RCT 방법을 해외봉사 사업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해외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사업의 다양한 결과물을 비교 가능한 항목과 수치로 계량화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Franco·Shahrokh, 2012:24). 예컨대, WFK 사업의 경우, 6개의 시행기관이 특징, 활동기간, 주력 활동 분야 등 성격이 상이한 8개의 각기 다른 WF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WFK 사업 결과를 통합적인 계량화 하는 것이 지속적인 난관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 결과의 비교와 계량화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UNV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타국 해외봉사단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해외봉사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봉사 서비스가 필요한 개도국 주민을 '수혜집단' vs.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분리하여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활동 환경을 최대한 통제하여 실험기간 동안 수혜자들이 봉사활동 이외에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외부요인'을 통제함으로써, 해외봉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견고한 증명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렇듯 견고한 실험을 통하여 해외봉사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거나 윤리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조직들은 변화이론(theories of change)을 보다 실용적이며 획기적인 옵션으로 여기고 있다. 변화이론은 특정 개발 사업이 어떻게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전형적인 변화이론 모형은 5가지 요소(투입물, 활동, 산출물, 결과, 영향)로 구성된다. 변화이론의 주요 특징은 RCT와는 달리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방향의 전환과 학습에 있어서 융통성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Franco·Shahrokh, 2012:27).

한편, 몇몇의 기관 및 연구진들은 현실적 평가(Realistic Evaluation)를 지향하며, 각각의 프로젝트를 고유적인(unique)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고유한 사회적 변화가 프로젝트의 결과에 결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만일 타 지역이나 인구를 대상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성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따른다(Franco·Shahrokh, 2012:27).

상기 3가지의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Franco and Shahrokh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봉사의 가치(Valuing Volunteering)' 연구 프로젝트는 봉사활동 결과의 고유성을 현지 지역사회의 문맥과 연계하고, 연구자가 현지에서 갖는 위치도 고려하면서 봉사활동의 가치를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동 연구는 현실적 평가 접근과는 달리 책임성과 권한(accountability and

power)에 관한 이슈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 관계(power relations)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벌어지는 역동성을 분석함으로써, 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해 문맥을 고려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참고: Burns et al., 2015).

상기 M&E 접근법 중 영국 VSO는 현실적 평가와 가치연구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UNV는 변화이론에 관한 연구와 이의 적용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WFK 사업의 성과모형 수립에 있어서도 변화이론(논리모형)의 적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문숙 외(2016)의 WFK 성과관리 지표개발 연구 및 이태주 외(2016)의 WFK 종합평가 보고서에서는 변화이론을 변형한 형태인 논리모형을 적용한 바 있다.

3. 논리모형

UNV (2011a:11) 및 Haddock and Devereux(2015:38)는 봉사의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반적 논리모형(general logical framework)[8]의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논리모형은 변화이론 모델을 변형한 형태로, 활동, 성과, 목적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를 간결하며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표 또는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도식화하여 보여준다(<표 4> 참고).

〈표 4〉 논리모형이 포함하는 내용

내용	설명
목표와 목적	프로그램의 종합적 목표(overall goal)부터 세부 목적(specific goals)까지 무엇을 달성해야 할 것인지를 명시
질문과 지표	진전도(progress)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할 성과 관련 질문과 지표 명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지표가 어떻게 모니터링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될 지를 명시
가정(assumption)	논리모형에 명시된 세부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명시
위험요소	목표 달성과 관련한 위험요소(risk)를 명시

출처: UNV (2011a) p.11 정리 및 재구성

논리모형은 개발활동을 계획 및 평가하는 세계 각 기관이 조직 수준, 프로그램 수준,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해외봉사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에 유용한 프레임

8) 로그프레임(logical framework/logframe)이라고도 일컫는다.

워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타 해외봉사 관련 기관들에서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WFK 사업의 경우에도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2016년 WFK 사업 통합 성과모형(안)이 고안된 바 있으며(홍문숙 외, 2016), 동 모형은 현재 실질적 적용 여부를 판단키 위해 적정성 검증, 모형 조율 및 지표 세부화 작업 중에 있다.

이렇듯 보편화되고 있는 논리모형 접근에는 <표 5>와 같이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따른다.

〈표 5〉 논리모형 분석 접근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정보 공유 : 프로젝트/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관련 직원, 공여자, 수혜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시각적으로 요약하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됨. • 영향과 원인 설명 : 개별적 봉사활동을 장기적 영향(impact)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 원인과 효과(cause and effect)를 보여줄 수 있음. • 일관된 접근과 용어 사용 관련 : 논리모형 분석을 통하여 일관된 접근법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넓은 차원의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봉사활동의 위치를 찾도록 해주며, 또한 파트너/공여자가 함께 봉사활동의 장기적 기여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도와줌.
단점	• 용어의 전문성 : 논리모형에는 전문용어가 사용되며, 때문에 이용자에게 친숙하지 않음. • 단순성 : 개개인의 경험을 논리모형 분석에서 사용하는 박스 몇 개로 말끔하게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함. • 예측 가능성 가정 : 모든 프로젝트에서 만일의 사태(contingencies)가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봉사 활동에서부터, 투입, 목적, 목표까지 예측 가능하고 일직선적이며 논리적으로 프로세스가 전개된다고 가정함. • 융통성과 현실 문맥 고려 부족 : 프로젝트 디자인을 융통성 없고 통제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디자인을 현지의 현실 및 상황의 변화와 동떨어지도록 함. • 수혜자 포괄성 부족 : 논리모형 수립 과정에 극소수의 경우에만 수혜자를 포함함. • 좁은 시야 : 평가자가 논리모형을 수립할 때 세부내용에 초점을 맞추느라 큰 그림을 간과할 수 있음. • 디자인 부족: 논리모형에는 기초선 데이터가 강조되지 않음.

출처: UNV (2011a) p.11 및 Morra-Imas et al. (2009) p.205 정리 및 재구성

논리모형은 봉사활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향 수준까지 아우르는 평가 정보를 명시할 수는 있지만,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자체로는 영향을 생성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UNV, 2011a:11). 또한 논리모형은 평가 수행을 위한 도구이지 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Morra-Imas et al., 2009: 205). 때문에 논리모형 분석은 봉사활동이 어떻게 단기적, 장기적 개발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만 유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실질적 적용을 통한 성과 달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논리모형의 적용

앞서 명시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논리모형을 풀뿌리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봉사단원과 지역사회 리더, 시민사회 조직이 함께 협력하여(예: 참여적 워크숍 개최 등) 봉사활동 사업계획에 대한 공동 비전을 마련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UNV, 2011a:11). 즉, 논리모형 분석의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UNV의 경우, 봉사활동 평가에 있어서 논리모형 분석 접근에 기반을 둔 참여적 평가방법을 강조하고 있다(<표 6> 참고).

〈표 6〉 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목적 및 특징	• 개요 : 이해관계자를 평가질문 수립과 자료 수집 · 분석, 보고서 작성 · 검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평가의 기획 · 수행에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임. • 목적 : 참여 자체가 목표이자 성과 지표중 하나로 인식되며, 명시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됨 • 특징 : 기존 평가가 공여국 · 기관 중심, 책임성과 판단에 초점, 사전에 확정된 설계, 외부인의 평가 수행이 특징이었다면, 참여적 평가는 참여자 중심, 학습에 초점, 유연한 설계, 외부인의 조력자 역할 수행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기본 원칙	•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질문 선택, 데이터 분석, 정책 결정 등의 절차에 프로젝트 참가자를 참여시킴. 예를 들어, 논의와 합의를 통해 데이터 수집 지침을 수립함. • 참가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무성을 공유함. 외부 조력자(facilitators)는 필요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 • 참가자들이 중요시하는 방법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진행되도록 함. • 참가자들이 협력하여 그룹 내 조화를 증진함. • 평가의 모든 측면을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유의미하도록 함.

출처: Morra-Imas et al.(2009) p.232-4 요약 및 재구성

참여적 연구는 봉사단원이 아닌 수혜자 및 지역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하는 성과 데이터 수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때 프로그램 평가전문가는 정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 지역사회, 프로그램 수혜자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설계, 이행, 성과 측정에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제안, 지역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때문에 참여적 연구는 봉사 프로그램이 현지 지역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점에 대하여 다각도의 통찰을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Lough et al., 2015:20).

예컨대 UNV는 Forum(International Forum for Volunteering in Development)[9]과 공동으로 참여적 워크숍(participatory workshop)을 실시하여, 해외봉사의 기여를 평가하는 참여적 방법에 대하여 봉사단원과 관리자들을 위한 핸드북·을 제작한 바 있다.[10] 동 참여적

9) 해외봉사단 파견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국제봉사협력기구(International Volunteering Cooperation Organizations, IVCO) 연례총회 개최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전 세계 약 30개의 해외봉사단 파견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KOICA는 2013년 정회원으로 가입, IVCO 총회(2017.10.22.-10.25)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 실시와 핸드북 제작을 위해서 12개국의 국내외 봉사단 조직을 포함하여 각종 수혜자 및 파트너기관, 정부, 해외봉사단 파견기관 관계자들이 파일럿 연구에 대거 참여하는 노력을 하였다. 아래 '논리모형' 표는 파일럿 연구에 참여한 봉사단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봉사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UNV, 2011a:11).

〈표 7〉 개발성과 달성을 위한 봉사활동 논리모형

수준(level)	설명	목적 (objectives) 예시
목표 (goal)	통제가 불가능한 고차원적인 영향력	• 특정 분야(보건, 교육 등) 혹은 범분야(성 평등, 거버넌스 등)에서 글로벌 개발목표에 기여
의도 (purpose)	국별 프로그램으로의 장기적 기여, 즉 봉사활동의 누적된 영향력	• 특정분야(보건, 교육 등) 혹은 범분야(성 평등, 거버넌스 등)에서 국가의 개발목표에 기여
결과 (outcomes)	파트너십을 통해 생기는 보다 넓은 변화(행동변화)	변화의 예시 • 사람들의 삶에 변화 (예: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 • 젠더 및 권한 관계의 변화 • 태도, 아이디어, 의식, 행동의 변화 • 집단, 지역사회, 조직 및 제도적 변화(예: 실행, 행동, 우선순위, 자원, 체계 등의 변화) • 다양한 범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참여, 커미트먼트, 지원 • 수원기관의 자립성 개발 •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개방적 대화와 신뢰 개발 • 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한 태도 변화 • 여성의 임파워먼트 및 여성의 기여에 관한 인정 • 조직의 강화 • 서비스 전달의 향상 • 새로운 체계 시행(예: 정부 프로그램) • 파일럿 프로젝트의 확장 •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 친빈곤(pro-poor)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분쟁 감소
산출물 (outputs)	단원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 · 구체적인 결과(results) (생산되거나 전달된 물품 · 서비스)	• 교육을 받는 여성/남성/청소년의 수 등 • 시스템의 강화 및 구축 • 파트너십 구축 건수 • 설립된 학교의 수 • 출판된 문서/간행물의 수
활동 (activities)	단원이 하는 행동 (재정 · 인적 자원 등의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한 행동)	• 역량 강화 • 기술자문 • 동원 • 네트워킹 • 옹호 • 연구

출처: Binneydijk (2000) p.20; UNV (2011a) p.11; Haddock and Devereux (2015) p.38에서 재인용

10) UNV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unv.org/news/) (접속일: 2016.11.25.)

위의 논리모형에 의하면, 산출물과 단원의 활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Binneydijk, 2000). 예를 들어, WFK 단원들이 개도국에 기술자문 제공이나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WFK 사업의 성과라고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원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현지에 설립된 학교의 수, 한국어 교육을 받은 개도국 주민의 인원, 단원이 발간한 간행물 출판 건수 등의 산출물도 WFK 사업의 성과로 내세울 수 없다. 간단한 활동과 산출물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삶과 태도, 지역사회의 자립성, 현지 기관의 기술 및 현지 정부의 제도에 나타난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해외봉사 사업으로 인한 진정한 개발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표 8>은 상기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변화, 즉 결과(results/outcomes) 수준의 성과 요소 예시(pool)를 보여준다. 참고로, 아래 명시한 요소들은 봉사단원들이 관찰한 변화를 중심으로 나열한 것이다.

〈표 8〉 측정이 가능한 결과 수준 성과 요소(변화) 예시

이해관계자	변화 측면	요소 예시(pool)
봉사단원	개인적, 사회적 변화	• 범문화적 이해 증진 • 전통적 지식에 대한 가치 인정 • 기술의 개발 • 글로벌 교육에 대한 커미트먼트
수원 기관 (Host organization)	태도 및 접근	• 기술자에게서 관찰되는 태도의 변화 (예: 하향식/top–town 업무 지시가 감소하는 대신, 참여적 접근의 증가)
	조직의 개발	• 업무에 관련된 관행과 문화 변화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사회	자조/자립	•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 계획을 위한 파트너십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 마을 주민이 더 이상 UNV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립에 대해 새로운 태도와 사고방식 도출
	포함 (Inclusion)	• 마을 간 토지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공식적 역할이 증가
지역 NGO	기술	• 역량 강화로 인해서 여성 집단의 프로젝트 계획 기술 향상
지역정부	관계	• 시민사회와 국회의원(elected officials) 간의 신뢰도와 인정 증가
민간부문	민–관 파트너십	• 마을 학교를 위해 컴퓨터 기술 훈련 제공에 대한 커미트먼트 증가
	책임과 우선순위	•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물 가격을 저가로 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이 보건교육을 홍보
국가의 정부	태도, 우선순위, 제도적 개발	• 시민사회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환경 조성(법적 프레임워크 등 이용) • 국가적/지역적 봉사활동이 개발을 위한 수단(means)이라는 점

이해관계자	변화 측면	요소 예시(pool)
		을 인정 • 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정 및 이를 응용 • 지역 봉사단원의 니즈와 역량 조사 • 지역의 보건 이니셔티브를 향한 여성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인정 • 국가 봉사활동 관련 조직 생성
국제적 파트너기구	태도 및 접근	•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에 주류화(mainstreaming) • 개발에 있어서 봉사활동의 특유 가치(added value)에 대한 인식 제고
공여국/ 공여기관	커미트먼트	•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및 지원 증가
현지의 대중	관계, 의식, 커미트먼트	•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증가 • 더 넓은 세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 증가

출처: UNV (2011a) p.12 저자가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측정 가능한 변화 및 결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보면, '커미트먼트', '이해 증진', '문화 변화'와 같은, 간단한 수치로는 측정하기 쉽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또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해외봉사는 다양한 인적, 자본적, 관계적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messy) 성격의 사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위의 표가 명시하는 변화가 봉사단원들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 견고히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WFK 봉사단 파견으로 인해 개도국 수원기관의 관행과 문화가 업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WFK 봉사단원의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수원기관이 동시에 직원들에게 별도로 업무향상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결과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해석할 때는 봉사단원의 활동뿐 아니라 수원기관과 현지 주민 측의 문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UNV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UNV, 2011a:13).

5. 삼각측량법

삼각측량법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수행자는 평가 결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삼각측량법을 활용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과를 입증하는 정보를 수집할수록 증거가 보다 확고해진다(Morra-Imas et al., 2009:355). 삼각측량법은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보와 조사 결과를 대조검토(cross-check) 하는 프로세스이자, 평가 분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맥과 정보의 출처를 고려한

다각적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측정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보다 잘 보장하며, 해외봉사 M&E에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훈 도출을 가능케 해준다(UNV, 2011a:13).

삼각측량법을 통해 도출한 조사 결과와 교훈은 전략적 계획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도 공유되어 환류(feedback)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지 환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지어로도 소통되어야 한다(UNV, 2011a:13).

WFK의 경우 성과 평가 시 삼각측량법을 적용하여 1) 수원국 기관 측면, 2) 봉사활동 수혜자(수원국 주민) 측면, 3) 단원 측면 등에서 활동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섹션에서는 해외봉사 사업의 성과 측정 동향을 분석하고 성과 측정의 이론적 접근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구해보았다. 이하 섹션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해외봉사 성과를 SDGs와 연계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도전과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V. SDGs 달성을 위한 측정

1. 해외봉사단의 SDGs 기여 측정 현황

현재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는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41개의 지표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수많은 지표의 이행수단으로 강조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계를 활용한 모니터링이다(UN, 2015). 동시에 UN은 봉사활동이 SDGs 달성을 위한 강력한 범분야적 이행수단(Powerful Cross-cutting Means of Implementation)으로서, SDGs 달성에 필요한 교육, 보건, 농업, 거버넌스, 경제 등의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UNV,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6년 3월 제시된 SDGs 지표에 봉사활동과 봉사활동 측정이나 지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11]은 SDGs 체계 내에서 봉사활동의 가시성 향상에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예컨대, WFK도 현재 파견 인원, 인적정보, 활동영역 등의 간단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수집·기록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중장기 성과지표 수립이나 성과의 SDGs 연계에 대해서

11) UN IAEG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접속일: 2017.1.2.)

는 현재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비단 WFK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해외봉사단도 기존 성과 측정과 글로벌 개발의제 간의 연계에 불분명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봉사활동의 성과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측정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은 많은 해외봉사단 파견기관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봉사단의 글로벌 개발의제 달성도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봉사단체 간의 조율 부족, V4D 및 봉사에 대한 지나치게 다양한 정의와 개념, 봉사활동 관련 데이터의 일관성과 통일성 부족, 기여(contribution)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측정을 위한 자금 부족 및 자금 출처의 모호성 등이라 지적된다(Haddock, 2016).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Haddock(2016)은 국가적으로 통계 기초선(baseline) 자료를 보다 많이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정보・데이터 수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봉사 파견기관이 시행 가능한 조치로는 봉사활동 측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에 주기적으로 문의하고 봉사활동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 국내 봉사 인프라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인프라 관련 정책과 측정을 옹호할 것,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에서 봉사활동 관련 목소리를 강화할 것, 봉사활동 관련단체들이 협업 및 소집할 수 있는 장소(convening space)를 제공할 것,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집에서도 컴퓨터로 쉽게 봉사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토록 지원할 것, 봉사활동 측정 관련 연구와 옹호를 위해 기금을 지원할 것, UN 기관 및 HLPF 등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를 주최할 것, 봉사활동의 기여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2. Mapping 모델

SDGs에 대한 해외봉사활동의 기여를 기록(document)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SDGs와 봉사활동 성과 간 분명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외봉사단 파견기관은 기존 봉사 사업의 목적이 SDGs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Haddock·Devereux(2015)는 해외봉사와 SDGs 간의 mapping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Haddock and Devereux(2015)의 mapping은 상당수의 봉사활동이 SDGs 중 하나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개도국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

는 교육 역량 강화 훈련 활동은 SDG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 제공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표 9> 참고).

〈표 9〉 봉사활동 (교사에게 훈련 제공)과 SDG 4(양질의 교육) 간의 연계

봉사활동 내용	→	SDG 4(양질의 교육)
학교의 교사들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며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이의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기회를 촉진한다.

출처: Haddock and Devereux (2015) p.32의 표를 저자가 재구성

더 나아가, 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소와 활동은 SDGs의 목표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여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다(Haddock·Devereux, 2015:32). 예컨대, 봉사단원의 활동이 워크숍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특수아동 지도교사에게 기술과 자문을 제공할 경우, 교사에 대한 훈련은 교육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여성의 권한 강화(훈련받은 교사들이 여성일 경우), 불평등 완화(교육 소외계층에게 필요 기술을 제공하여 빈곤을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훈련을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가 생성된 경우),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교육부 등의 기관과 협력한 경우)에도 함께 기여하게 된다.

〈표 10〉 봉사활동과 SDGs 간의 연계 Mapping

봉사활동 내용	→	SDGs
워크숍 및 스포츠를 통하여 특수아동 지도교사에게 기술 지원과 자문	→	SDG 1: 빈곤 퇴치 SDG 4: 양질의 교육 SDG 5: 양성 평등 SDG 8: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0: 불평등 완화 SDG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

출처: Haddock and Devereux (2015) p.33의 표를 저자가 재구성

위의 mapping은 다시 아래의 <표 11>와 같이 더욱 세부적인 목표 수준으로 나누어서 mapping할 수 있다.

〈표 11〉 봉사활동과 SDGs 목표 · 세부 목표 간의 Mapping

봉사활동 내용		SDGs
워크숍 및 스포츠를 통하여 특수아동 지도 교사에게 기술 지원과 자문	→	SDG 1: 빈곤 퇴치
		• 목표 1.5 취약 환경 및 빈곤계층을 위한 회복 역량 구축
		SDG 4: 양질의 교육
		• 목표 4.5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취약계층의 동등한 접근성 확보 • 목표 4.a 아동, 장애, 젠더 민감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구축 및 개선 • 목표 4.c 자격 있는 교사의 양적 확대
		SDG 5: 양성 평등
		• 목표 5.5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지도층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SDG 8: 일자리와 경제성장
		• 목표 8.5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창출 및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 모든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목표 8.6 비고용, 비교육, 비훈련된 청년 비율을 대폭 감소
		SDG 10: 불평등 완화
		• 목표 10.2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괄성 및 권한 강화
		SDG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
		• 목표 17.16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로 지식, 전문성, 기술, 재정 자원의 공유 및 동원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출처: Haddock and Devereux (2015) p.33의 표를 저자가 재구성

상기 <표 11>은 특정 봉사활동 요소가 SDGs의 어떤 목표와 세부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상기 mapping을 SDGs 달성을 위한 투입, 산출물, 결과, 영향에 대한 논리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두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이 SDG 16 불평등의 완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시한다.

〈표 12〉 봉사활동의 SDG 16 기여 mapping 논리모형

영향 : SDG 16 (정의, 평화, 효과적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봉사활동 내용 / 논리모형 (봉사활동의 기여)	지역사회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여성을 위한 옹호전략 및 정치참여 훈련 제공
파트너십 구축	• 정부 • 비영리단체 • 사기업	• 정부 • 비영리단체 • 사기업
해외봉사 고유의 기여/성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계구축, 문제 해결 성과 모니터링	• 풀뿌리 수준에서 목소리 촉진
SDGs와 연계 mapping	• 목표 5 (성평등) • 목표 10 (불평등 감소)	• 목표 1 (빈곤퇴치) • 목표 5 (성평등) • 목표 4 (양질의 교육)
영향	• 평화적 분쟁해결에 접근 가능한 사람 수가 83% 증가 • 귀국봉사단원이 $20k 재정 동원 • 정책 변화 달성	•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 수 60% 증가 • 정책결정자의 여성 역할 증대에 관하여 관심 증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내용)	• 250개 사례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 봉사단원의 기술, 역량, 자신감 향상에 따른 새로운 역할 채택 • 귀국단원의 파트너 지원 통해 정책 변화 위한 자원신청/로비	• 3,000명의 여성이 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다고 보고 • 배운 기술을 타인과 공유
산출물 (서비스 수혜자 수, 지원된 서비스 · 물품 수)	• 서비스 수혜자 800명 • 분쟁조정 사례 300건 • 25개의 공동체가 서비스를 수혜 • 4개의 개도국이 서비스를 수혜	• 5,000명의 가난한 여성이 훈련을 수혜 • 50개 공동체가 훈련을 수혜 • 7개 국가에서 훈련을 수혜
투입 (수원국)	• 50명의 지역봉사단원 투입 • 500시간 투입	• 10명의 지역봉사단원 투입 • 150시간 투입
투입 (공여국)	• 2명의 해외봉사단원 투입 • 200시간 투입 • $5,000 비용 발생	• 6명의 해외봉사단원 투입 • 100시간 투입 • $1,500 비용 발생

출처: Haddock and Devereux (2015) p.43 재구성

상기 mapping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1) SDGs를 향한 기여를 기관별로 특성화하여 보여주도록 유연성 제공, 2) SDGs를 향한 기여를 국가·국제적 차원에서 보고(reporting)하도록 기회 제공, 3) SDGs 목표(goal)·세부 목표(target) 수준에서 보고하는 방법 제공, 4)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수준에서 세부 성과를 보고하도록 유연성 제공, 5) 양적·질적 정보를 수집하는 메커니즘 제공, 6) 성과 보고뿐 아니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위해 배움과 권한 강화 기회 제공, 7) 국제·국내·지역 파트너와의 공동성과를 도출하여 이를 인정하는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다(Haddock·Devereux, 2015:44).

상기 mapping 모델이 세부적 봉사 활동(activities)을 SDGs의 세부 목표에 자동적으로 연계시키는 툴을 통해 저절로 완성되는 체계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또 어떤 활동을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옵션을 제공하는 드롭다운(drop-down) 메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봉사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 옵션에 속하지 않은 활동을 '기타' 옵션(예: 봉사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서, 단원 자비를 이용한 지역사회 성교육 캠페인 지원 등)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덧붙여서, 특정한 질적(qualitative) 투입물에 대한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투입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사진, 비디오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가미할 수 있다(Haddock·Devereux, 2015:44).

이처럼 상기 mapping 모델은 유연성이 높아서 그 기능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WFK 사업의 개발성과 측정과 지표 수립에도 유용한 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WFK 사업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인 교육(예: SDG 4), 보건(SDG 3), 공공행정(SDG 16), 산업에너지(SDG 9, 11 등), 농림수산(SDG 14, 15 등)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DGs 연계 mapping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개발성과를 전략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섹션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키로 하겠다.

앞서 우리는 해외봉사의 가치측정에 관하여 비용효과성 환산 접근법, M&E 접근법, 변화이론(논리모형), 그리고 SDGs와의 연계 모형 등의 주요 접근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아래 섹션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해외봉사 측정에 관련한 전반적 비판과 도전과제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V. 도전과제

해외봉사 성과 측정의 보편적 이론 부족과 우수사례 부족은 앞서 알아보았듯이 해외봉사의 영향을 증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 <표 13>은 해외봉사 사업을 비롯한 국제개발사업의 M&E에 있어서 빈번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3〉 국제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M&E)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 요약

비판 주안점	내용
구체적 목표 부족	M&E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정 부족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 혹은 대응 부족
이론 활용 부족	변화이론에 대한 관심 부족, 즉, 투입물(inputs)과 산출물(outputs)에 대한 지나친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결과물(outcomes)에 대한 초점 부족
역량 부족	M&E에 대한 체계적 역량 구축의 부족
자원 투입 부족	타깃 그룹/인구의 웰빙/삶의 질 변화에 있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찾아내기 위함에 있어 자원 투입의 부족
초점 부족	영향의 방향 및 향후 궤도(trajectories)에 대한 초점 부족
맥락 고려 부족	어떤 요소가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성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분석 부족
학습 부족	융통성과 학습(learning)에 대한 초점 부족
데이터의 활용 부족	평가 결과는 향후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환류 되어야 함

출처: Franco and Shahrokh (2012) p.27 저자가 재구성

상기 명시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의 부족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응 부족이다(Franco·Shahrokh, 2012:27). 실제로 M&E는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이 부담스러워 하는 주제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조직이 M&E 과정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M&E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학습에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M&E 수행을 통한 환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영향력이 없거나 적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M&E 보고서는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 또한 M&E의 품질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3자 검토 과정이 대부분 부재하여 그 설득력이 낮다는 문제도 있으며, 의무적 검토(mandatory donor reviews) 등을 통해 M&E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부정적인 검토보고서가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기관이 M&E 검토와 결과를 학습의 기회로 수용하는데 주저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Franco·Shahrokh, 2012:27). 이는 M&E를 통한 환류와 프로그램 질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M&E 프로세스가 상향식 책무(upward accountability, 예: 공여기관·공여국)에만 집중하며 하향식 책임(예: 수혜자)을 간과하는 성향이 있는데, 다양한 책임소재에 균형을 맞추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Franco·Shahrokh, 2012:28).

상기 명시된 제약점 외에도, Lough et al.(2015)는 해외봉사의 M&E에 있어서 향상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구체성, 성과 평가 연구 및 설계, 성과 분석 방법, 측정·평가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

1) 프로그램 구체성 부족

다수의 해외봉사 성과 연구는 봉사단원이 빈곤 완화, 긴급구호, 양성평등, 삶의 질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고한다(Lough et al., 2015:18). 하지만 단원이 해당 영역에서 어떠한 경로로 긍정적 결과를 달성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불충분하다. 이는 해외봉사의 효과성이나 개발성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과 보편적 모형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Lough et al., 2015:18).

만일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결과가 봉사단원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는 봉사 사업의 수행 프로세스가 복잡하며 해외봉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가 종종 지나치게 거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Lough et al., 2015:18).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외봉사 프로그램과 수행 과정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해외봉사단원으로 인해 초래된 영향과 외부 문맥적 요인(예: 국가정책 변화)으로 초래된 성과 간 분명한 구분이 생길 것이다(Lough et al., 2015:18). 즉, 프로그램 수행 과정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외봉사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 연구 및 평가 설계의 한계

대부분의 해외봉사 성과 보고서를 보면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연구 설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Lough et al., 2015:18).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아닌 봉사활동이 개발성과에 기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전무하다. 소수의 연구에서 장기적인 관찰(longitudinal observations)방법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무작위할당(random assignment),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s), 비교그룹(comparison groups) 연구와 같이 보다 견고한 방법론을 통해서 해외봉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반 사실적/사후 가정 증거(counterfactual evidence)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은 규탄할 만하다(Lough et al., 2015:18).

동시에 대부분 조사에서는 기초선 자료조차도 수집되지 않아서 봉사 사업의 결과를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례연구들은 많지만, 성공사례·우수사례의 정보와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서화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기초 자료의 부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 입증되지 않은 증거(anecdotal evidence) 자료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Lough et al., 2015:19).

기초선 부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샘플 수가 부족하여 질적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 또한 다수 해외봉사 성과 평가의 질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간혹 샘플 수가 충분하고 샘플의 대표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기초선 조사가 부재하거나 기초선 조사의 품질이 낮고, 이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2차 연구 또는 문헌연구(desk review)도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므로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된다(Lough et al., 2015:19).

단원이 지역사회와 기관에 얼마만큼의 장기적 영향을 초래했는지를 단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법도 시도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성과 측정은 대표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많은 봉사단원이 단기간 파견된 단원이고, 그들은 봉사활동이 본인의 자기계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나, 국제개발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봉사활동이 단원에게 주는 결과가 개발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평가보고서도 많다(Lough et al., 2015:20).

3) 성과 분석 방법의 한계

대부분의 해외봉사 성과는 묘사적(descriptive)이거나 탐구적(exploratory) 접근법을 포함한 간단한 분석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그치며,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분석방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다. 이처럼 단편적이고 간단한 분석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해외봉사 성과 평가의 설계가 대부분 비교대조군(comparison groups)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외적 요인을 통제하거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es) 등과 같은 기본적이며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것 또한 어렵다(Lough et al., 2015:20).

상당수 평가자들이 기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문서연구(desk studies)를 통한 2차 문헌연구에 많은 의존을 하는데, 문헌검토는 유용할 수 있지만, 검토의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거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연구에 공백(gaps)이 있을 경우, 분석의 결론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Lough et al., 2015:20).

봉사단원과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현지연구(primary field research)를 실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이다. 면담은 봉사단원이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에 관하여 긍정적·부정적 관점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귀국 봉사단원을 면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귀국 봉사단원이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객관성이 결여된 성과 측정으로는 봉사 프로그램의 진정한 영향을 찾지 못하거나 평가의 결론에 논리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Lough et al., 2015:20).

4) 측정 도구의 한계

해외봉사 성과 측정 도구의 표준화 부족은 성과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며, 이는 세부 목표의 계량화 부재, 연구 설계의 구체성 부족 등과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단원이나 수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이용되는 용어가 표준화되어있지 않다면, 응답 데이터의 기록과 해석을 주관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만들며, 이는 성과 측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때문에 양질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해외봉사의 성과 측정 도구 표준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Haddock(2016)에 의하면, 측정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봉사단원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이슈·지역사회 및 세부 봉사단 그룹 수준, 국가수준(예: 국가 봉사활동 전수조사 등), 글로벌 수준에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국가수준의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에서 발간한 봉사활동 측정지침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5) 봉사활동 측정을 위한 ILO 지침

2011년 발간된 '봉사활동 측정을 위한 ILO 지침(The ILO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은 ILO, 존스홉킨스 대학 시민사회연구센터(Johns Hopkins Centre for Civil Society Studies, CCSS), 국제기술전문조직(International Technical Experts Group)의 합작으로 제작되었으며, 5개국에서 현지 검증을 거친 지침이다.

ILO 지침은 봉사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혹은 가구조사(household survey)에 통합하여 응답을 요하는 설문 형식을 취한다. 동 설문으로 인하여 아래<표 14>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14〉 국제노동기구(ILO) 설문을 통하여 확보 가능한 정보

질문
(1) 몇 명의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가? 봉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2) 봉사자들이 어떤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3) 봉사활동에 몇 시간을 할애했는가? (4) 봉사자들이 어떠한 조직에서 활동했는가? 혹은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활동했는가? (5) 봉사자들의 노력은 어떤 부문에 초점이 맞춰있는가(예: 보건, 교육 등)? (6) 상기 영역들에 대한 국가 간 차이점이 무엇인가?

출처: ILO (2011)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 재구성

동 설문에서 ILO가 정의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자신의 가계나 친지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강제에 의하지 않고 금전적 지급이나 보상이 없는 노동(work)'이다(ILO, 2011:13). 아래 <표 15>는 ILO가 정의하는 자원봉사활동 개념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15〉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하는 봉사활동 개념의 특징

요약	내용
이타적	자원봉사자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를 가진 '노동'이어야 하며, '노동' 이 타인에게 혜택이 되어야만 자원봉사로 간주할 수 있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악기연주는 '노동'이 아니므로 자원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무보수	자원봉사에서 의미하는 '노동'은 무보수 노동을 말함.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거나 사례금을 받은 '노동'이라고 해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물 보상을 받은 '노동'은 자원봉사로 간주하기 어려움.
비강제적, 비의무적	자원봉사 '노동'은 비강제적, 비의무적이어야 함. 법원의 명령에 의한 무보수 '사회봉사', 군복무에 대한 대체 복무, 졸업에 필수가 되는 무보수 인턴십 등은 자원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	공식적 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공식' 자원봉사 노동, 혹은 '비공식' 자원봉사 노동 모두 자원봉사 일에 해당됨. '노동'의 개념 정의에서도 제도적 배경은 상관이 없으므로 자원봉사의 공식, 비공식 구분은 의미가 없음.

출처: ILO (2011) p.13–16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주의해야할 점은, 다수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에는 활동지원비가 따른다는 점에 있어서 ILO가 정의하는 자원봉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무보수 원칙의 성립 여부를 떠나 ILO 지침은 봉사활동의 성과 측정에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표 16>참고).

〈표 16〉 ILO 봉사활동 측정지침의 특징과 장점

분류	내용
특징	• 봉사(volunteering)에 관해 광범위한 정의를 활용함. •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봉사활동 모두를 다룸. • 봉사자가 수행하는 일(work) 및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 • 누가, 얼마나, 누구를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기록을 가능케 함. • 표준화 된 개념 정의와 접근법을 통하여 국가 간 비교를 가능케 함. • 봉사활동의 가시성과 신뢰성(credibility)을 높임으로써 봉사활동을 장려할 수 있음. • 현재 노동력 측정 분야에 존재하는 갭(gap)을 채워줄 것임.
장점	• 비교 가능 : ILO 지침은 봉사활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개념 정의, 분류, 요소 등에 공통적 접근을 제공함. • 실현 가능 : 다양한 국가에서, 이행에 관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침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 • 비용 효과적 : 기존의 가계조사를 활용하고 기존의 분류체계와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효율적 : 최소한의 질문 문항을 통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신뢰 가능 : 국제기술전문조직의 광범위한 조언과 주요 개념 및 설계에 대한 신중한 현장시험(field testing)을 거친 지침임. • 포괄적 : 현재 가시적이지 않은 노동력에 대한 실질적 집계를 제공해 주어, 무임금 노동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정책결정자들이 무임금 노동에 대한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출처: Third Sector Impact 홈페이지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12)]

2013년 ILO는 '일(work activities)'에 대한 정의에 봉사를 포함했는데, 이는 봉사활동이 공식적으로 '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의 통계적 측정에 대한 근거가 수립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Haddock, 2016).

동 지침은 봉사활동의 특징 및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련하여 최초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지침으로, 봉사활동 측정의 기준을 수립하는 노력 중 가장 탁월한 기여로 사료된다(Franco·Shahrokh, 2012:25). 동 지침 발간으로 인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로, 봉사활동의 영향과 가치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관심 증가라 할 수 있다. 그 중 ILO 지침을 정기적으로 이행하는 국가의 증가, 봉사활동 이외에도 자발적 활동(voluntary action) 및 사회적 측면을 측정하는 통계도구의 모색 증가 또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Franco·Shahrokh, 2012:25).

12) Third Sector Impact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thirdsectorimpact.eu/site/assets/uploads/documentations/first-tsi-policy-brief-defining-third-sector/GVMP-STATS-9.13.2011.pdf) (접속일: 2016.12.26.)

Ⅵ. 종합분석 및 결론

지금까지 해외봉사 성과 측정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해외봉사 성과 측정 논의와 이론적 접근법, SDGs와의 연계를 통한 접근법, 그리고 도전과제를 검토하였다. 향후 방향으로, Lough et al.(2015:23)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보다 강력한 M&E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전 세계 해외봉사 파견기관을 위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표 17> 참고).

〈표 17〉 해외봉사 사업의 M&E 체계 향상을 위한 제언

영역	내용
구체성 및 논리 확보	산출물과 결과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연구 주제 · 질문을 뚜렷하고 개념적으로 논리가 촘촘하도록 설계할 것
변화이론 활용	연구와 평가 설계에 변화이론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프로그램, 결과, 결과를 중재하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 연계를 도모할 것
계량화	봉사단원의 활동이 개발에 주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측정법을 고안할 것
외부요인 자료 수집	봉사활동 이외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수집하여 봉사 서비스가 주는 결과에 대한 귀인이 가능토록 할 것
행동변화에 초점	태도나 믿음의 변화 같은 추상적인 것을 측정하기보다는, 행동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것
측정과 분석 수준 일치	측정의 단위·수준과 분석의 단위·수준이 일치하도록 할 것 (예: 봉사단원들에 대한 영향 측정은 봉사단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 지역사회 차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실시 등)
양적, 질적 연구 활용	봉사단원이 개발사업에 주는 기여의 복잡함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할 것
실험 디자인	되도록 실험(예: RCT) 및 준 실험 디자인을 통하여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두되, 반 사실적/사후 가정 측정과 사전-사후 검증(pre-post test)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인과관계 설명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라는 점을 명심할 것

출처: Lough et al. (2015) p.23 정리 및 재구성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WFK의 중장기적 성과 측정 체계를 위한 전략 방향은 첫째, WFK 통합성과체계의 논리성, 구체성 확보이다. 5개의 소관부처 및 7개 시행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기 다른 세부 WFK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WFK 공통 성과 측정 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WFK 프로그램별로 특성화된 세부적 성과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각기 다른 WFK 봉사단이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도국과 한국 간의 우호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 단원 자신의 자아실현과 성장을 공통적 파견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WFK 통합 성과관리 지표가 개발 중에 있다(예: 홍문숙 외, 2016). 한편 WFK 활동이 수원국에게 주는 중장기적 영향은 장기봉사단(예: 파견기간이 1~2년인 월드프렌

즈 KOICA 봉사단)과 단기봉사단(예: 2~3주 활동하는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간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력분야 및 직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월드프렌즈 태권도평화봉사단(태권도 교육 중점)과 월드프렌즈 IT 봉사단(IT 전문인력 파견 중점) 간의 성과 측정 틀과 지표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WFK의 성과 평가 틀과 지표는 세부 프로그램, 분야, 직종의 고유 특성과 차이점을 반영해야만 논리적인 틀이 될 것이다.

둘째, WFK 성과 평가에서 변화이론의 활용과 SDGs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WFK의 향후 성과 측정 틀은 현재 진행 중인 WFK 지표개발 작업에 사용된 변화이론(논리모형)을 유지하되, 세부적 성과요소들 간의 논리적 연계를 심화하고 SDGs 와의 관련성을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알아본 SDGs mapping 기법을 논리모형에 접목하여, 아래와 같이 WFK 중장기 개발성과 측정을 위한 SDGs 연계모델(안) 수립해 볼 수 있다.

먼저,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직종을 예로 들자면, 동 직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18> 참고).

〈표 18〉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Health Extension Program Volunteer) 활동 개요

분류	내용	
목표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습관 개선교육을 통한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	
파견형태	KOICA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은 팀제로 운영되며, 간호사 1명, 보건 분야 전문가 1명, 환경 분야 전문가 1명, 영양 분야 전문가 1명, 대외협력 1명, 업무보조 1명 총 6인 내외가 1팀으로 활동	
활동형태	보건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 소속으로 보건교육 시스템이 열악한 마을, 초 · 중 · 고등학교 등지에서 관련 교육, 캠페인 및 프로젝트 실시	
주요활동 내용	보건 분야	모자보건, 성교육, 성병교육, 가족계획, 질병예방(말라리아 등), 개인위생 교육, 보건 개선을 위한 현장 사업 등
	환경 분야	기숙사 등 환경 개선 교육, 공공시설(화장실 등) 이용 시 에티켓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사업 등
	영양 분야	클러스터 내 주민들 영양상태 체크, 영양 개선을 위한 식단 제공, 영양 개선 인식 교육, 영양 개선을 위한 현장 사업 등
	대외협력 분야	통역, 현지 기관장, 관계부처, KOICA 사무소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보건–환경–영양 업무보조,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논문작성, ICT 기초교육, 영어기초교육, 문화 ODA(한국 음식–김밥, 한국 문화–한국영화 상영 등), 행정업무 등

출처: KOICA (2016c)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상기 활동은 SDGs 세 번째 목표(보건과 복지)에 분명하게 기여한다.

〈표 19〉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과 SDG 3(보건복지) 간의 연계

봉사활동 내용	→	SDG 3(보건과 복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건 습관 개선교육을 제공한다.	→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동 봉사활동은 보건복지 목표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한 강화(여성들에게 성교육, 모자보건, 가족계획 교육을 제공할 경우), 기아 종식 및 영양 개선(주민들의 영양상태 체크 및 영양 개선 인식 교육 실시), 파트너십 개발 및 강화(관계부처 및 현지 기관장 등과 협력)에도 함께 기여하여 SDG 달성에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된다(<표 20> 참조).

〈표 20〉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WFK) 활동과 SDGs 간의 연계 mapping

활동 내용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	→	SDGs
• (보건) 모자보건, 성병 및 성교육, 가족계획, 질병예방(말라리아, 파상풍, 광견병 등), 응급의료지식, 개인위생 교육, 관련 프로젝트 • (환경) 쓰레기 처리 방법 및 재활용 방법, 친환경 가정집 꾸리기, 폐수 및 오수 처리 방법 교육 및 관련 프로젝트 • (영양) 나이대별 적절한 식이법 교육 및 관련 프로젝트 • (대외협력) 통역, 홍보, 대외연락, 국제시민사회교육(ICT, 영어, 한국어, 한국 문화 ODA 등) 등	→	SDG 2 기아·영양 SDG 3 보건과 복지 SDG 5 양성평등 SDG 6 물/위생 SDG 17 파트너십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상기 표에서 명시한 특정 활동 외에도 WFK 일반봉사단의 타 활동 및 직종 사례 별로 SDGs와 연계가 가능하다.

〈표 21〉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WFK) 일반봉사단 주력직종별 활동 내용과 SDGs 간 연계

분야	활동 직종	활동 사례 예시		SDGs 연계 예시
교육	미술교육 (미술교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 교육	→	SDG 4 교육 SDG 11 도시/지역사회 SDG 12 생산/소비
		수익원 창출을 위한 공예품 제작 교육 지원	→	SDG 4 교육 SDG 8 일자리 SDG 12 생산/소비

	초등교육 (초등교사)	안전사고 및 폭력 예방, 성교육, 기본 생활 습관, 급식, 등 · 하교 지도	→	SDG 4 교육 SDG 5 양성평등
보건	일반보건 (보건교사)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수립 및 교육	→	SDG 3 보건 SDG 5 양성평등
		지역사회 청결, 식수 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	→	SDG 3 보건 SDG 6 물/위생
	보건교육 (간호사 등)	마을 어린이들 영양상태 점검 및 식단 제공, 올바른 영양식이 교육	→	SDG 2 기아·영양 SDG 3 보건
		모자보건, 성병 및 성교육, 가족계획, 질병 예방, 응급의료지식, 개인위생 교육, 관련 프로젝트 등	→	SDG 3 보건 SDG 5 양성평등
농림수산	식품가공 (식품가공 연구원)	지역 식품의 가공을 통한 신상품 개발 교육 교재 개발	→	SDG 4 교육 SDG 12 생산/소비
		현지 식품가공 현황 조사 및 개선점 연구	→	SDG 12 생산/소비
	지역개발 (새마을 지도사)	지역사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 현황 데이터화 프로젝트 참여	→	SDG 8 일자리 SDG 11 도시/지역사회 SDG 17 파트너십
		역량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약 체결	→	SDG 11 도시/지역사회 SDG 17 파트너십
공공행정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정보 제공 및 현지 적용방안 마련	→	SDG 11 도시/지역사회
		빈곤층 아동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SDG 1 빈곤 SDG 4 교육
	관광 (관광기획사)	관광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 관리, 운영지침 등 숙련기술 전수	→	SDG 11 도시/지역사회
		지역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방안 수립	→	SDG 11 도시/지역사회
	국제개발 (연구원, 강사, 공공정책 자문)	연구직 : 국제 NGO에서 ODA 관련 합동연구 및 합동세미나 주최, 정책페이퍼 작성	→	SDG 17 파트너십
		공공정책직 : 국제 NGO와의 ODA 공동 프로젝트 시행	→	SDG 17 파트너십
산업에너지	건축 (건축가)	건축물 상태 검사 및 제거, 복원작업 등을 기획, 수행	→	SDG 9 산업/인프라 SDG 11 도시/지역사회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참고: 2016년도 일반 봉사단 주력직종은 상기 표에 명시된 직종을 포함하여 총 38개(미술교사, 건축가 등) 직종 및 직종별로 수많은 활동 예시가 있으나, 상기 표는 그중 SDGs와 연계가 분명한 사례를 선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의 mapping은 다시 SDGs 세부 목표 수준으로 나누어서 mapping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 <표 22>의 예시와 같은 mapping이 가능하다.

〈표 22〉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 활동과 SDGs 목표 · 세부 목표 간의 Mapping 모델 예시

봉사활동 내용		SDGs 및 세부 목표
(보건) 모자보건, 성병 및 성교육, 가족계획, 질병예방, 응급의료지식, 개인위생교육, 관련 프로젝트 (환경) 쓰레기 처리 방법·재활용 방법, 친환경 가정집 꾸리기, 폐수 및 오수 처리 방법 교육, 관련 프로젝트 (영양) 나이대별 적절한 식이법 교육, 관련 프로젝트 (대외협력) 통역, 홍보, 대외연락, 국제시민사회교육 등	→	SDG 2 기아·영양 • 2.1 기아 종식 및 빈곤층 및 영 ·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 • 2.2 유아 발육부진·체력 저하에 대응, 영양결핍 종식, 청소년기 소녀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SDG 3 보건과 복지 • 3.1 전 세계적으로 산모 사망 비율 감축 • 3.2 신생아·유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 종식 및 신생아 사망 감축 • 3.3 전염병 및 열대풍토성 소외질환 종식 및 간염, 수인성 질병,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 3.4 예방·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감축, 정신건강 및 복리 증진 • 3.7 가족계획 등을 포함한 성 ·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 보장 • 3.8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 3.9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 · 물 · 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감축 SDG 5 양성평등 • 5.6 성 · 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SDG 6 물/위생 • 6.2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 노상배변 종식 • 6.3 오염 감축, 유해 화학물·물질의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半減), 재활용·재사용 증진을 통해 수질 개선 • 6.a 물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확대 • 6.b 물·위생관리 개선에 지역공동체의 참여 지원 및 강화 SDG Goal 17: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 • 17.16 지식 · 전문성 · 기술 · 재원을 동원 · 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 등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상기 표는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의 활동 요소가 SDGs의 어떤 목표와 세부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상기 mapping을 SDGs 달성을 위한 투입, 산출물, 결과, 영향에 대한 논리모형과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 23>은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의 활동이 SDGs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23〉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 활동의 SDGs 기여 mapping 논리모형

영향 : SDG 3 (보건과 복지)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활동 내용 / 논리모형 (예시) (봉사활동의 기여)	세부 활동 1 (예시) :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양상태 체크 서비스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언·식단 제공	세부 활동 2 (예시) :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계획·피임 교육 제공
SDGs와 연계	• SDG 2 기아 및 영양	• SDG 3 보건복지 • SDG 5 양성평등
영향	• 영양부족 50% 감소 • 귀국봉사단원이 $20k 재정 동원 • 영양 정책 변화 달성	•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부부 수 30% 증가 • 원치 않는 임신·출산 20% 감소 • 원치 않는 임신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여성 수 20% 증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내용)	• 50개 사례에서 주민(영·유아 포함) 영양부족 문제 감지 및 조치 • 봉사단원의 기술, 역량, 자신감 향상에 따른 새로운 역할 채택 • 귀국 단원의 파트너 지원 통해 정책 변화를 위한 기금 신청 및 로비	• 50쌍의 부부가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 가족계획 및 피임 정보를 타인과 공유
산출물(서비스 수혜자 수, 지원된 서비스 · 물품 수)	• 서비스 수혜자 600명 • 영양상태 체크 및 조언제공 300건 • 30개의 공동체가 서비스 수혜 • 2개의 개도국이 서비스 수혜	• 100쌍의 부부가 훈련 수혜 • 훈련 완료 및 콘돔 수령 100건 • 10개 공동체가 훈련 수혜 • 2개 국가에서 훈련 수혜
투입 (수원국)	• 60명의 지역봉사단원 투입 • 600시간 투입	• 10명의 지역봉사단원 투입 • 250시간 투입
투입 (공여국)	• 1명의 단원(영양학 석사) 투입 • 200시간 투입 • $8,000 비용 발생	• 2명의 단원(간호사, 보건학 석사) 투입 • 200시간 투입 • $2,500 비용 발생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위와 같이 논리모형에 SDGs를 접목함으로써 WFK 봉사단의 구체적 활동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의 SDGs 와의 논리적 연계를 심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델을 각 WFK 프로그램이나 직종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 설정된 SDGs 측정지표(UN, 2016)는 WFK 활동의 성과지표 풀 수립에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 1과 활동 2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의 풀은 SDGs 측정지표를 참고하여 다음 <표 24>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24〉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보건교육 프로그램 봉사단 활동의 SDGs 기여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 풀 예시

세부 활동 1 (예시) : 지역사회 주민들의 영양상태 체크 서비스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조언·식단 제공	세부 활동 2 (예시) : 성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계획·피임 교육 제공
SDG 2 기아 ·영양	SDG 3 보건복지
• 세부 목표 2.1 기아 종식 및 빈곤층 및 영 ·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 – *측정지표 2.1.1 영양부족 현황*	• 세부 목표 3.7 가족계획 등을 포함한 성 ·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 보장 – *측정지표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중*
• 세부 목표 2.2 유아 발육부진·체력저하에 대응, 영양결핍 종식, 청소년기 소녀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 *측정지표 2.2.1 5세 이하 유아의 발달저해 현황* – *측정지표 2.2.2 5세 이하 유아의 종류별(소모성, 과체중) 현황*	SDG 5 양성평등
	• 세부 목표 5.6 성 · 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측정지표 5.6.1 재생산권리, 피임도구 사용, 성관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15–49세 여성 비중

출처: KOICA (2016b) 및 UN (2016)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위의 표에서 제안한 WFK의 SDGs 성과지표와의 연계는 WFK 프로그램의 타 세부 활동을 위해서도 도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WFK 프로그램을 SDGs와 연계하여 세부 목표, 영향, 성과 측정 풀을 도출하는 작업은 WFK 프로그램 성과 평가의 중장기 전략 구체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영은·최경화·손성경. 2016. “WFK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수원국 중심의 해외봉사단 성과 요소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3호: 109-144.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이태주·박근혜·김헌·고은경·이순열·강하니·오연주·이선주·천유진·추빛나. 2016. “KOICA 해외봉사단사업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서울: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주성수·조영호·이란희·김이경. 2016. 『해외봉사단 효과성 증진을 위한 봉사단 분야별, 직종별 추진 전략』. 서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주성수·김현옥·이금룡·정희선·송정안·천희·이란희. 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최종 연구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 2016a. 『2015 월드프렌즈코리아 통합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6b. “2016년도 일반봉사단 주력직종 정의 및 분류”(내부자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6c.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공식 수요요청서: 39. 보건교육프로그램”(내부자료).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6d. “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홍문숙·김헌·이순열·이선주·남종민·추빛나·이희철. 2016. 『월드프렌즈사업 성과관리 지표개발 연구.』 서울: (사)글로벌발전연구원.

Allum, C. 2016. “Forum Discussion Paper 2016 - Why measure and for whose benefit?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in a multiple stakeholder environment.” 9th-12th October, 2016, Bonn, Forum.

Binnendijk, A. 2000. “Results based management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a review of experience - Background Report.” Paris: OECD DAC.

Burns, D., Picken, A., Hacker, E., Aked, J., Turner, K., Lewis, S., and Franco, E. L. 2015. “The role of volunteering in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VSO and IDS.

Franco, L. E., and Shahrokh, T. 2015. “The changing tides of volunteering in development: Discourse, knowledge and practice.” IDS Bulletin vol.46(5):17-28.

_____. 2012. “Valuing volunteering - Literature review.” London: VOS and IDS.

Haddock, M. 2016.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the SDG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at the UNV Partnership Forum on 15th October, 2016, Bonn.

Haddock, M., and Devereux, P. 2015. “Forum discussion paper 2015: Document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the SDG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universal SDGs,” 4th-7th October, 2015, Tokyo.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Geneva: ILO.

Lough, B. J., 2015.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Written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 Exchange Conference, 12-13 October 2015, Beijing, China. Bonn: UNV.

Lough, B, J., Thomas, M., and Asbill, M. A., 2015. “International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A desk review of Forum members” grey literature. IL: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Morra-Imas, L. G., Morra, L. G., and Rist, C. R., 2009. “The road to results: Designing and conducting effective development evaluations.” 한국국제협력단 역. Washington, D.C.: World Bank.

UN. 2014. “The road to dignity: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A/69/700). New York: UN.

_____.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

_____.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New York: UN.

UNV. 2011a.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development: A participatory methodology: Handbook for UN Volunteers, Programme Officers and Managers.” Bonn: UNV Evaluation Unit.

_____. 2011b. “2011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Universal

Values for Global Well-being." Bonn: UNV.
월드프렌즈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worldfriendskorea.or.kr (접속일: 2016.11.25.)
Third Sector Impact 홈페이지: http://thirdsectorimpact.eu (접속일: 2017.1.2.)
UN Statistics Division(Inter-agency Expert Group) 홈페이지: http://unstats.un.org/sdgs (접속일: 2016.12.26.)
UNV 홈페이지: https://www.unv.org (접속일: 2016.11.25.)

II

섹터포커스

1. 필리핀의 국가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영향력 분석
김태진 (KOICA 지역총괄실 과장)

2.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이상급 (KOICA 경제개발실 대리)

3.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행동경제학과 소셜 마케팅 관련 해외 동향 및 KOICA 보건 사업 분석
김기현 (KOICA 혁신사업실 직원)

필리핀의 국가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영향력 분석

김태진 (KOICA 지역총괄실 과장)

목 차

Ⅰ. 개발협력과 이주, 송금
1. 개발협력과 이주
2. 개발협력과 송금
Ⅱ. 연구과제
1. 개도국의 개발 정책과 이주의 연계성
2. 필리핀의 개발과 송금
Ⅲ. 문헌조사
1. 필리핀 개발 정책과 이주, 송금
2. 필리핀 개발과 이주, 송금
Ⅳ. 연구방법
1. 일반
2. 데이터
3. 한계점
Ⅴ. 결과 및 해석
1. 필리핀 중기개발계획(MTPDP)
2. 국정연설(SONA)
Ⅵ. 결론
Ⅶ. 시사점
참고문헌

Ⅰ. 개발협력과 이주, 송금

1. 개발협력과 이주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이주(migration)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의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하 IOM)에 따르면, SDGs의 17개 목표 중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 6개 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표 1〉 SDGs 17개 목표 내 이주 관련 반영 내용

목표 구분	주요 반영 내용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b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 세계 개도국의 유학생 증가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5.2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7 강제노역,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근절 8.8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특히 여성 이주노동자)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0.7 체계적인 이주정책 이행 10.c 송금 거래수수료 3% 이하로 감소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2 아동 인신매매 근절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18 개도국 대상 이주 형태(migration status)에 따라 구분된 정보의 이용가능성 증대를 위한 지원

출처: IOM 홈페이지[1)]

1) IOM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unobserver.iom.int/2030-agenda-sustainable-development) (접속일 201.04.17)

특히, SDGs 이전의 개발의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이주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SDGs와 이주의 연계성 강화는 이주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학계에서도 이주와 개발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반복해서 주도하고 있으나(Haas, 2012), 최근에는 그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1950-1960년대는 전쟁 직후 서유럽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남유럽, 북아프리카 지역 등에서의 이주가 서유럽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송금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송출국의 개발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1970-1990년대에는 이주가 송출국의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착화시키고, 두뇌 유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급증하는 송금과 이주 및 송금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 자료로 인해, 다시 이주와 개발에 관한 낙관적인 시각이 주도적이다(Haas, 2012; UNDP, 2009).

또한, UNDP(2009)는 이주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송출국의 HDI가 낮은 국가일수록 HDI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입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빈국일수록 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 보건, 소득 등의 혜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개발협력과 송금

IOM(2013)에 따르면, 이주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인구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송금은 개발과 이주의 긍정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요소이다(Ratha, 2007).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5년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송금액은 총 4,4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World Bank, 2016a). 또한 송금은 해외직접투자 및 ODA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가계소득이 하락할 때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개도국에 중요한 개발재원 중 하나로 인식된다(Ratha, 2005). 또한, 이주노동자로부터 송금을 받는 가계(migrant household)가 비이주 가계(non-migrant

2) IOM Press Release 'Inclusion of Migration i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Milestone', 2015.9.25. (https://www.iom.int/news/inclusion-migration-un-sustainable-development-goals-milestone) (접속일 2017.04.17)

household)에 비해 농업 또는 자영업을 위한 투자에 더 적극적이며, 다수의 연구 자료에서 송금은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개발 및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Haas, 2005).

II. 연구과제

1. 개도국의 개발 정책과 이주의 연계성

국제사회는 SDGs를 포함하여 2006년, 2013년에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UN 고위급대화(High-level Dialogue)', UN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2007년 이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GFMD)' 등 다양한 공식행사를 통해 이주를 정책의제로 반영 중에 있다.

한편, 공여국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협력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 주도로 2000년대 이후부터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을 강조하면서 이주를 자국의 개발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 등 다수의 공여국은 개별 보고서를 통해 개발을 위한 이주의 중요성과 연계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DFID,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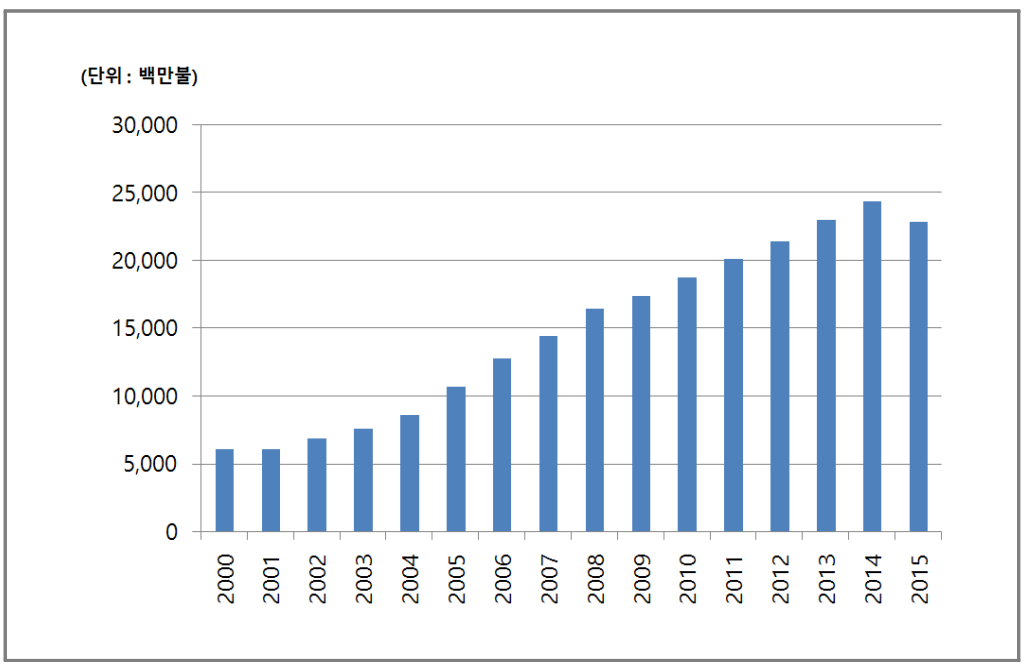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 송출국이자 개도국의 경우, 자국의 개발 정책 내 이주에 관한 연구 및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2000년대 개발재원으로서 송금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급증하던 기간 동안 아프리카 7개 국가-베냉, 케냐, 말라위, 말리, 르완다, 탄자니아-의 '빈곤감소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는 이주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Booth, 2003). 이는 개발과 송금에 관한 논의가 국제기구와 선진국 위주로 진행된 방면, 개도국이자 송출국은 그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필리핀의 개발과 송금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송출국이며, 이주가 국가 개발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개도국이다. 세계은행(200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필리핀으로 유입된 송금액은 약 280억 달러이며, 인도 690억 달러, 중국 640억 달러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기준 필리핀의 송금액이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의 9.6%를 차지하는 등 이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2000-2015년 필리핀 해외유입 송금액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BSP)

또한, 필리핀 재외동포위원회(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이하 CFO)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 중인 필리핀 국민은 2013년 기준 10,238,61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는 약 24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은 국제사회에서 이주와 개발의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발족한 '재난 국가 이주자에 대한 이니셔티브(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Initiative)'의 의장국으로서, 분쟁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국가 이주자의 보호 및 취약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다.

2016년 발표된 '이주 거버넌스 지수(Migration Governance Index, 이하 MGI)[3]'는 경제 수준, 이주 송출국과 유입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15개 대상 국가의 이주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MGI는 국가별로 1) 제도적 역량, 2) 이주자 인권, 3)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주, 4) 이주노동 관리, 5) 지역/국제적 협력 등 5개 항목 조사 결과를 초기(nascent), 도입(emerging), 발전(developed), 성숙(mature) 단계로 구분하였다. 필리핀은 이주노동 관리를 제외한 4개 항목이 성숙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15개 대상 국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즉, 이주자의 인권 보호,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주 관리 및 지원 등을 포함한 필리핀 정부의 이주정책 및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 2016년 이주거버넌스 지수(MGI)

구분	제도적 역량	이주자 인권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주	이주노동 관리	지역/국제적 협력
바레인	도입	도입	발전	도입	발전
방글라데시	도입	도입	도입	발전	성숙
캐나다	성숙	발전	발전	발전	성숙
코스타리카	발전	발전	발전	도입	성숙
독일	성숙	발전	성숙	발전	성숙
가나	발전	도입	성숙	초기	성숙
이탈리아	발전	발전	도입	발전	성숙
멕시코	발전	도입	도입	발전	발전
몰도바	발전	발전	성숙	발전	성숙
모로코	발전	도입	도입	도입	발전
필리핀	성숙	성숙	성숙	발전	성숙
남아공	성숙	발전	발전	발전	성숙
한국	성숙	발전	성숙	발전	성숙
스웨덴	발전	성숙	발전	발전	성숙
터키	성숙	발전	도입	발전	발전

출처: IOM&EIU (2016) 'The 2016 Migration Governance Index'

이번 연구는 필리핀의 개발 정책에 송금 관련 내용이 반영된 형태 및 성격을 살펴보고, KOICA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 IOM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2016.

Ⅲ. 문헌조사

1. 필리핀 개발 정책과 이주, 송금

최근 필리핀의 개발 정책과 이주의 연계성은 강화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정권별로 수립하는 '필리핀 중기개발계획(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이하 MTPDP)'에 따르면, MTPDP(1999-2004)에는 이주 관련 문단이 총 11개 있는 반면, MTPDP(2011-2016)은 총 71개로 약 545% 증가했다 (김태진, 2016). 또한, 송금에 관한 문단은 2개에서 11개로 증가하는 등 필리핀의 개발 정책이 이주와 송금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김태진, 2016).

필리핀 대통령실 산하 CFO에 따르면, MTPDP(2011-2016)에는 최소 60개의 이주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MTPDP(2004-2010)에는 이주와 관련 내용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 및 송금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MTPDP(2011-2016)에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재외동포 2세를 위한 문화 및 국가 전통 이해도 제고, 인재 유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주와의 연계성을 언급하고 있다(IOM, 2013).

결론적으로, 현재 필리핀 개발 정책 내 이주는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송금과 투자 등 경제적인 부분의 영향력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김태진, 2016).

2. 필리핀 개발과 이주, 송금

최근 20년 간 필리핀의 이주노동자 및 송금이 급증함에 따라, 필리핀의 송금과 개발의 연계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외 송금을 받는 필리핀 가계는 생활수준 및 복지가 향상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Murata, 2012). 또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필리핀의 가계소득 하락분의 약 60%를 해외 송금이 대체하였으며, 이는 송금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증가하면서 가계소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Yang, 2007).

Ⅳ. 연구방법

1. 일반

필리핀의 개발 정책과 송금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 이번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정책 내 송금이 언급된 문단 수를 조사하고, 개수가 증가/감소함에 따라 연계성도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문단 내 송금의 의미도 1) 긍정, 2) 부정, 3) 중립으로 구분하였다. 송금 관련 문단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문단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송금과 개발의 연계성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의미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3〉 송금의 의미 구분

구분	정의	예시
긍정 (부정)	송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표현한 경우	Overall, consumption fuelled by remittances is the largest and most stable source of growth from the demand side. (MTPDP 2011–2016)
	송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불필요성)을 언급한 경우	The remittance profiling survey project for efficient remittance data collection shall be pushed. (MTPDP 2004–2010)
중립	송금 관련 단순 수치 언급	In 1993–98, foreign exchange remittances of OFWs grew at an annual average of 16 percent. (MTPDP 1999–2004)
	타 개발 분야(노동, 성평등 등) 에서 송금이 부연설명을 위해 언급된 경우	Remittances from female OFWs worldwide were relatively lower than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MTPDP 2011–2016)

출처: 저자 작성

나아가 송금이 구체적으로 개발 정책 내에서 반영된 특성 및 목적을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세분화하였다. 이는 향후 필리핀의 개발 정책이 송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데이터

이번 연구는 필리핀의 개발 정책으로 MTPDP과 국정연설(Speech of Nation Address, 이하 SONA)을 사용한다. 신임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수립하는 MTPDP는 정부의 포괄적인 개발목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국가 개발 정책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MTPDP는 13대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Joseph Ejercito-Estrada)의 MTPDP 1999-2004, 14대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의 MTPDP 2004-2010, 15대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Ⅲ)의 MTPDP 2011-2016로 총 3개이다.

두 번째 개발 정책은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발표하는 SONA이다. 필리핀 헌법 8항 2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된 SONA는 매년 대통령이 필리핀의 경제,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국정 현황을 설명하고, 임기 내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연설의 배경, 발표자, 목적, 범위, 상징성 등을 고려 시, SONA는 필리핀 개발 정책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SONA는 MTPDP와 시간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에스트라다 대통령(1998-2000), 아로요 대통령(2001-2009), 아키노 3세 대통령(2010-2015)이 임기 중 발표한 모든 SONA를 포함하고, 현재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가 2016년 6월 취임 후 발표한 SONA도 현 정부의 이주와 개발에 관한 의지와 관심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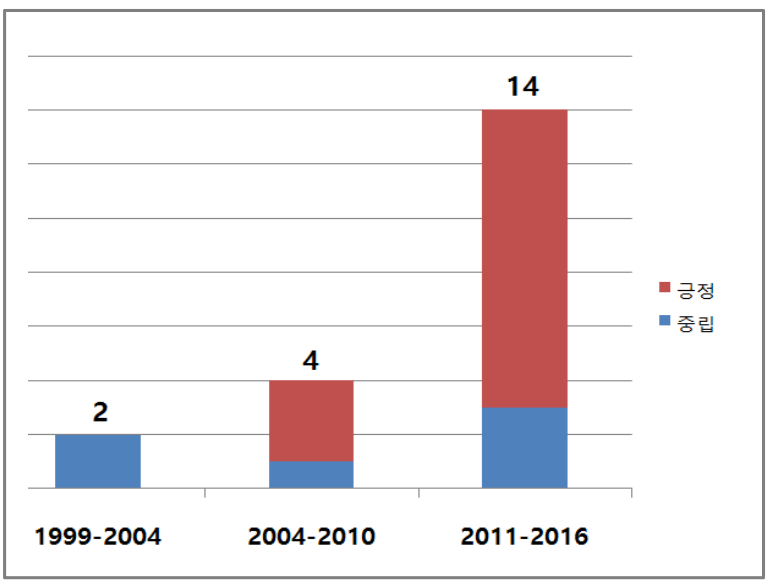
3. 한계점

송금의 질적 분석에서 부정적 의미의 문단은 없었으나 긍정과 중립의 구분이 불분명한 문단이 일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중립으로 표시하여 긍정적 문단이 최대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지만, 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MTPDP 내 송금이 포함된 문단의 개수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전 연구결과(김태진, 2016)를 사용하되, 송금의 긍정, 부정 등 질적인 의미를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필리핀 중기개발계획(MTPDP)

〈그림 2〉 MTPDP(1999–2004) 내 송금 관련 문단 수



출처: 저자 작성

MTPDP(1999-2004)는 송금에 관한 문단이 총 2개 있으나, 모두 단순히 송금액의 증감 추이 및 규모 등을 언급하는 중립적 성격의 문단이기 때문에 개발과의 특별한 연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MTPDP(1999–2004) 내 송금 관련 문단 내용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1	중립	7장.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및 개발재원 In 1993–98, foreign exchange remittances of OFWs grew at an annual average of 16 percent. It may be noted that although deployment was highest in 1998, remittances fell by 14.2 percent from US$5.74 billion in 1997 to US$4.93 billion in 1998.	단순 수치 언급
2	중립	7장.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및 개발재원 Total deployment was about 2.7 percent of total domestic employment in 1998. Moreover, total	단순 수치 언급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deployment was about 3.8 times bigger than the net increment in total employment, which was only 196,000 in 1998. Meanwhile, remittances from the OFWs accounted for 7.2 percent of GNP in 1998. This was about 16.7 percent of total export earnings for the same year.	

출처: 저자 작성

MTPDP(2004-2010)는 송금에 관한 긍정적 문단 3개, 중립적 문단 1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송금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 차원에서 송금에 관한 정보 취합 기능 강화 및 자연보호를 위한 정부 통합보호지역펀드(Integrated Protected Areas Fund, IPAF)와의 연계, 송금의 우수 인재 유입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MTPDP(2004–2010) 내 송금 관련 문단 내용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1	긍정	1장. 무역 및 투자 The remittance profiling survey project for efficient remittance data collection shall be pushed.	송금 관련 제도 개선 (효율적인 송금 데이터 취합의 필요성)
2	긍정	3장. 환경 및 천연자원 Facilitate the remittance of the Integrated Protected Areas Fund (IPAF) or the funds generated inside Protected Areas, to the PAMB;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정부 환경보호 지역펀드와의 연계)
3	중립	9장. 노동 Meanwhile, the country was able to generate 2.624 million job orders overseas or an average of 875,000 deployment per year, contributing approximately US$20.1 billion worth of remittances to the country.	타 개발 분야 내 부연설명
4	긍정	9장. 과학 및 기술 Return migration and reverse flows of income will be stimulated by encouraging remittances and investments that will be channeled toward development efforts. Diaspora and networks of Filipino S&T workers abroad shall increasingly be tapped as an important medium for knowledge sharing.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인재 유입 및 지식공유와의 연계)

출처: 저자 작성

MTPDP(2011-2016)는 송금 관련 문단이 14개이며, 이 중 긍정적인 문단이 11개로 이전 MTPDP 대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송금의 일반적인 긍정적 효과인 경제성장, 투자 및 소비와의 연계, 외자 유치를 포함하여, 송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금융 문해 캠페인(Financial literacy campaign), 금융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의 송금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MTPDP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송금 관련 문단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송금과 개발의 긍정적 연계성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었다.

〈표 5〉 MTPDP(2011–2016) 내 송금 관련 문단 내용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1	긍정	1장. 포용적 성장 추구 Thanks to overseas remittances, surpluses on current account have been run consistently since 2003.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재정흑자와의 연계)
2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Overall, consumption fuelled by remittances is the largest and most stable source of growth from the demand side.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소비 증가와의 연계)
3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Private construction likewise grew 13.3 percent, boosted by remittance fuelled residential construction as well as the need for more supply of office space. Likewise, private consumption, which constitutes the largest proportion of GDP on the expenditure side, continued its stable growth at 5.9 percent, fuelled by remittances from overseas workers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주택/건축 경기, 소비와의 연계)
4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Notwithstanding the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DP in 2009 rose by 1.1 percent, a figure within the target of 0.8–1.8 percent, making the Philippines one of the few economies in the region to register positive performance amidst the recession. GNP on the other hand, grew by 4 percent, fuelled by robust inflows of overseas remittances.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GNP 증가와의 연계)
5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In 2010, coming from a low base and boosted by the rebound in world trade, quarterly GDP grew 7.3 percent. Remittance–driven consumption and the pick–up in investments and net exports (from significant negative contributions in 2009) boosted growth.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소비 증가와의 연계)
6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The current account position has shifted to structural surpluses in large part due to the resilience of overseas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재정흑자와의 연계)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remittances, increased services receipts from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and steady tourism receipts.	
7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Overseas Filipino (OF) remittances have been steadily growing even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2010, remittances coursed through banks amounted to US$18.8 billion, an increase by 8.2 percent from the level recorded in previous year.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외화 유치와의 연계)
8	긍정	2장. 거시경제 정책 Furthermore, policymakers will need to focus on leveraging remittances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mittances are private transfers, the government can ensure that the policy environment is conducive to the use of remittances for investment in well-considered financial products, in productive activities such as entrepreneurial undertaking as well as in better housing, education, and healthcare for remitters and their beneficiaries. Improving the financial education of the overseas Filipino community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further promote the flow of remittances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would help catalyze the developmental role of remittances.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경제성장과의 연계)
9	중립	3장.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서비스 Tourism is regarded as the fourth largest contributor to foreign exchange receipts. The top three are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overseas Filipino remittances and BPO.	타 개발 분야 내 부연설명
10	긍정	3장.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서비스 Promote Entrepreneurship among Ofs The DFA, DOLE, DOF,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and the Bangko Sentral shall conduct financial literacy campaign overseas to educate and orient OFs regarding their investment and remittance options which may include special bond issuances and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송금 관련 제도 개선 (송금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
11	긍정	6장. 회복력 있고 포괄적인 금융 Together with improved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steady inflow of remittances from OFWs, a minimal investment exposure to foreign structured products and a low dependence on exports, these reforms allowed the financial system to avoid the worst difficulties encountered by other economies during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송금의 긍정적 영향력 (금융 위기 대응과의 연계)

연번	구분	해당 문단	비고(구분 근거)
12	긍정	6장. 회복력 있고 포괄적인 금융 Consequently, about 37 percent of municipalities in the Philippines do not even have a banking office and can be considered either unserved or underserved with respect to a broad range of critical financial services such as credit, savings, payment transfers, remittances and insurance.	송금 관련 제도 개선 (금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13	긍정	6장. 회복력 있고 포괄적인 금융 One way to address this is through the promotion of inclusive finance wherein everyone has access to all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posit account services, credit services, remittances, and insurance services.	송금 관련 제도 개선 (금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14	중립	8장. 사회 개발 Remittances from female OFWs worldwide were relatively lower than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타 개발 분야 내 부연설명

출처: 저자 작성

한편, MTPDP(2011-2016)에서 아키노 3세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위한 송금의 역할 및 정부의 지원 의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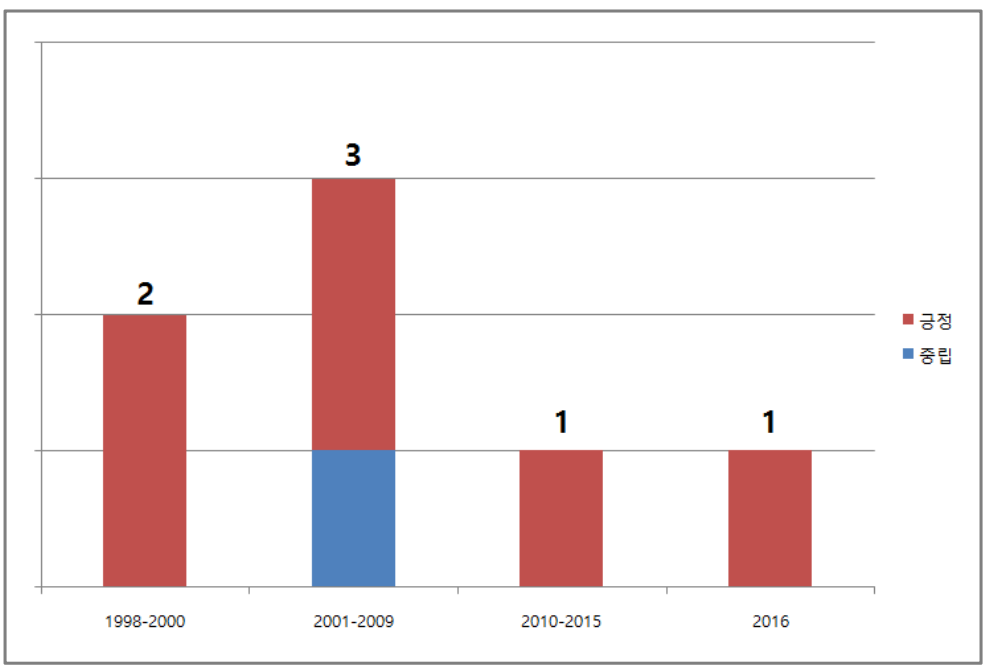
> "Furthermore, policymakers will need to focus on leveraging remittances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MTPDP 2011-2016)

이 문단은 이전 MTPDP와 차별화되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다. 아키노 3세 대통령은 송금이 민간 재원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송금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수립, 데이터 취합 및 관련 부처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MTPDP(2011-2016)은 송금과 개발의 연계에 관한 필리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한 최초의 MTPDP로 볼 수 있다.

최근 3개의 MTPDP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5년 간 필리핀 정부는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중요성 및 의미를 점차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의미와 역할은 단순히 송금의 규모, GDP 내 비중 등 단순한 수치와 투자와의 연계 및 외화 유치 등 송금의 일반적이고 수동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에서 송금과 개발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및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능동적인 방향으로 표현되었다.

2. 국정연설(SONA)

〈그림 3〉 국정연설(SONA) (1998–2016) 내 송금 관련 문단 수



출처: 저자 작성

대통령별 SONA 내 송금에 관한 문단은 1-2회로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3번의 SONA에서 총 2번 송금에 대해 언급하였다. 1999년 SONA에서 그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필리핀의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성장에 기여했으며, 그들은 '국가 경제 구원자(economic savoirs)'로 표현하였다. 2000년 SONA에서는 송금이 필리핀의 기록적인 외화 보유액 유치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로요 대통령은 총 10번의 SONA에서 송금에 대해 3번 언급하였다. 2007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 단순한 수치만 언급하였으며, 2009년에는 송금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 및 송금 활용의 의지 등을 표명하였다.

아키노 대통령은 6번의 SONA에서 송금을 1번 언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송금에 인한 경제성장을 말하면서 이주 자체는 자국 내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다.

> "....you would realiz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growth was fueled by remittances from Filipinos who had lost hope in our country." (SONA, 2015)

현 필리핀 정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6년 7월 25일 발표한 SONA에서 송금에 관해 1번 언급하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전 대통령이 언급한 송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 "To help ensure that the hard-earned money of our Overseas Filipinos are put into productive use, a mandatory financial education for all migrant and their communities shall be pursued along with incentive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among them." (SONA, 2016)

두테르테 대통령은 송금의 효용 증대를 위해 이주자 대상 의무화된 금융 교육과 이주자가 속한 커뮤니티 내에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가 활동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문단은 최근 2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의 SONA 중 송금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문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 정책을 총망라하는 SONA에서 20년 만에 최초로 송금이라는 특정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뤘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또한, 향후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6년 동안 송금에 대한 강조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교육과 기업가 활동이라는 2가지 분야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이번 연구에서 필리핀 개발 정책 내 송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개발 정책인 MTPDP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 및 외화 유치 등 송금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송금과 투자의 연계, 송금의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 교육, 금융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키노 대통령이 MTPDP 2011-2016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성장의 도구로 송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며, 송금과 개발의

연계에 관한 필리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SONA에서는 송금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으며, MTPDP와 같은 송금의 영향력 확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SONA는 지난 20년 동안의 SONA에서 최초로 송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과 기업가정신 진흥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테트테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이주 및 송금과 관련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진행 중이다.

한 예로, 2016년 8월 15일 필리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인 해외노동청(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이하 POEA)에 이주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를 개설하였다.[4] 외교부의 여권 업무, 해외근로자복지청(Overseas Welfare Workers Administration)의 회원증 발급 및 갱신 등 총 14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이동비용 감소와 서비스 이용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편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확대를 통한 송금의 증가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9월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연설(departure speech)[5]에서도 이주자의 인권보고와 복지 증진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일부 해외언론은 그가 이주노동자를 부패와 학대로부터 보호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6].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은 안정적인 이주노동과 지속적인 송금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SONA에서 언급한 송금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향후 필리핀 정부는 이주, 송금 및 개발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4) POEA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poea.gov.ph/news/2016/08-5.pdf) (2017.04.17)
5) 필리핀 관보(The Official Gazette)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gov.ph/2016/09/05/departure-speech-of-president-rodrigo-roa-duterte-sept-5-2016/)
(2017.04.17)
6) 더 가디언(The guardian)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oct/08/rodrigo-duterte-first-100-days-philippines-president)
(2017.04.17)

Ⅶ. 시사점

이주는 개발 분야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이주는 송금, 기술이전과 같은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긍정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이슈로 인한 인권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이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한 반면,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이주 간의 연계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등 다양한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이주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반면,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개발과 이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DAC은 2012년 발표한 1차 동료평가(peer review)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PCD' 부족을 지적하였고, 2015년 2차 동료평가 중간점검(mid-term review)에서도 PCD 강화를 위한 이주와 개발의 연계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리핀은 우리 정부가 개발과 이주의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이다. MGI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필리핀의 이주정책은 타 개도국에 비해 매우 체계적이며, 필리핀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리핀은 24개 중점대상국 중 하나이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에 5만 4천여 명의 필리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주민 출신 최초로 국회에서 활동한 이자스민(Jasmine Lee) 전 국회의원 등에 의해 필리핀 이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타 개도국이자 송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개발협력과 이주, 송금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ODA 자금을 통해 필리핀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재통합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이주정책 수립 및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ODA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내 은행과 협력하여 해외이주 근로자들의 송금 시 적용되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SDGs 달성과 연계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017년 11월 예정된 OECD DAC의 제2차 동료평가에서도 이주와 PCD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이주의 연계를 위한 연구와 검토, 사업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태진. 2016. "필리핀 이주정책과 개발 정책의 연계성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Booth, D. 2003. "Introduction and overview." Development Policy Review 21(2).

DFID. 2007. "Moving out of Poverty – making migration work better for poor people." London: DFID, available at http://www.migrationdrc.org/ publications/other_publications/Moving_Out_of_Poverty.pdf (접속일: 2017.04.17)

Haas, de Hein. 2012.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Pendulum: A Critical View on Research and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Vol.50(3).

_____.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 Myths and Facts". Third World Quarterly Vol.26(8): 1269-1284.

IOM. 2013. "Country Migration Report: The Philippines 2013." Geneva: IOM, available at https://www.iom.int/files/live/sites/iom/files/Country/docs/CMReport-Philipines-2013.pdf. (접속일: 2017.04.17)

IOM & EIU. 2016. "The 2016 Migration Governance Index," available at https://publications.iom.int/system/files/pdf/migration_governance_index_2016.pdf (접속일: 2017.04.17)

Murata, Akira. 2011. Effects of Remittances on Household Expenditure Inequality and Education Expenditure: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Doctoral thesis (DPhil), Brighton: University of Sussex.

OECD. 2009.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pcd/44704030.pdf. (접속일: 2017.04.17)

Ratha, Dilip. 2005. "Workers' Remittances: an Important and Stable Source of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 World Bank.

_____. 2007. "South-south Migration and Remittances." Washington, D.C: World Bank.

UNDP. 2009. "Migration,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New York: UNDP, available at http://hdr.undp.org/en/content/migration-poverty-reduction-strategies-and-human-development (접속일: 2017.04.17)

World Bank. 2016a. “Migration and Remitt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26.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788241468180260116/pdf/105075-PUB-ADD-ISBN-DOI-PUBLIC-MigAndDevelopment Brief April2016-9781464809132.pdf (접속일: 2017.04.17)

World Bank. 2016b.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6.” Washington D.C.: World Bank.

Yang. 2007. Are Remittances Insurance? Evidence from Rainfall Shocks in the Philippin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21(2): 219-48.

IOM 홈페이지: www.iom.org (접속일: 2017.04.17)

IOM Press release: https://unobserver.iom.int/2030-agenda-sustainable-development (접속일: 2017.04.17)

POEA Press release: http://www.poea.gov.ph/news/2016/08-5.pdf (접속일: 2017.04.17)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oct/08/rodrigo-duterte-first-100-days-philippines-president (접속일: 2017.04.17)

The Official Gazette(필리핀 관보 2016.09.05 Departure speech: http://www.gov.ph/2016/09/05/departure-speech-of-president-rodrigo-roa-duterte-sept-5-2016(접속일: 2017.04.17)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이상급 (KOICA 경제개발실 대리)

목 차

Ⅰ. 서 론
Ⅱ.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1. 국제연합(UN)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3.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4. 독일 국제개발협력청(GIZ)
5.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6. 한국 국제개발협력단(KOICA)
7. 기관 간 프로그램 비교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요 약

SDGs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s의 거의 모든 목표들은 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과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UN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기술촉진메커니즘 개발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특허, 논문 등의 기술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 USAID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JICA와 SIDA는 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와 GIZ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종합적 접근을 한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명확하나, 기존 추진사업과 구별되는 명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관별 전략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과학기술혁신, UN, 기술은행, 기술촉진메커니즘, 양자원조기관

Ⅰ. 서 론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총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다. 지난 15년간의 개발의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8개의 목표로 비교적 간단했던 것과 비교할 때, SDGs는 다루는 대상이 훨씬 다양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인도적 위기 상황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 지구적 이슈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 협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SDGs를 지난 MDGs와 구분 짓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는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SDGs는 17번 목표인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의 하위분야로 '기술(technology)'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남, 남-북 및 삼각협력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환경 친화적 기술들을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하고 확산시킬 것,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을 위한 기술은행(Technology Bank) 및 기술촉진메커니즘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 가동 등의 세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UN, 2015a).

그런데 SDGs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강조는 17번 목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우성 외 10인(2015)은 SDGs의 17개 목표 중 10번(불평등 경감), 13번(기후변화 대응), 16번(포용적 사회제도) 등 3개의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목표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세부 목표 기준으로는 총 24개의 세부 목표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과학기술혁신과 관련성이 낮다고 분석된 3개의 목표 중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13번 목표의 경우, '기술'이나 '과학'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SDGs의 거의 모든 목표들이 과학기술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후발국의 기술혁신역량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근,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다소 찾아보기 어렵다. 지나간 MDGs만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SDGs와 같이 파급력이 높은 어젠다에서 과학기술혁신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은 개발 협력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특별연설을 계기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for Better Lif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억 달러의 지원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은 목표 체계와 주요 프로그램 유형 등을 정의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2016).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갖는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 ODA(또는 과학기술 ODA) 사업을 분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이우성, 2014).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유형 정립 및 전략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UN 및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UN과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할 것이다. UN의 경우, UN 본부 차원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ESCO,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이하 UNE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등 산하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나 연구 기간에 제약이 있어 UN 본부 사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UN 본부의 프로그램 사례는 UN 사무총장 주도로 SDGs 발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메커니즘(Technology Ban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 Building Mechanism)을 분석하였다. 주요 양자원조기관의 경우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독일 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자료 입수에 제한이 있어 자료 검색 및 확보가 가능한 기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동 연구의 한계이며, 앞으로의 연구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이 될 것임을 미리 밝힌다.

1. 국제연합(UN)

가. UN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추진구상

UN SDGs에는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목표 17에 나타난 기술은행 및 기술촉진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해당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UN이 과학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SDG 17은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17.6부터 17.8까지는'기술'이라는 주제로 엮여 있다.

〈표 1〉 SDG 17의 하위주제인 '기술'의 세부지표

기술	
17.6 UN 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 메커니즘과, 글로벌 기술촉진메커니즘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남-북 · 남-남 · 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증진	
	17.6.1 국가 간 협력 형태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약 및 프로그램 수
	17.6.2 인구 100명당 속도별 유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과 확산	
	17.7.1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된 재원의 총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의 완전 가동, ICT를 비롯한 실행기술의 활용도 향상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출처: KOICA (2015), SDGs 최종지표에 맞게 일부 번역 내용 저자 수정

이 중 17.6과 17.8에 나타난 기술은행과 기술촉진메커니즘은 UN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SDGs를 발표하기에 앞서,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차 개발재원 총회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의 향후 추진 방향과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제3차 개발재원 총회 결과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실현을 위한 합의문이 포함되었다. 기술은행은 특허은행 등 기술정보의 제공체계를 주로 의미한다. 기술촉진메커니즘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과학계,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포럼 등을 제시하였다. 또 기술촉진메커니즘은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UN 기구들의 통합된 활동을 추구하였다.

기술은행과 기술촉진메커니즘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행되기까지의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술이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은행 및 기술촉진메커니즘의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과학기술혁신이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기술은행의 개념

'UN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UN Technology Bank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은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는데, 특히 2011년 5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되었던 제4차 UN 최빈국회의(UN Least-Developed Countries Summit)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최빈국의 과학 연구 역량 및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정보 지원체계(Technology Ban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Supporting Mechanism)[1]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이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s, IPoA)에 반영되었다(UN, 2011).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지원체계(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ing Mechanism, 이하 STIM)는 2013년 7월경 발행된 UN 사무총장 보고서(A/68/217)에서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여기에는 △특허은행(Patents Bank) △과학기술 연구 성과 DB공유체계(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Depository Facility) △과학기술혁신 지원 메커니즘(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ing Mechanism) 등이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기술은행에 관한 세부내용의 형성은 UN 최빈국-내륙국고위대표실(UN Office of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UN-OHRLLS)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장소 제공 등 기술은행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UN, 2013).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은 2014년 11월, 기술은행의 범위와 기능을 선행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고위급 패널을 구성하였다. 동 패널은 의장인 르완다 출신의 무렌지(Roman Murenzi) 교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패널은 약 1년에 가까운 작업을 통해 "기술은행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Feasibility Study for a United Nations Technology Bank for

1) 문서에 따라 표기의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정보 지원체계"로 기술되었으나, SDGs에서는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메커니즘"으로 표현되었다. 주된 표현은 "Technology Ban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upporting Mechanism"이다.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약 100쪽에 달하는 분량이며, 2015년 9월, SDGs 채택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공개되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2015b)에 따르면, 향후 설립될 기술은행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STIM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권 은행(Intellectual Property Bank, 이하 IP Bank)이다. STIM은 최빈국들의 과학기술혁신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한편 IP Bank는 최빈국들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기술은행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기존의 국제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술이전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조율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파편화 되어 있고, 기술이전의 목적과 내용 및 대상국 선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은행이 STIM과 IP Bank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비롯되었다(UN, 2015a). 기술은행은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여 '빠른 성과(quick impact)'를 거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TIM의 구체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최빈국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STIM이 현존하는 UN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Research4Life'와 국가별로 존재하는 '국가 연구개발 및 교육 네트워크(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s, 이하 NREN)'와 협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UN Research4Life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EP,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등의 국제기구, 코넬대, 예일대 등 주요대학, 국제과학기술보건출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 및 185개에 달하는 국제적인 과학전문 출판기구들이 포함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다. Research4Life는 농업, 보건, 환경 및 혁신을 주제로 하는 지식 콘텐츠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NREN은 16개의 최빈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 과학기술연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고성능 컴퓨터 및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구기관, 대학, 도서관 등 교육 및 연구기관을 하나로 연결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NREN이 설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지역 단위의 연구교육망(Reg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을 설립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STIM은

이와 같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정보교환 및 협업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빈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P Bank의 구체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STIM과 달리 IP Bank는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P Bank는 회원국들 간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에 기반을 둔 기술이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빈국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지적재산권 체계에 합류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 기술은행의 초기 활동: STIM

타당성조사 보고서(2015)는 기술은행이 초기단계(initial phase)에서 추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STIM의 경우 크게 두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디지털 연구 접근 및 네트워킹(Digital Research Access and Networking, 이하 DRAN)'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역량구축지원(STI Policy and Capacity Building, 이하 SPCB)'이다.

DRAN은 다시 'Digital Access for Research Transfer and Transformation(이하 DARTT)'와 'NREN Facilitation'의 두 가지 활동들로 구분된다. DARTT는 앞서 Research4Life를 기반으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과학 연구 저널, 서적 및 데이터베이스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Research4Life는 이미 충분한 성공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최빈국들의 수요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Research4Life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규모에 맞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용량을 키우는 작업만으로 DARTT를 운용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회원 국가를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지역별 중요한 파트너 국가를 선택하고(방글라데시, 모잠비크, 네팔,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등) 이들 국가를 지역의 멘토로 삼아 서비스 권역을 확장시키자는 전략도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NREN은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48개 최빈국 중 9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NREN을 가지고 있고, 다른 7개 국가는 NREN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제한적인 국가들과만 연결되어 있다. NREN은 많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이 타 기관들과 연계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기술은행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쉽게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NREN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직 NREN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과 협업을 통해 동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STIM의 초기 활동 중에는 'SPCB'도 포함되어 있다. SPCB를 추진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이는 최빈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력 격차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선진국들이 최빈국들에게 정책수립과 혁신역량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및 혁신역량구축 지원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추진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SPCB의 세부 활동유형으로 총 여덟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전략 페이퍼들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공유의 차원으로, SPCB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빈국들이 기존의 정책사례들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 모델은 선진 (연구)기관들과 최빈국들 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국가별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적절히 진단해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별 과학한림원(Academy of Science)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빈국 중에는 과학한림원이 설립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학한림원 설립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한림원은 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 세계과학아카데미(The World Academy of Science, TWAS)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한림원이 국가 개발 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ies)의 수립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최빈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여러 공여기관(donor)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SPCB는 현존하는 공여기관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것을 최빈국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공여기관과 수원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최빈국 연구자들에게 연구제안서 작성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다. 최빈국 연구

자들도 선진국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Grant-writing)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최빈국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모듈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방식이 다루어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연구 활동에서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SPCB 프로그램은 최빈국 연구자들에게 Research4Life와 같은 네트워크 허브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심분야가 비슷하거나, 동료평가(peer review)를 수행해 줄 수 있는 학자들을 쉽게 찾아내고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공동연구, 연구교류를 위한 재원 조성 등 연구 협업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인센티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곱 번째는 연구 성과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특허출원 지원에 관한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최빈국들은 연구기반과 실력은 다소 뒤쳐질 수 있으나 상당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생겨나는 고유한 생산물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최빈국의 이러한 조건들은 각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최빈국 연구자들이 특허 자체에 생소하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내놓고도 그 이익을 충분히 전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행위로 여겨진다.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특허출원에 대해 연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SPCB 프로그램이 최빈국들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통지식 및 특산물로 인해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가 추진되는 경우, 최빈국은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는데, SPCB는 여기에 개입하여 최빈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빈국 학자에게 어떠한 저널이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 성과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디아스포라에 접근하는 것이다. 최빈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SPCB 프로그램은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는 '디아스포라 과학기술혁신 정보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정리하면, 기술은행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 STIM은 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최빈국 연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 외에 특허출원 및 연구제안서 작성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거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활동은 다양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기술은행에서 설정한 수혜자는 주로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구자들을 키워내는 교육과정이나, 연구기관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은 세부 활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수혜자층의 선택 이유에 대해 동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UN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기술은행의 초기 활동: IP Bank

동 보고서는 기술은행이 IP Bank와 관련하여 초기에 추진할 다섯 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빈국의 기술 수요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빈국이 기존에 수행한 기술 수요분석(need assessments) 결과를 토대로 IP Bank는 각 최빈국의 위한 기술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자발적 기술이전의 성사를 위한 제안 요청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주체들과 적절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및 성과검증을 위한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IP Bank가 STIM 및 Research4Life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최빈국의 학계, 공공기관 등의 연구자, 또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주체들이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례로 WIPO의 기술혁신지원센터(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res, 이하 TISC)를 들고 있으나, 특허지형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s, PLRs)와 같은 복잡한 문서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IP Bank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정책형성, 법제도 구축, 행정, 규제, 지적재산권의 활용 등의 분야에서 최빈국의 역량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분야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P Bank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최빈국을 위한 기술이전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은행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최빈국의 지적재산권 취득과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IP Bank가 초기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빈국의 기술 획득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P Bank가 최빈국의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 기술보유국 및 최빈국 양측 모두를 위한 전문적 조언을 수행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의 사례로써 국제기구인 '범대서양 비즈니스 협의체(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이하 TABD)'를 언급하고 있다. 동 협의체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이하 CEO), 미국의 장관급 인사, 그리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위원들로 구성되며, 기업 CEO들이 주도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동 협의체는 매우 오랜 세월 지속되며 기업 간 또는 기업-정부 간 용이한 협업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 보고서는 IP Bank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 간에 TABD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최빈국이 투자, 협동, 혁신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SAID는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2014년에 시작된 Global Development Lab 프로그램이 있다. 동 프로그램은 국제개발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민간의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는 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상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PEER (Partnership for Enhanced Engagement in Research)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다. PEER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에게 경쟁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유관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연구 또는 교육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PEER 프로그램은 대상 국가의 범위와 연구 과제의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

수원국 연구인력,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HEPII(Higher Education Partnership for Innovation and Impact)가 있다. HEPII는 수원국의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적 방법을 토대로 한 개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USAID는 특정 기술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 하에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들과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의 'SERVIR[2]'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SERVIR는 USAID가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과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 위성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SERVIR-Africa, SERVIR-Mekong, SERVIR-Himalaya 등이 있다.

USAID는 특정 지역 국가군과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ASEAN-US Science and Technology Fellowship이나 Middle East Regional Cooperation Program(이하 MERC) 등이 여기에 속한다. ASEAN-US 프로그램은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국가수준 또는 아세안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 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학자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ASEAN-US가 지역의 정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MERC는 중동 지역의 농업, 환경, 수자원, 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랍 과학자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의 육성을 지원하기도 하고, 실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랍과 이스라엘 과학자들 간의 평화적인 협력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로 지역에 내재된 갈등해결이 반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편, USAID는 특정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 필리핀과 추진하는 STRIDE(Science,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프로그램, 인도와 추진하는 US-INDIA STI and Health Cooperatioin 프로그램이 있다. STRIDE 프로그램은 연구자,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부터 대학의 고등교육 지원, 연구역량 강화까지 지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또, 산학연계 연구 프로젝트나 미국의 여러 가지 사례 참관을 위한 방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목적의 활동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US-INDIA 프로그램은 STRIDE와 비교할 때 좀 더 명확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갖는다. 동 프로그램은 미국-인도 간 기술정상회의, 공동위원회 개최 등 정책 레벨에서의 협력으로부터, 항공 우주, 식수, 모자보건, 보건연구,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연구주제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미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가지고

2) 'serve'의 의미를 지닌 스페인어 단어이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USAID는 과학기술혁신에 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파트너 국가 전체, 특정 지역, 개별 국가 등으로 각기 다르고, 각 지원대상별로 중점 분야와 지원방식이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유형(modality)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활용하기도 하고, 연구재원만을 지원하기도 하며, 공동정책 추진에 관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타 원조기관은 USAID에 비해 지원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조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USAID의 다양하고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모델은 타 원조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JICA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다수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도상국에 연구자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JICA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명확한 연구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JICA는 일본의 과학기술청(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이하 JST)과 함께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SATREPS(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JICA와 일본 외무부가 수원국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주도하고, 일본 과학기술청 및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MEXT)가 일본 내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그리고는 행정적으로 JICA 및 외무부가 JST 및 MEXT와 협업하고, 수원국 연구기관은 일본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SATREPS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2014-2016) 선정된 과제 수는 총 38개로, 해마다 10-14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는 약 절반가량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SATREPS를 통해 수행되는 연구 과제의 목적은 환경, 자원, 식량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USAID의 'Global

Development Lab'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동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 일본 SATREPS는 동일한 시도를 추구하되 기술개발의 주체가 일정 수준의 역량을 지닌 연구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USAID의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기술혁신의 확산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면, SATREPS는 기술개발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ICA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이러한 노력에는 특정 대학들과 공동연구 추진체계를 만들고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3] 이외에 일본 학술진흥원(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과 함께 연구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기초의학, 농업, 에너지, 환경 등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정해진 연구 과제가 있어 과업이 명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JICA는 연구주제가 분명한 과제를 만들어 내고 실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진을 파견하는 등, 개별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타 원조기관들의 접근방식과는 구별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제 선정 및 연구자 파견 등에 있어서 타 정부부처와 행정적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4. 독일 국제개발협력청(GIZ)

GIZ는 타 기관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 민간부문 개발에 강조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GIZ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타 기관의 관점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시스템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GIZ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정치적·제도적 이슈,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적 여건, 성과 관리 등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GTZ, 2010).

GIZ의 프로그램에는 USAID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같은 키워드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의 경우 기후변화, 수자원, 농업 등 명확한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다수 검색된다. 여러 분야에 개방된 기술혁신

3) 케냐 Jomo Kenya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JKUAT), Pan African University of Basic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PAUSTI) 등과 협력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들로 가장 유사한 사업모델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한 '아세안 국가 기술 및 혁신 촉진 프로그램(Prom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ASEAN Countries)',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국가들과 추진한 '근동 국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및 혁신 촉진 프로그램(Promo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Near East)'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된 국가나 기관에서 추구하는 관련 사업들이 혁신시스템 관점과 무관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반대로 GIZ가 연구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GIZ는 국제 개발 협력을 위한 농업기술연구에 40여 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5.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스웨덴의 SIDA는 개발도상국과 정부 차원의 양자 간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IDA는 연구협력부서(Department for Research Cooperation, 이하 SAREC)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하는 분야는 이공계 뿐 아니라 사회과학, 보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사업사례로, SIDA/SAREC은 볼리비아 에두아르도 몬들라네 대학교(University Eduardo Mondlane, UEM)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ICT와 도서관 개선 등의 활동이 동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업기간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사업비는 3,200만 달러를 상회한다. SIDA/SAREC은 탄자니아와도 연구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다. 우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은 다르에스살람 대학교(University of Dar es Salaam, UDSM)와 보건, 과학, 공학기술, 해양과학, 언어, 경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협력을 추진하였다. 이 때 사업비는 약 1,800만 달러로 연간 360만 달러를 연구 활동에 지원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탄자니아 과학기술위원회(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STECH)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8개 연구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때 사업비는 85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SIDA/SAREC의 추진사업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획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교적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보다는 분야와 무관하게 연구 활동이라는 행위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6. 한국 국제개발협력단(KOICA)

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마커(STI Marker)를 통한 지원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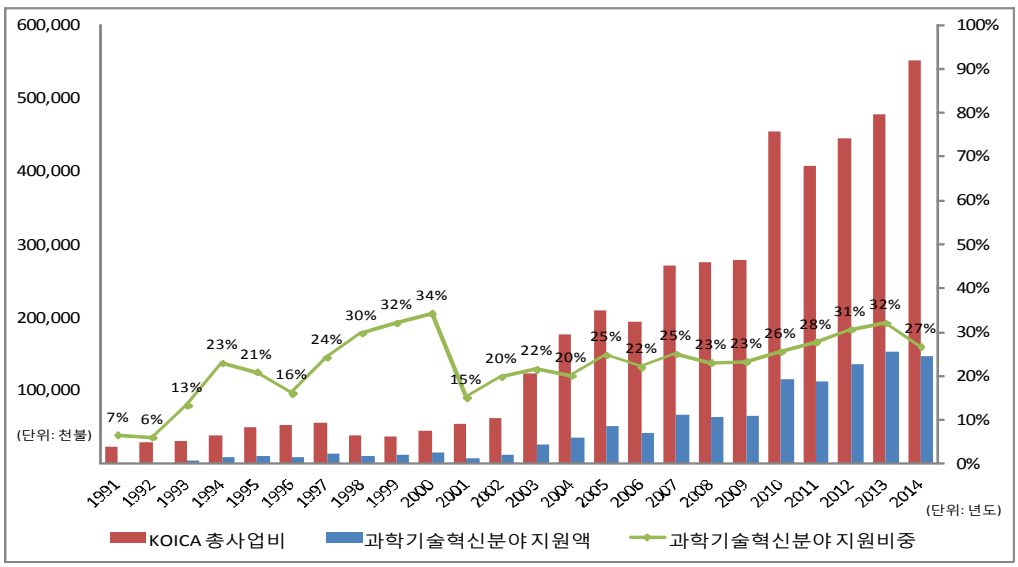
KOICA는 2015년 과학기술혁신 분야 프로그램을 분류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마커(STI Marker)를 개발하였다. 동 마커는 리우 마커나 젠더 마커와 같이 직접 목적 또는 간접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마커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을 분류하려는 것은 과학기술혁신 개념이 범분야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KOICA의 STI 마커에서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가, 지역, 산업 단위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관점을 적용하여 수립하였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의 국가, 지역, 산업 단위 혁신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직접 목적으로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 인프라의 구축, 이공계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혁신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등과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인적,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주목적으로 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기술이 필연적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위성기술을 활용한 기상관측시스템 및 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장비를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원국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야 전문지식을 필연적으로 획득해야만 한다. KOICA의 STI 마커에서는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술력이 향상되는 사업을 간접 목적 사업으로 분류한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KOICA의 지원 실적을 KOICA STI 마커를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KOICA의 ODA 규모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DAC 가입 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KOICA의 지원액 중 STI 마커가 부여된 사업의 비중은 26%-32%에 달한다. DAC 가입 이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비중이 20~2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전체 사업예산의 증가와 함께 과학기술혁신 분야 프로그램의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KOICA 과학기술혁신 분야 지원 실적



출처: 저자 작성

나. 과학기술혁신 전략 및 SDGs 브랜드 프로그램[4)]

KOICA는 2015년, SDGs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 정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세 가지 추진 목표로 1)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 양성, 2) 과학기술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 3) 혁신적 방식의 개발 문제 해결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 목표는 각각의 사업 발굴 유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목표에 맞춰 발굴되는 사업들은 KOICA의 'SDGs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양성'에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과학기술 분야 핵심연구 인력의 범위에는 실험실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이공계 전문인력 이외에 과학기술정책이나 혁신정책을 수립하는 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혁신 기반 산업발전 지원'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취업 및

4) 이 부분의 내용은 KOICA의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기술이전 지원사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강화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활동 지원사업, 산업발전 관련 제도 구축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들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 산업부문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KOICA의 과학기술혁신 사업은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개별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연계시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혁신적 방식의 개발 문제 해결 활성화'는 주로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을 개발 문제 해결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동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유형에는 KOICA가 2015년 시작한 '창의적 가치창출(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이하 CTS) 프로그램'과 민간부문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이 있다. CTS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주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CTS 프로그램은 미국 USAID의 'Global Development Lab'을 벤치마킹하였으며, KOICA의 기존 사업유형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 기관 간 프로그램 비교분석

앞서 살펴 본 각 기관들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을 요약정리하고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양자원조 기관들 간의 특성을 요약하면, 먼저 USAID는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원대상의 범위도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으며, 파트너십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Global Development Lab'과 같이 매우 실험적인 형식의 사업유형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장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JICA와 SIDA는 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활동의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기관의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JICA는 일본 내 과학기술 담당부처와 공동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진을 파견하는 등 공동연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SIDA는 예산지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KOICA와 GIZ는 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종합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물론 두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종합적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부문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표 2〉 기관별 주요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비교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특징
UN	· 기술은행 · STI Supporting Mechanism · 기타 산하기관의 프로그램 (UNICEF Innovation Lab) 등	· 최빈국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 · 연구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DB 구축 및 행사 개최
USAID	· Global Development Lab · Partnership for Enhanced Engagement in Research(PEER) · Higher Education Partnership for Innovation and Impact (HEPTI) 등	·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함 · 파트너십의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함(개발도상국 전체, 특정 지역 국가군, 개별 국가 등) · 지원방식도 매우 다양함(연구재원 지원, 행사 개최, 프로젝트 지원 등)
JICA	·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Partnership Program (SATREPS)	· 공동연구 과제 지원 중심 · 연구주제가 명확하며 연구진을 현지에 파견 · 환경, 자원, 식량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초점
GIZ	· Promo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ASEAN Countries · Promo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Near East	·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접근 ·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으로의 연계를 강조
SIDA	· 개발도상국 대학의 연구 과제 지원 프로그램(탄자니아, 볼리비아 등)	· 장기적 연구 활동을 지원 · 연구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음
KOICA	· 핵심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 STI 기반 산업발전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방식의 개발 문제 해결 활성화 프로그램(CTS 등)	·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접근 · 프로젝트형 사업 비중 높음

출처: 저자 작성

Ⅲ. 결론

국제사회의 SDGs 채택으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은 국제 개발 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는 개발도상국 스스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5년간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이니셔티브 발표를 계기로 여러 유관기관들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모델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관찰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어떤 프로그램이든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매우 이질적인 여러 사업들이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되면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모호해 질 수 있고, 프로그램 수행결과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은, 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많은 프로그램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나, 앞서 제시한 여러 원조기관들의 사례들은 이러한 전략 수립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2016. “개발 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2016.02.29.). 세종: 국무조정실.

이근. 2014.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기업·산업·국가 차원의 이론과 실증』. 서울: 도서출판 오래.

이우성. 201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 제24권 제1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이명진, 장용석, 정도채, 성경모, 박선희, 김성아, 김보현, 정유성, 윤성빈, 김아람. 2015.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정책연구』 2015-18.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34.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6. “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전략” (내부 문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GTZ. 2010. “Strengthening Innovation System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workshop document), held 5-8 October 2009 in Dortmund, Germany.

UN. 2011.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11-2020.”New York: UN.

_____. 2013. “Technology ban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ing mechanism dedicate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68/217). New York: UN.

_____. 2015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A/RES/70/1). New York: UN.

_____. 2015b. “Feasibility Study for a United Nations Technology Bank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A/70/408). New York: UN.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행동경제학과 소셜 마케팅 관련 해외 동향 및 KOICA 보건 사업 분석

김기현 (KOICA 혁신사업실 직원)

목 차

Ⅰ. 공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의 비교
2. 행동변화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등장
3.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의 필요성
Ⅱ. 경제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소셜 마케팅
1. 전통경제학 패러다임
2. 행동경제학 패러다임
3. 행동경제학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소셜 마케팅
Ⅲ. 보건 사업의 소셜 마케팅 사업기획모델 INH,C
1. 보건 사업에의 소셜 마케팅 적용
2. 행동변화의 효과
3. 행동변화가 지연되는 이유
4.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INH,C
Ⅳ. INH,C 모델에 기반한 KOICA 보건 사업 사례 분석
1. 분석 대상 사업 개요
2. KOICA 기획사업 사례 분석
3.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 사례 분석
Ⅴ. 분석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2. INH,C 사업기획모델 활용 방안
3. INH,C 모델의 확장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요 약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인간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소셜 마케팅의 등장을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선진 원조기관들의 보건 사업 중 행동의 변화를 다루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업기획모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보건 사업들을 분석하고 교훈점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학술자료 및 KOICA 사업문서의 문헌 분석을 택하였다.[1)]

공공정책과 개발 협력 사업의 기반인 전통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는 행동경제학이 등장하며 행동변화를 사업의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의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소셜 마케팅이라 한다.

개발 협력 사업 중에서는 보건 사업에서 소셜 마케팅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보건 사업은 수혜자의 행동변화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혜자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진 원조기관의 보건 사업 사례를 분석하면 효과적인 정보 전달, 자연스러운 행동변화의 유도,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세 가지 분류의 활동이 발견된다. 이에 각 분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을 모아 행동변화를 위한 기획모델인 INH,C[2)] 모델을 개발하였다.

INH,C 모델에 비추어 KOICA의 행동변화 관련 보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보 전달에 비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과 행동의 습관화 관련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근본적으로 보건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행동변화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변화와 습관화에 속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전 과정에서 외부의 소셜 마케팅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KOICA 내부에 소셜 마케팅 관련 지식을 축적하며, 내부 전문가 및 조직을 양성해나가야 한다.

주제어: 행동변화(Behavior Change), 사회적행동변화(Social Behavior Change),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C4D)

1) 행동변화 요소들의 효과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험 및 검증은 이 글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2) INH,C 모델이란 정보 요소(Information), 행동변화 요소(Nudge), 습관화 요소(Habituation), 협력(Collabor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용어이다.

Ⅰ. 공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행동변화의 중요성

1.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의 비교

공공영역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틀로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public goods)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에 실패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일컫는다. 수요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에서 시장영역과 다른 특성을 띄지만, 이 역시도 일종의 수요이다.[3] 즉,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을 동일한 공급과 수요의 틀로 분석할 수 있다. 시장영역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를 가진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면 단기적으로는 구매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충성고객이 된다. 공공영역에서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수혜자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요를 가진다. 이 둘이 만나면 수혜자의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정책의 효과는 지속된다.

〈표 1〉 공공영역의 공급과 수요

구분	공급	수요	효과
시장영역	기업 "이윤 창출"	소비자 "필요를 위하여"	단기 : 구매 및 사용 장기 : 충성고객화
공공영역	정부 "정책 목표 달성"	수혜자 "바람직하므로"	단기 : 바람직한 행동 장기 : 정책효과 지속

출처: 저자 작성

초기 시장에서는 공급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급하는 대로 수익을 얻으며 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시장에 공급이 충분해진 상황에서 기업의 성패는 수요에 달렸다. 따라서 기업은 수요에 대하여 연구하고,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한다. 이는 마케팅이라는 기업 경영의 한 분야로 다루어진다.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생활 습관과 연결된다. 기업이 광고에서 생활 속에 녹아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지배하려는 이유이다. 점차 어떠한 것이든 생산이 충분한 수준으로 가능해진 특정 시점 이후의 기업은 소비자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거래 관계의 주권이 공급자에게서 소비자들로 옮겨간 것이다.

3) 경합성은 한 측의 사용에 의하여 다른 한 측의 사용이 줄어드는 경합의 성격을 말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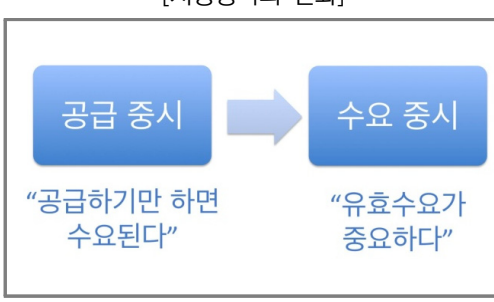
공공영역에는 아직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반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아도 기업과 같이 존폐 위협을 받지 않는다. 즉,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및 전달한 이후 수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수많은 공공서비스가 단순 제공되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여전히 거래 관계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시장영역에서 마케팅이 등장한 것과는 달리, 공공영역에서 정부는 여전히 수혜자들의 위에 위치하여 분석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수혜자들의 필요나 사용 과정에서의 경험 등은 생략된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도 수요를 중시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수많은 공급, 즉 정책이나 사업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과 금연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그러나 수혜자들을 분석하고 기획한 일부 정책의 경우는 성공한다. 정책의 성공사례로부터 학습하고, 성공을 이끌어낸 특정 요소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 추진 후,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의 결과를 조사하고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M&E)하는 기업과 같은 시도도 두드러진다.

이렇듯 정부도 정책에 있어서 선택의 권리는 수혜자 측에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즉 수혜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점차 수혜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수혜자는 정책 기획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 소지자로 등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업과 같이 수혜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을 결정한다. 공공영역도 시장의 뒤를 따라 공급 중심 단계를 지나 수요 중심으로 힘이 옮겨가고 있다.

〈그림 1〉 시장영역 및 공공영역에서의 변화

[시장영역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공공영역의 변화]



출처: 저자 작성

2. 행동변화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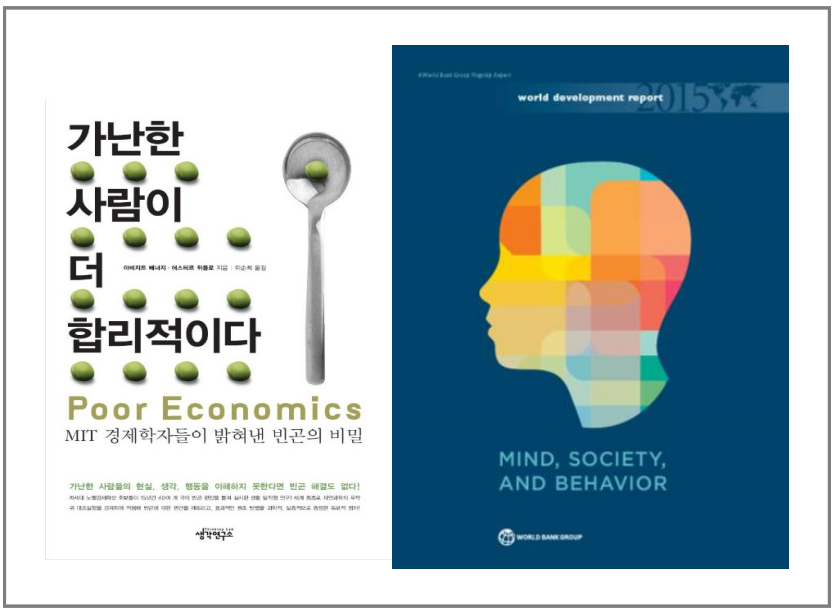
개발 협력 사업에서도 수요를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는 거시 경제학자들의 결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었다. 수혜자들의 수요보다는 원조국 정부가 무엇을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 정해졌다. 거시 경제학자들이 수원국에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명 '빅 푸시(Big Push)'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측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R. Easterly)는 현지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장영역의 마케팅과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제시한다(이스털리, 2011).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퇴출되듯이, 수혜자들의 반응에 기반하여 서비스들을 퇴출시키는 입장도 있다.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는 정책에 있어서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내세우며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성공한 사업만을 실행하자고 한다(Duflo·Banerjee, 2012).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의 압둘 라지프 자밀 빈곤퇴치연구소(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 J-PAL)이 의약계에서 신약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작위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TC)'을 도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판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상응하는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성공한 정책들만 확대(scale-up)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영역과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 사업에서도 행동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아마티아 센(Amartya Kumar Sen)은 "사회적 변화는 개인행동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Amartya Sen, 1999).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서도 '사람들이 보건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명시하였다(KOICA, 2015).[4]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2015년을 행동변화의 해로 결정하고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더불어 글로벌 인사이트 이니셔티브(Global INsights Initiative, GINI)를 발족하여 행동변화를 사업기획과 실행,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5]

4) SDGs의 세부 목표'6.2. 보편적 위생/위생 행태 접근성'의 두 번째 세부지표(6.2.2.)는 '비누로 적절하게 손 씻는 비율'이다.
5) 세계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5) (접속일: 2016. 7. 2)

〈그림 2〉 에스테르 뒤플로의 저서(좌)와 세계은행 행동변화 리포트(우)



출처: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5 (접속일: 2016. 7. 2)

3.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의 필요성

개발 협력 사업에서 점차 미시적 단위의 행동변화를 중시함에 따라 기존 사업의 기획과 차별화 된 새로운 기획모델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의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행동경제학과 소셜 마케팅(Social-Marketing)에 대하여 기초적인 문헌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소셜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 후, 사례가 풍부하고 발전되어 있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획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KOICA 보건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Ⅱ. 경제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 마케팅

1. 전통경제학 패러다임

전통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완벽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손익을 계산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책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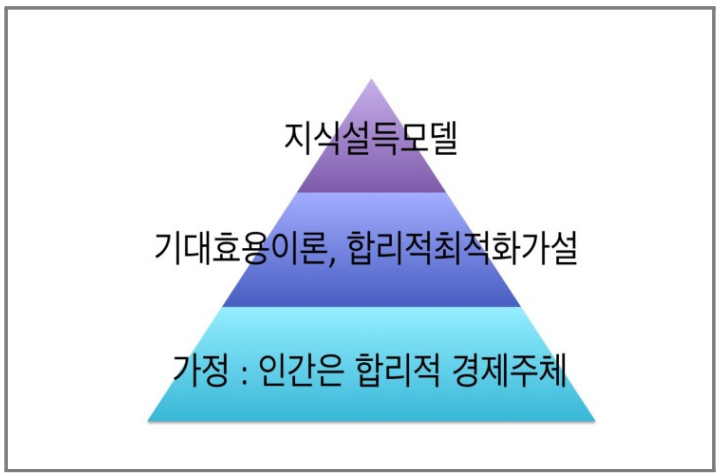
가. 합리적선택가설(Rational Choice Model)

전통경제학의 가정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Homo Economicus)이다. 합리적인 인간은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Rational Choice Model). 인간은 자신들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즉, 각 행동 시에 기대되는 결과값과 확률을 곱하여 기대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비교하여 가장 큰 효용을 주는 행동을 선택한다. 이를 기대효용가설(Expected Utility Theory)이라 한다. 정책에의 역할은 이러한 사람들의 계산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를 제공하여 효용을 깨닫게 하거나,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높이거나, 보조금이나 직접 지원과 같은 재정적인 혜택으로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지 않게 하려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담배 상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나. 지식설득모델(Persuasion Knowledge Model)

합리적선택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면, 수혜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스스로의 인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수혜자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태도, 믿음, 결정, 행동 등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설득의 시도(persuasion attempt)'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Okazaki·Amadeo·Navarro and Henseler, 2015).

〈그림 3〉 전통경제학에 기반한 행동변화 유도



출처: 저자 작성

2. 행동경제학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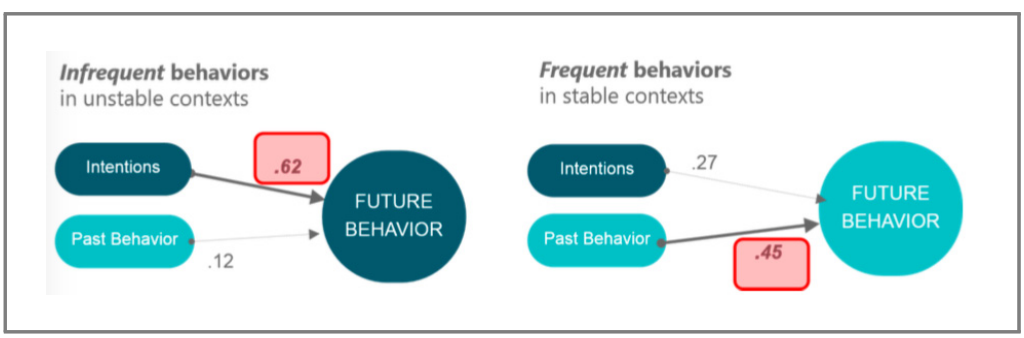
가. 비합리적 행동변화

그러나 전통경제학 패러다임은 인간의 실제 행동변화에 대해서 설명력이 부족하다[6].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부정하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7]은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이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전통경제학의 효용을 대체하는 전망(prospect)을 제안한다. 즉, 이익과 손실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경제학은 경제학 담론에 인간의 심리를 변수로 가져왔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후에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8]

6)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apsc.gov.au/publications-and-media/archive/publications-archive/changing-behaviour) (접속일: 2016. 7. 2)
7) 200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8)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가 2001년, 로이드 섀플리(Lloyd Shapley)가 2012년에 2013년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 등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실제 인간은 선택 과정에서도 미래의 비용과 이익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고 감정적인 선택을 남발하며, 현재를 미래에 비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인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도, 습관성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등 인식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표출한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익숙하지 않고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익숙한 환경에서의 빈도가 높은 행동에 있어서는 과거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 차원의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주변 집단의 영향력 역시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과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행동을 따른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 이성적 한계, 감정,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Jolla·Sunstein·Thaler, 1998).

〈그림 4〉 의사결정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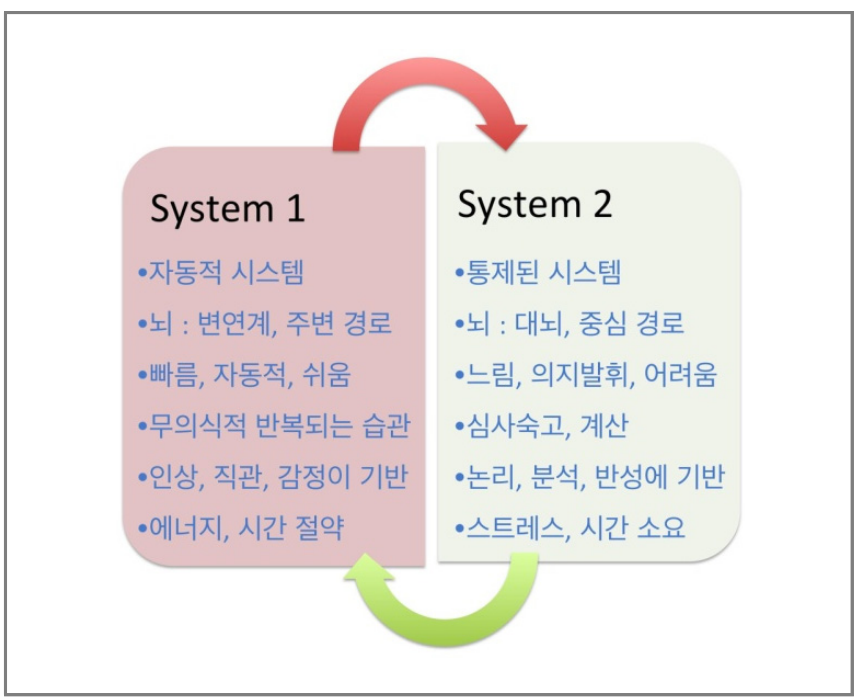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리포트

나. 휴리스틱체계 모델과 정교화가능성모델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시스템Ⅰ과 시스템Ⅱ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시스템Ⅰ은 인지적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고, 시스템Ⅱ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통제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시스템Ⅰ이 초기 값으로 사용된다. 즉,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은 대부분 뇌에 있는 지름길을 따르는 것과 같은 자동화된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직관이고, 습관이다. 인간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화된 선택을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하는데, 휴리스틱은 합리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지적 노력을 최소화해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Shintaro Okazaki et al., 2015). 합리적선택가설에 등치되는 이 가설을 휴리스틱체계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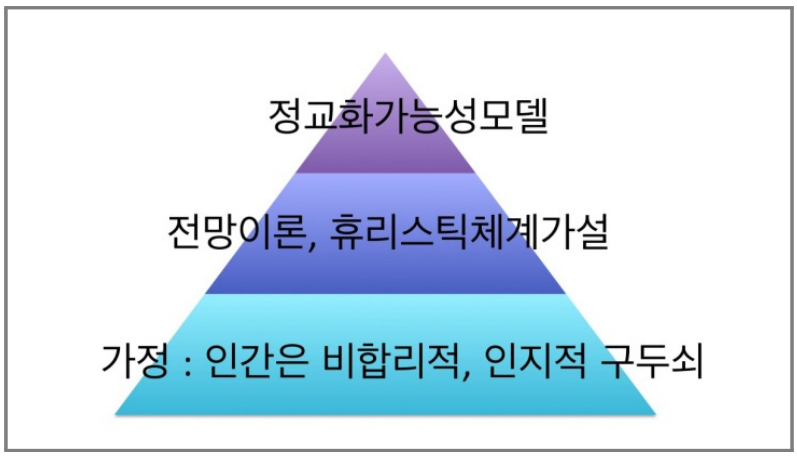
반면, 익숙하지 않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습관을 따르거나 직관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가능성과 이익을 계산하여 결정한다(Fang Wan·Namita Bhatnagar, 2011). 고관여 상황에서 인간은 정보를 중시하고 논리를 발휘하는 정교한 인지 과정을 진행한다. 정보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중심 경로 프로세싱(central route process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과 같은 저관여 상황에서는 핵심 정보보다는 주변적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변 경로 프로세싱(peripheral route processing)이라고 한다(Chaiken, 1980, 1987). 이처럼 중요한 상황이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냐에 따라 인간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다른 경로를 따르는 것을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라 한다. 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고관여 상황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저관여 상황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광고에서는 저관여 상황에서 배경음악, 광고모델 등 주변 정보를 통하여 매력 있게 느끼도록 만든다. 정부에서도 저관여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림 5〉 인간의 자동적 사고 체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행동변화 유도



출처: 저자 작성

다. 기타 요인들

개인의 행동은 위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개인 차원에서의 선택이 있더라도, 대인관계에서 행동이 좌절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조직,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9] 또한 개인이 인식의 차원에서 선택한 것도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금연을 하겠다고 선택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2〉 전통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비교

	전통경제학	행동경제학
가정	인간은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합리적, 감정적
개인의 선택	합리적선택 모델 기대효용 이론	휴리스틱체계 모델 전망 이론
선택 유도	지식설득 모델	정교화가능성모델
사회적 영향	–	사회생태학 모델
기타	–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함

출처: 저자 작성

9) 사회생태학 모델(social ecological model)이라 한다.

3. 행동경제학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소셜 마케팅

행동경제학이 개인의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 것이라면, 실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시장영역에서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왔다.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소비자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고객을 세분화[10]하고, 선정된 타깃군에 4P 전략[11]을 수립한다.

행동변화를 위한 마케팅 기술은 공공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Andreasen, 1994). 마케팅의 수요조사, 환경 분석,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등의 접근방식은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12] 또한 마케팅의 개인, 대인 관계,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다양한 행동변화 유도 기술들은 공공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STP 전략은 공공정책의 대상을 구분하고, 타깃군을 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P 전략 또한 수혜자들에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여러 필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표 3〉 마케팅 4P의 개발 협력 적용

구분	시장영역	공공영역
Product	제품, 서비스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Price	가격	비용이나 장애 물리적, 심리적 가격
Place	유통	접근을 용이하게
Promotion	매체, 커뮤니케이션	매체,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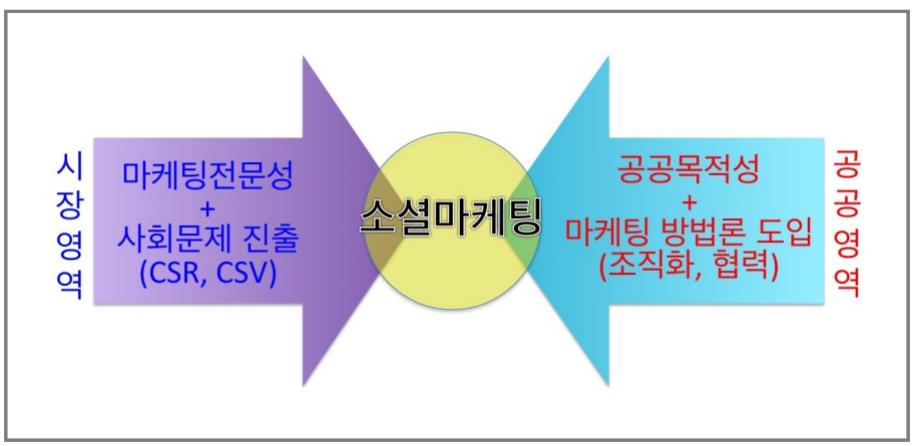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이처럼 공공영역에 마케팅 방법론의 도입하는 것을 '소셜 마케팅'이라 일컫는다. 필립 코틀러에 따르면 '소셜 마케팅은 개인과 사회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의 각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코틀러, 2007). 또한 개인의 행동변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행동변화는 새로운 문화 창출과 생활습관과도 연결되며 SDGs와 밀접하게 관련된다(Nancy R. Lee·Philip Kotler, 2015). 소셜 마케팅은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의 접점에서 정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영역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들을 도입하

10) STP 전략은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으로 이루어진다.
11) 4P 전략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관련된 전략을 통칭한다.
12) Because it adapts "marketing technologies to programs designed to influence the voluntary behavior of target audiences to improve their personal welfare and that of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게 한다. 반대로 시장영역의 행위자들이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소셜 마케팅에 포함된다. 즉, 소셜 마케팅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SDGs 등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기술의 활용, 혹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공공영역 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의 접점



출처: 저자 작성

가. 기업의 소셜 마케팅 활용

기업도 마케팅을 활용하여 공공영역 문제 해결에 뛰어들고 있다. 기업의 일회성 광고나 캠페인, 혹은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활동을 통하여 공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광고에 있어서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참여형 캠페인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13] 이에 따라 마케팅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회사들은 소셜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제일기획은 폴란드에서 적십자와 협력하여 기부를 쉽게 만드는 'Very Good Manner' 캠페인을 실행하였고, 독일에서는 국제연합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와 협력하여, 아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캠페인을 벌였다.[14] 한국에서는 국제연합 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13) 실제로 칸 광고제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상당수 수상하였다.
14) Very Good Manner의 경우,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포크와 나이프를 적십자의 십자 모양으로 놓으면 식사 값 중 일부를 기부하게 하였다. UNICEF와의 캠페인의 경우, 사람들이 자물쇠를 푸는 참여를 통하여 아동들의 자유를 인식하게 하였다. UNHCR 난민 전시의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난민의 인형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난민들의 이슈를 발견하도록 유도하였다.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 난민에 대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제일기획은 소셜 캠페인을 위한 별도 조직을 설립하여 공공정책과 연계된 캠페인을 기획하기도 하였다[15].

나. NGO의 소셜 마케팅 활용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에서는 마케팅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모금에 역할이 집중되고 공공사업기획에 역량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점차 새로운 분야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사례들이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미국 NGO인 세이프티 랩(Safery Lab)에서는 아동들이 손을 씻도록 만들기 위하여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어서 비누를 사용하도록 행동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림 8〉 SAFETY LAB AND BLIKKIESDORP 4 HOPE 의 '희망비누(hope soap)'



출처: 세이프티 랩 홈페이지 (http://blog.bigantacademy.org) (접속일: 2016.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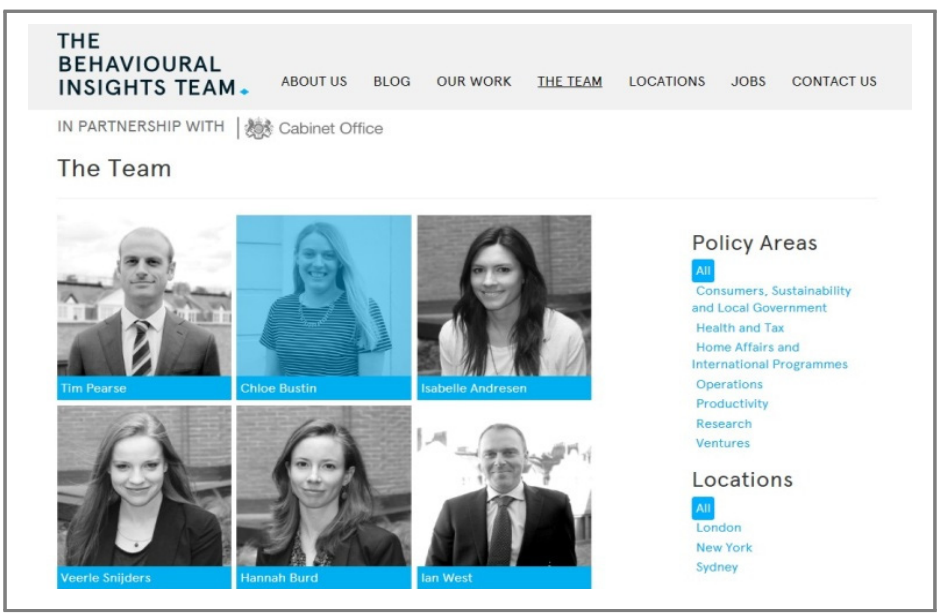
다. 선진국 공공영역의 소셜 마케팅 활용

선진국의 경우, 공공정책에 소셜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마케팅 학계에서는 공공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을 연구하며 Marketing & Public Policy라는 저널을 발행하고 있다.

15) 제일기획의 굿컴퍼니솔루션센터(Good Company Solution Center)이고, 필자가 근무하며 부산경찰청 등 공공기관, 기업 등과 소셜 마케팅을 기획하였다(김기현, 2014).

영국의 경우, 소셜 마케팅을 연구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총리실 산하의 '행동변화 전담조직(Behavioural Insights Team)'[16]은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에서 시설되어 각종 다양한 정책에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금연을 위하여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행동변화가 적용된 정책에 대해 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변화를 정책에 접목시키는 툴을 개발하며, 전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SDGs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17] 이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힐튼은 캐머런 내각에서 활약하였다.

〈그림 9〉 영국 총리실 산하 행동변화 전담조직



출처: 영국 총리실 행동변화 전담조직 홈페이지

미국의 경우 공중보건 분야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등 국가 건강기관에 소셜 마케팅과 관련된 별도 조직이나 전문가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금연정책에서 소셜 마케팅이 본격 도입되었다. 행동변화이론과 각종 연구에 따라 개인과 대인, 커뮤니티 단계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벌금, 금지, 세금 위주의 정책에서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하고 또래 집단의 압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18]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16) 넛지 유닛(The nudge unit)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처음에는 정부 내 조직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와 NGO의 출자로 운영 중이다.
17)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behaviouralinsights.co.uk/) (접속일: 2016. 4. 5)

경우, 정부 차원에서 행동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Tools of Change'[19]를 발간하여 환경 및 보건 분야 정책 기획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행동변화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입증된 것은 전국에 걸쳐서 확장하는 것이다.[20]

〈표 4〉 각국의 행동변화 정책 비교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사례	보건 분야 특화	총리실 산하 조직화	금연정책 적용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출처: 저자 작성

라. 개발 협력의 소셜 마케팅 활용

공공영역의 소셜 마케팅 접근 추세는 개발 협력계에서도 발견된다.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에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가 발족된 후,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업에 존스홉킨스대학의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Center, BCCC)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사람들의 위생 행태에 기인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행동변화를 만드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USAID에서는 'Wash Plus'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랜 기간 보건 위생 행동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오며 관련 툴킷(toolkit)을 만들어왔다.

마. 국내 공공영역에서의 소셜 마케팅

국내 학계에서는 소셜 마케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마케팅 분야 연구자들이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 및 이 분야 연구자들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진용, 2010). 정부에서도 소셜 마케팅을 공공정책에 접목시키는 활동은 종종 있어왔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환경을 다시 디자인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활동을 하였다 (김기현, 2015). 깨끗한 환경에서는 범죄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골목길에 조명을 더 설치하고 밝은 느낌의 벽화를 그리는 것이다.

18) 담배를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이미지인 비만, 운동 부족, 알코올 중독 등과 연계하여 연상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19) Tools of change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toolsofchange.com) (접속일: 2016. 7. 2)
20) Tools of change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toolsofchange.com/en/programs/community-based-social-marketing (접속일: 2016. 7. 2)

Ⅲ. 보건 사업의 소셜 마케팅 사업기획모델 : INH,C

1. 보건 사업에의 소셜 마케팅 적용

개발 협력계에서는 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소셜 마케팅이 도입되고 있다. 보건은 개인의 행동 변화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업의 결과와 연결되는 분야이다. 또한 사업의 목표 자체가 수혜자 측의 행동과 직결된다. 건강한 상태란 '누군가에게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면서 수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태이다(Ashraf, 2013:120-23).' 보건 사업의 목표는 공급자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위생 관련 행동의 변화는 SDGs의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다.[21]

보건 상황을 분석하는 틀에서도 행동변화의 중요성은 드러난다. '3 Delays Framework'에 따르면 보건 문제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세 가지 지연(Delays), 즉 서비스 제공 지연, 서비스 접근 지연, 인식행동 지연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이 중 인식행동 지연은 수혜자의 행동변화와 관련된다. 보건 사업은 효과 달성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위 세 가지의 지연을 모두 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지연과 서비스 접근 지연을 해결하더라도 수혜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지어주고, 화장실에 가는 길을 만들어주어도, 수혜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림 10〉 3 Delays Framework의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전개도



출처: 저자 작성

21) SDGs 6.2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의 세 가지 지연을 모두 다루는 것은 마케팅의 4P와 연결이 된다. 즉,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의 장애를 파악하기 위한 3 Delays 모델(model)에 마케팅에서 고객에게 이르기까지의 분석의 틀인 4P를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지연은 4P의 제품과 서비스(product)와 연결되고, 서비스 접근 지연은 가격(price)과 유통(place)을 다루는 것과 연관되며, 마지막으로 인식행동 지연은 홍보(promotion)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연관성은 보건 사업에서의 각 지연에 대한 문제를 기존 4P와 관련된 마케팅 기술들로 해결 가능함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해결된다. 서비스 접근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서 차용한 다양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 공통 물류 기지 등의 사례를 차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행동 지연의 해결을 위해서는 마케팅에서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략을 도입할 수 있다.

〈표 5〉 마케팅의 4P와 보건의 3 Delays 모델

4P	의미	3 Delays	의미
Product	제품, 서비스	서비스 제공 지연	수혜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전달
Price	가격	서비스 접근 지연	재정적 비용, 심리적 비용 차감
Place	유통	서비스 접근 지연	물리적 접근성 개선
Promotion	매체, 커뮤니케이션	인식행동 지연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

출처: 저자 작성

보건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접근 지연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식행동 지연을 간과하면 현장에서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수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 구축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수혜자가 사용하지 않아 버려지게 된다. 보건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지연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특히 그동안 간과되어 온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는 기획을 해야 한다.

보건 사업기획에 있어서 소셜 마케팅을 접목하여 세 가지 지연을 모두 해결한 성공적 사례들도 있다. 미국 원조기관인 USAID와 보건 관련 기업 유니레버(Unilever)가 협력한 민관협력 사업이 그러하다. 이 파트너십은 2011년 세계건강협의회(Global Health Council, GHC)의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시작되어 USAID의 민관협력 모델인 글로벌 개발연대(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의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어린이를 5살까지(Help a

Child Reach 5)' 사업은 아이들의 설사병 등의 발병을 줄여 5살 이상의 연령에 안정적으로 이르도록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손을 씻도록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USAID는 보건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유니레버는 구명보트라는 뜻의 라이프부이(Lifebuoy) 비누를 개도국 현지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개발 협력 사업에 민간 기업인 유니레버의 제품과 마케팅 기술이 사용되었다. 아이들이 손을 씻지 않아 설사병이 발병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연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무료나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지역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전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중 인식행동 지연과 관련된 부분은 '손 씻기 행동변화 사업(Lifebuoy Handwashing Behaviour Change Project)'으로 특별히 추진되었다.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비누 브랜드 라이프부이의 사명책임자(Social Mission Director, Myriam Sidibe)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손을 씻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생활습관, 문화, 주거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라고 말했다.[22]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니레버는 마케팅 전문 기업인 오길비 앤 매더(Ogilvy&Mather)와 협력하여 위생을 위한 비누로 브랜딩하고 '다섯 번 학교(School of 5)' 캠페인을 런칭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방문 교육, 캐릭터를 개발하여 손 씻기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손 씻기의 날을 지정하여 이벤트 개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손 씻기 워크숍, 지역사회 내에 보건 관련 헬스클럽 개장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동변화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은 2013년 인도 지역 내 설사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성공한 후, 인도 내에서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른 대륙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USAID는 이 외에도 개도국 주민들의 위생 행태와 관련하여 'Wash Plus'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행동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2) 라이프부이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lifebuoy.com/) (접속일: 2015. 6. 2)

〈그림 11〉 라이프부이 캠페인 이미지



출처: USAID 홈페이지

2. 행동변화의 효과

보건 사업에서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경우, 비용 절감과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연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업은 약물을 투여하는 사업보다 약 1/10의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효과를 거둔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행동변화가 습관으로 정착되면 사업의 효과가 지속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신뢰 자산을 늘려준다.[23]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의 행동이 변화하면 보건 사업의 효과는 배가 된다.

3. 행동변화가 지연되는 이유

위의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분석해보면, 행동변화가 지연되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행동 자체가 지연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23)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apsc.gov.au/publications-and-media/archive/publications-archive/changing-behaviour)
(접속일: 2016. 7. 2)

보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들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System 1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거나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비합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것을 보건 정보 전달과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행동변화가 별개의 과정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인식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식변화 이후에 행동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이 익숙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동변화가 지연된다.

〈박스 1〉 인식 지연의 이유[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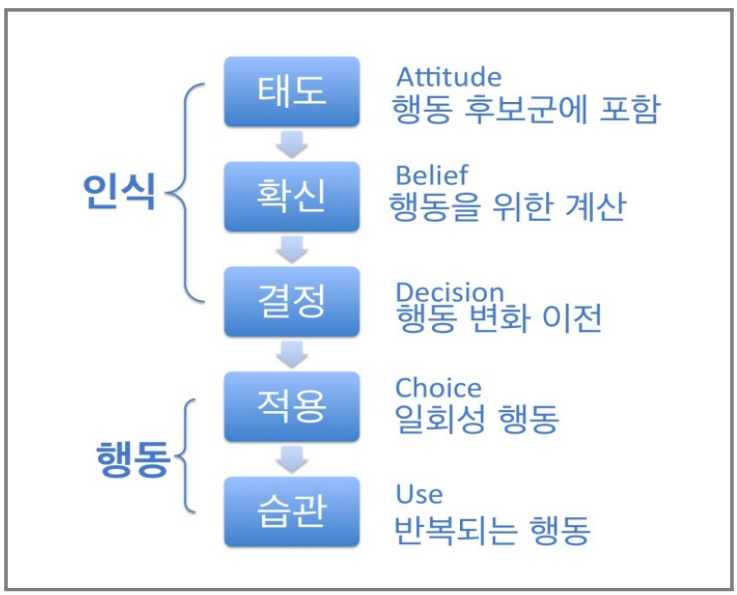
- 즐거움을 포기해야 함(smoking, long showers)
- 습관과 다름(take public transport, hang clothes on the line instead of using a clothes drier)
- 감정적으로 당황스러움(have a colonoscopy, use a condom)
- 집단 문화와 문위기에 맞서야 함(advise a drunk friend not to drive)
- 불편한 뉴스에 직면해야 함(HIV test)
- 새로 학습해야함(composting waste, adopting different farming methods)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 할 유익이 부족함

출처: 호주 정부의 행동변화 자료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마케팅의 소비자 행동변화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어야하고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하며, 이어서 인식 상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인식의 변화를 행동으로 적용시키는 첫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행동이 반복되어야 한다. 보건 사업에서도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의 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수혜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소비자 인식 변화의 과정을 참고해보면, 태도, 확신,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확신이 생기게 한 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적용과 습관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특정 행동을 실천해보고 이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4)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apsc.gov.au/publications-and-media/archive/publications-archive/changing-behaviour)
(접속일: 2016. 7. 2)

〈그림 12〉 행동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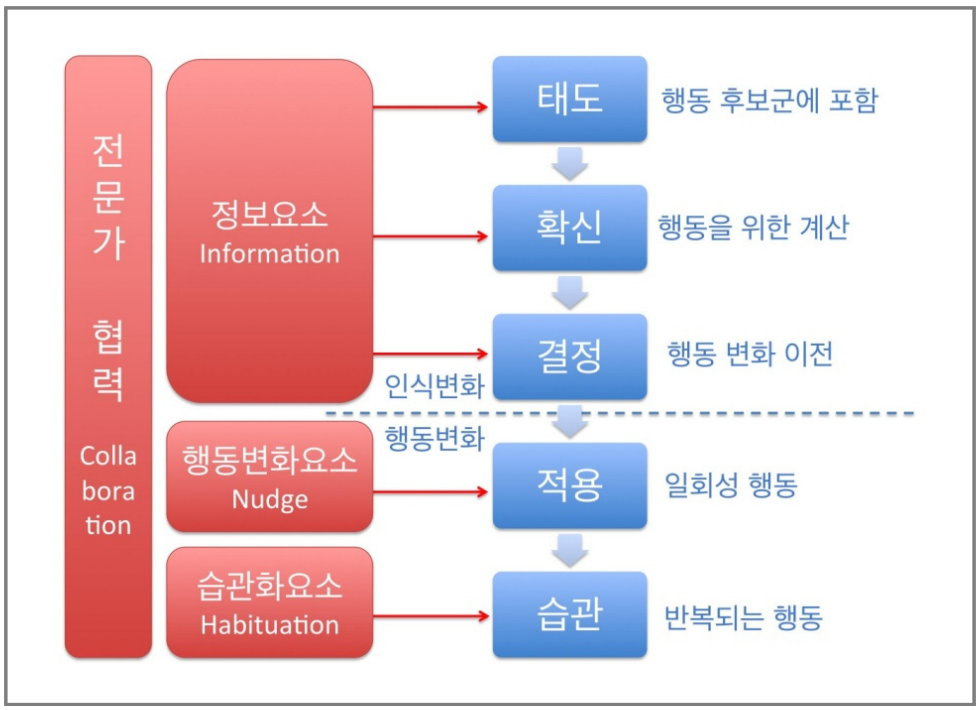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4. 행동변화를 위한 사업기획모델 INH,C

이 과정을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크게 네 가지의 필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둘째로 처음의 행동 시도의 비용을 줄이고 행동변화를 쉽게 하는 특수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해당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각 요소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정보 요소를 통하여서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어서 행동변화 요소와 습관화 요소를 통하여 일회적 행동변화를 유도한 후, 궁극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INH,C 모델로 제안한다.

정보 요소(Information)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과정(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가 특정 행위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진 후 행동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한다. 행동변화 요소(nudge)는 실제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마케팅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습관화 요소(habituation)는 행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과 사회적 규범화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협력(collaboration)은 마케팅과 행동변화 전문가들과의 협력의 요소를 말한다.

〈그림 13〉 INH,C 모델과 행동변화 흐름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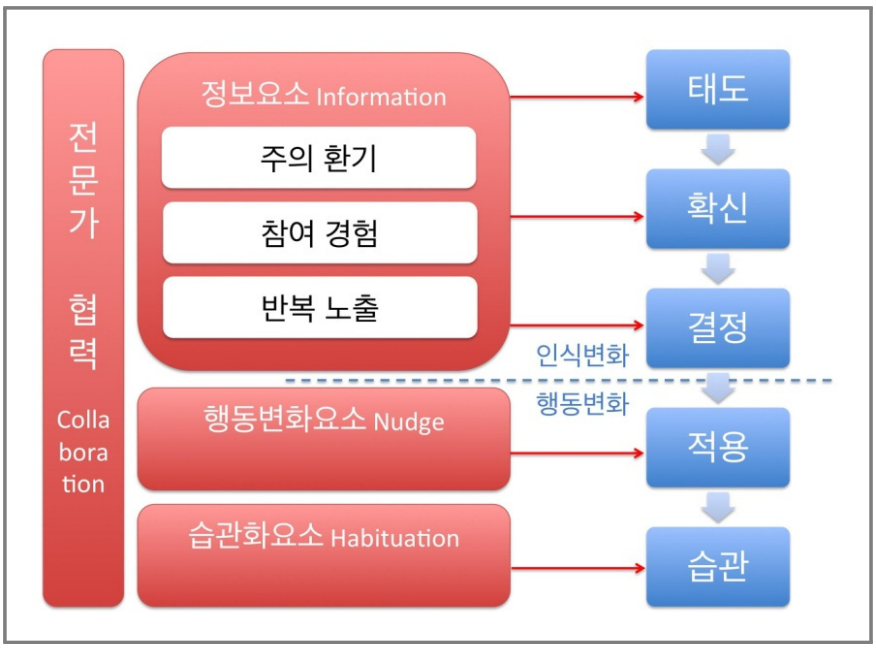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가. 정보 요소

정보 요소는 정보 제공, 교육, 그리고 커뮤니케이션(IEC)을 말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사람들의 습관이 변화할 수 있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즉, 잠재적 사용자의 주의 환기, 참여 경험 제공을 통한 심리적·물리적 장벽 제거, 마지막으로 친숙해지기 위한 반복된 노출 상황 연출이다. 우선, 주의 환기를 통해 해당 정보가 많은 정보 속에서도 잠재적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참여한 경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은 일회성으로 제공된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14〉 INH,C 모델과 행동변화 흐름 연계도(정보 요소)



출처: 저자 작성

1) 주의 환기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 교사의 강의, 기업의 광고 등 다양하다. 모두 정보 제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사람들은 특정 종류의 정보에 반응을 보이고, 특정 형태의 정보를 더 잘 이해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지인의 정보가 전달되면, 사람들은 더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민들은 높은 발병률과 관련 주의 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두암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룰라 대통령이 후두암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상황이 닥치자, 후두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또 다른 예로 개도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사업에서는 활자보다는 그림, 노래, 영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주의 환기 활동의 효과적인 기획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요청된다.

〈그림 15〉 이미지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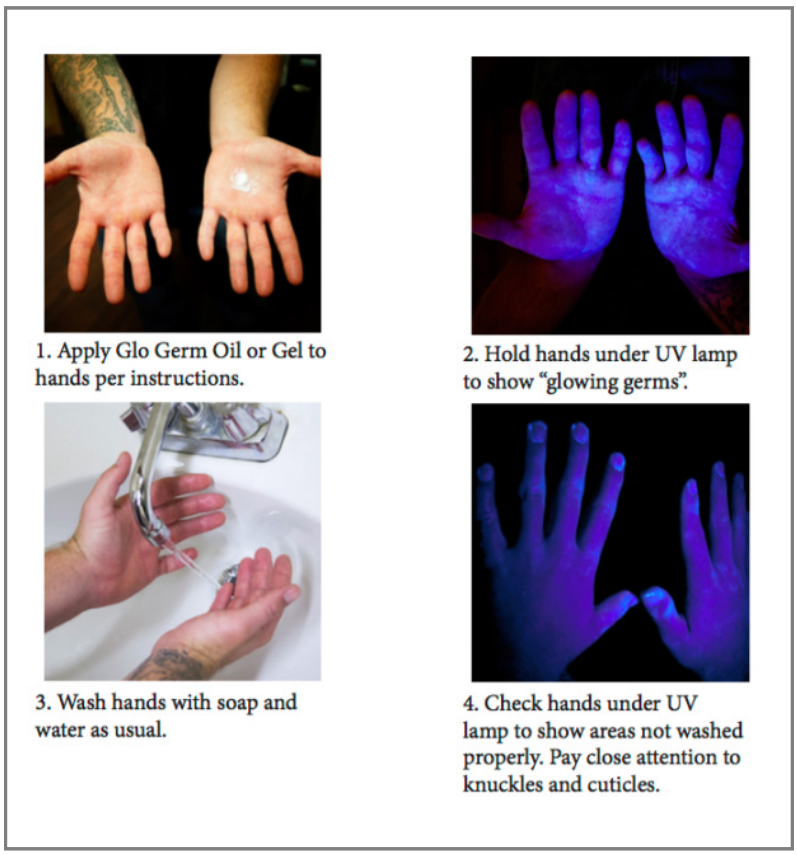
출처: USAID Wash Plus 사업 사례

2) 참여 경험

어떠한 활동에 참여한 체험 경험이 있다면, 정보는 더욱 잘 기억된다. 예를 들어 손을 씻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병균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자.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인 자극이 없기에, 병균에 대한 정보는 피상적으로 느껴지며 금방 잊혀 진다. 병균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거나 느낌이 있지 않으면, 그 후로도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는다. 그러나 병균을 직접적으로 보는 체험을 하면 달라진다. 방글라데시의 보건 사업에서는 간단한 기술을 통하여 손에 있는 병균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주어 효과를 거두었다. 형광물질과 같은 제품을 바르면 손의 병균이 바로 보이게 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통하여 손에 있는 이물질을 보여줌으로써 손의 청결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25] 병균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관찰하면서, 아동들은 자극에 따른 반응 학습(Que-response Learning)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은 뇌에 각인되어서 손을 씻는 동기가 되기와 연결된다.

25) 제품 이름은 글로젬(Glo Germ)이다. (http://www.glogerm.com) (접속일: 2016. 4. 5)

〈그림 16〉 눈으로 손의 병균을 보여주는 제품



출처: 글로점(glo germ) 웹페이지 (http://www.glogerm.com) (접속일: 2016.4.5)

3) 반복 노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미디어 채널(multi-channel)을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매스미디어(라디오, TV, 신문)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들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에서 대표적인 이동 수단인 릭샤에도 광고판을 달아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보급률을 가진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례와 연구가 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때에는 미디어 전문가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미디어 지형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보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개인화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때 너무 잦은 정보 제공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빈도 설정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주기보다는 매주 빈도의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다. 너무 잦은 정보 제공은 일종의

공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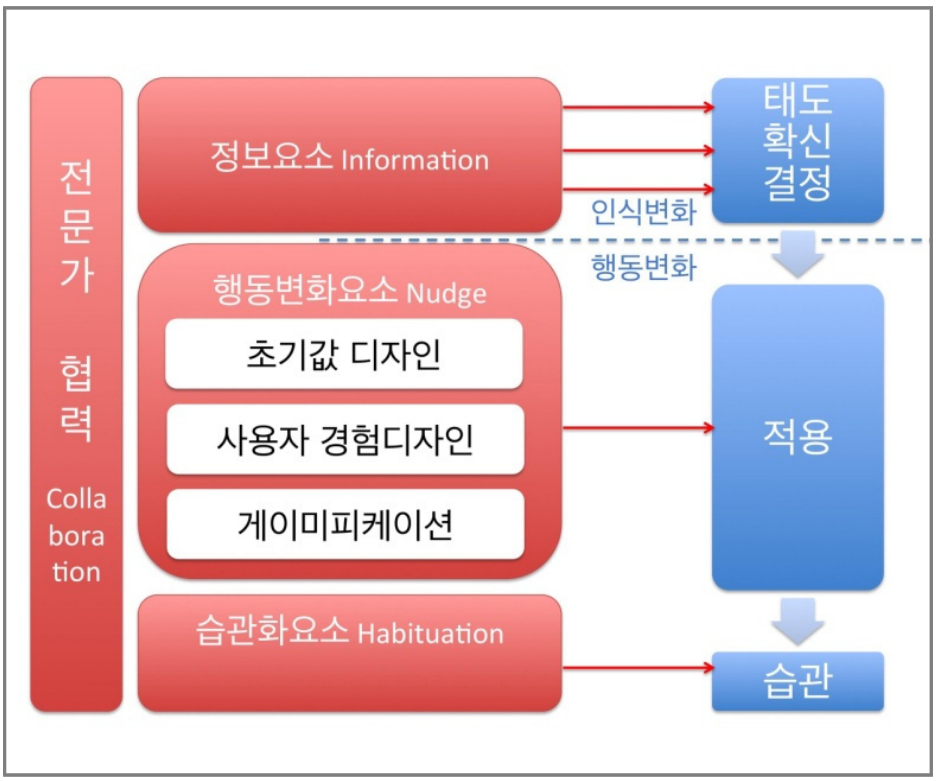
나. 행동변화 요소: 넛지

인식이 변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인식 상에서 선택을 완료하였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첫 번째 행동의 시도에는 많은 장벽이 따른다. 금연을 작정한 수많은 흡연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행동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첫 번째 행동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무료 샘플을 나누어주기도 하고(sampling), 기존 상품에 끼워 넣어 팔아서(bundling) 첫 번째 사용을 유도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첫 번째 행동의 장벽을 낮추는 시도들이다. 공공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소셜 마케팅에서 이러한 논의는 최근 '넛지(nudg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넛지는 "팔꿈치로 찌르다"라는 뜻으로 개인을 강압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의 저서 『넛지』(2009)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26] 넛지는 아주 작은 비용을 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선택의 상황을 설계(Choice Architecture)하는 것이다. 선택의 설계는 어디까지나 수혜자가 계속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27] 여기에는 첫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값(default)을 디자인 하거나, 수혜자의 경험의 관점에서 디자인 요소를 혁신하거나, 수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 요소를 가미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6) 책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규제국의 장으로 임명되어 모든 행정법안의 입안 과정에서 넛지를 도입하였다.
27) 자유주의적 개입(Paternalism)이라 부른다.

〈그림 17〉 INH,C 모델과 행동변화 흐름 연계도(행동변화 요소)



출처: 저자 작성

1) 초기값 디자인

초기값 디자인(smart default)은 선택의 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대부분이 기본 옵션을 선택한다. 이처럼 고객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초기값을 수용한다. 이 경우, 초기값을 조정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에는 별도의 선택을 하는 노력(opt-out)을 부가한다. 이처럼 초기값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초기값 디자인'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 예로 환자의 장기 기부를 초기값으로 두고 선택하게 하는 경우, 장기 기부율이 올라간다. 보건 사업에서도 초기값 디자인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월드(Disney World) 내의 음식점에서는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초기값으로 제공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재료는 따로 추가 주문하도록 한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체계 모델에서 말하는 System 1과도 관련이 있다.

2) 경험 디자인

수혜자의 첫 행동을 위해서는 낯선 경험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마케팅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판매의 대상을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buyer)'이 아닌,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User)'로 재정의하며 이들이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총체적인 경험(User Experience)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업들의 마케팅과 디자인 전략도 기존의 '판매 증진'이 아닌, '사용자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 분야의 대표적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자인 컨설팅 기업인 아이디오(IDEO)이다.

아이디오는 기존 컨설팅 기업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히 고객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디오가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GE)과 진행한 컨설팅의 경우, 아동 환자들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 혁신을 이루었다. 아동 환자들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촬영 과정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거대한 MRI 기계 속에 들어가 깜깜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경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MRI 기계를 해적선 콘셉트로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아이들에게 MRI 검사는 두려움이 아닌 재미있는 경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디자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디오는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류학자, 철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하고, 직접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러한 경험 디자인 방식이 성공을 거두며, 스탠퍼드대학교 내에 별도로 디스쿨(d.school)이라는 경영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경험 디자인 방법론을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디오는 경험 디자인 접근을 개발 협력 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였다. 2011년 설립된 아이디오 오르그(IDEO.org)는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으며, 미국의 원조기관인 USAID와 영국의 원조기관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와 협력하고 있다. 마케팅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수혜자 중심의 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으로 응용하여 해당 기술을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8〉 아이디오의 어린이를 위한 MRI



출처: 아이디오 웹페이지

보건 사업에서 경험 디자인은 수혜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특정 행동에 이르는 과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거나, 유인 요소를 투입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진행한 아동 보건 사업은 아동들의 화장실 사용 경험을 추적하여 유인 요소를 추가했다. 해당 사업이 원래 손 씻기 교육과 시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변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익숙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동들의 경험 과정에서 기억을 돕기 위하여 손 씻기용 물탱크에 손바닥 모양의 표시를 하였다. 또 물탱크에 이르는 동선에 발바닥 자국을 표시했다. 아동들의 관점에서 화장실을 나서면서 발바닥 자국을 따라 물탱크에 이르고, 손을 씻는 것이 기억나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경험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아동들의 손 씻기 비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비용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28]

28) 교육비용($384)의 절반 이하 비용($164)으로 같은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19〉 세이브 더 칠드런 손 씻기 사업 넛지 적용 사례



출처: 동영상 캡처 (http://www.youtube.com/watch?v=yPPapHwSl7s) (접속일: 2016. 5. 3)

또 다른 예로,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생리대를 변기통에 버려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면,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생리대를 드러내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이 문제였다. 인도의 화장실은 휴지통이 별도 개인 공간이 아닌, 변소 밖에 위치해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의 한 사회적 기업은 개인 변소 공간마다 휴지통을 두도록 공간 디자인을 혁신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성 화장실의 고장률이 65% 감소되었다.

3)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또 다른 요소는 게임 요소를 더하는 것이다. 활동에 상을 추가하거나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게임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게임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게임화하여 재미가 더해지면,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시도해보게 된다. 이 또한 마케팅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근래 서울 시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피아노 계단이 그 예이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계단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재미를 느끼는 요소를 접목시키면 사람들이 계단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계단을 밟으면 소리가 나서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느껴지도록 하면, 사람들은 계단을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는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재미 이론(Fun theory)' 캠페인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광고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푸는 캠페인들을 전개하였으며, 칸 광고제의 상을 휩쓸었다.[29]

29) 재미 이론 캠페인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thefuntheory.com/) (접속일: 2015. 6. 2)

개발 협력의 보건 사업에서는 아동들이 배변 후 손을 씻도록 하기 위하여 게임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30] 아동들이 '똥딱지 게임(A poo-tag game)'을 한다. '똥' 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는 '물', '비누'이름표를 단 아이들을 만나야만 보통 아이로 돌아올 수 있다.[31]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배변 후 손을 씻는 것을 재미있게 배운다. 이처럼 게이미피케이션의 재미뿐만 아니라 경쟁 요소들, 즉 랭킹, 배지, 포인트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보건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최근 포켓몬스터를 활용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다. 습관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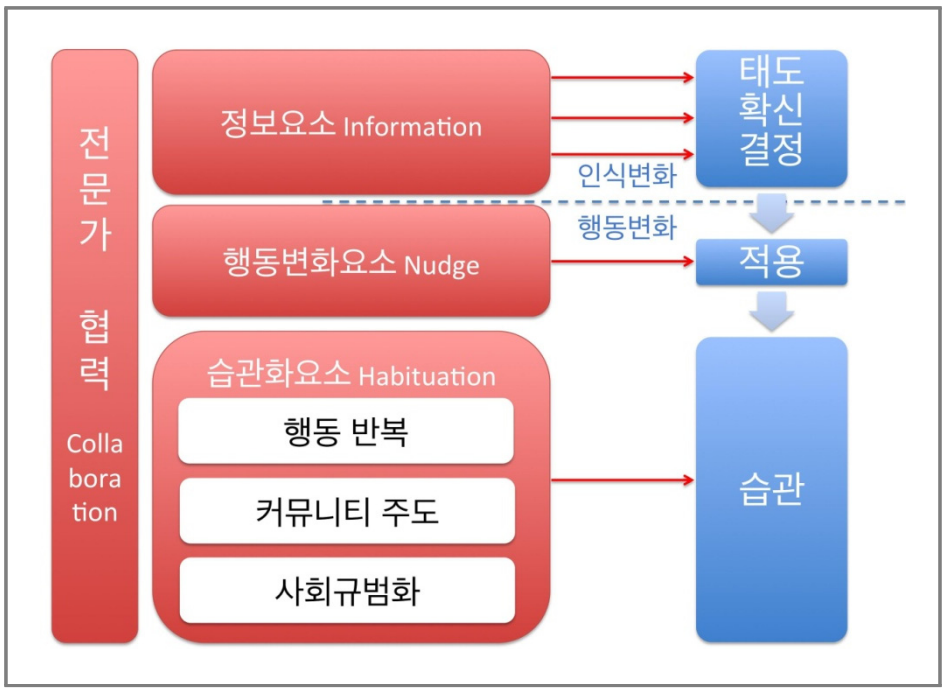
일회성으로 시도된 행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습관화 요소가 필요하다. 마케팅에서는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팬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우선 서비스에 대한 반복 사용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일종의 문화가 자리 잡는다. 성공한 마케팅 사례에서 브랜드가 팬들 사이의 문화 현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습과화를 위해서는 우선 첫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또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사회적 집단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을 고려하여 사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 사업에서 지역 보건요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부분이 이에 상응한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요원들은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규범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회 규범은 추후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한다.

30) SuperAmma Project를 참조하기 바란다.

31) A "poo-tag" game was designed for school classrooms in Andhra Pradesh, India, to enhance the connection between using the toilet (cue) and washing hands with soap and water (response). A child who volunteers to represent "filth" first tags a "normal" child, who must then tag both "soap" and "water" children in order to be clean once again.

〈그림 20〉 INH,C 모델과 행동변화 흐름 연계도(습관화 요소)



출처: 저자 작성

1) 행동 반복

우선 행동변화가 반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혜자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활동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행동이 관찰될 경우, 긍정적 피드백으로 행동을 강화한다. 부정적인 행동이 관찰될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보건 사업의 예로 독일 원조기관인 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가 필리핀에서 진행한 아동 대상 보건 사업인 'The Fit for School program'이 있다. 이 사업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양치와 세수를 하도록 반복 행동을 관찰한다. 선생님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 받은 아이들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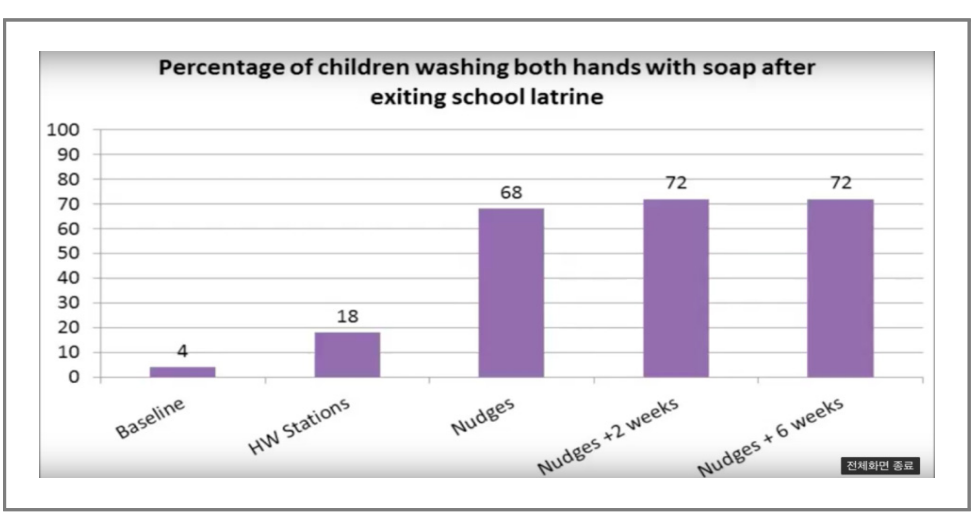
〈그림 21〉 GIZ의 The Fit for School program



출처: GIZ The Fit for School program 홈페이지 (http://www.fitforschool.international) (접속일: 2016. 7. 3)

행동의 반복을 위해 자원 투입이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손 씻기 사업에서는 약 2주간의 행동 반복 이후에는 습관화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2〉 세이브 더 칠드런 사업의 넛지 효과성 측정



출처: 동영상 캡처 (http://www.youtube.com/watch?v=yPPapHwSl7s) (접속일: 2016. 5. 3)

2) 커뮤니티 주도

개인의 행동변화는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는 지속되지 못한다. USAID의 보건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Health Alliance International'의 모바일폰 활용 메시지 프로그램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에 개인 이름이 입력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산모들의 병원 방문율이 올라가며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듯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산모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산모를 둘러싼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습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부가 행동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 활동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접근은 중요하다.[32] 보건 사업에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The SuperAmma Campaign'은 인도에서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대모(super mom)' 역할을 맡은 사람을 지정하였다. 이들을 시골의 존경받는 여성 캐릭터로 묘사하며 지역사회 내 엄마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고 엄마 경연대회'를 열어 시상하는 등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3) 사회 규범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사회 규범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 규범은 천천히 변화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다.[33] 사회에서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점차 큰 단위로 파급효과를 낳는다. 처음에는 해당 행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규범에 따르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규범 및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행동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기부가 '바람직한 활동'으로 홍보되며 이에 대한 사회 내의 많은 지지가 이루어지면 그 팬들 사이에서 기부금이 늘어난다. 연예인 지지층에서 일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도 집단 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하여 결국 기부에 동참한다. 보건 사업에서도 사회 규범화를 통하여 대상 밖 아동들의 행동을 이끌어낸다. 한 예로 손을 잘 씻지 않는 아이는 친구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손 씻는 아이는 인기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 12개월 후 비누 사용률이 30% 증가하였다.

---

32) C-Change DRC Final Report(2015. 6)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c-changeprogram.org/sites/default/files/C-Change-DRC-Final-Report_0.pdf) (접속일: 2016. 4. 11)

33) C-Change DRC Final Report(2015. 6)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c-changeprogram.org/sites/default/files/C-Change-DRC-Final-Report_0.pdf) (접속일: 2016. 4. 11)

라. 전문가 협업

위의 각 사업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들 역시 마케팅,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제공 요소의 활동을 기획할 때에는 캠페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행동변화 요소의 활동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넛지,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 요소의 활동을 기획할 때에는 지역사회 보건요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건 사업의 행동변화 전문 지식과 전문가 그룹이 구축되어 있으며, 활발한 지식 공유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행동변화의 전문 영역이 점차 구체화되며, 새로운 전문가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INH,C 모델 도식화

행동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정보, 행동변화, 습관화 요소들에 속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을 모아 사업기획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모델은 사업기획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 요소, 행동변화 요소, 습관화 요소의 활동에 속하는 예들을 사업기획에 직접 적용해보거나 응용된 형태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에 있어서 사업 요소 중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분석도 가능하다. INH,C 모델의 도식화는 위부터 정보, 행동변화, 습관화 요소를 배치하였고,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와의 협력은 오른쪽에 전 영역에 걸쳐 표시하였다. 이 모델로 KOICA의 보건 사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6〉 INH,C 모델과 사례

요소	구분	활동예시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모든 사업 해당
	참여 경험	글로점(Glo Germ), USAID WASH plus	
	반복 노출	개인화된 모바일 메시지	
행동변화 요소	초기값 디자인	디즈니월드 음식점	
	경험 디자인	손 씻기 넛지(Handwashing Nudges)	
	게이미피케이션	똥딱지 게임(A poo-tag game)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The Fit for School program	
	커뮤니티 주도	The SuperAmma Campaign	
	사회 규범화	The SuperAmma Campaign	

출처: 저자 작성

Ⅳ. INH,C 모델에 기반한 KOICA 보건 사업 사례 분석

1. 분석대상 사업 개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KOICA의 보건 사업을 수원국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사업(프로젝트 사업)과 민간 파트너기관의 기획으로 제안되는 사업(민관협력 사업)으로 나누었다. 수원국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경우 KOICA 직원이 기획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며,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에서 주도로 기획하되 실행협의 단계에서 KOICA 직원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 INH,C 모델을 기반으로 KOICA의 보건 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혜자들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문헌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8개의 유의미한 사업 사례들을 선정하였다.[34] 분류에 따라 수원국 정부 요청사업 3개,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 5개를 선정하였다. 수원국 정부 요청사업으로는 네팔,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사업을 선정하였다.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으로는 탄자니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케냐, 말라위 사업을 선정하였다.

〈박스 2〉 KOICA 보건 사업 분석대상

수원국 정부 요청사업 (KOICA 직원 기획 주도)
1) 네팔 무구 지역 모자보건 환경 개선사업(2013–2018) 2)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 개선사업(2015–2018) 3)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 개선 캠페인 지원사업(2013–2016)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 (KOICA 직원 기획 참여)
1) 탄자니아 지역 보건 인력 활용 모성건강 관리사업(2015–2018): 굿네이버스 2) 방글라데시 가지뿔 지역 시력회복 지원사업(2009–2015): 하트하트재단 3) 르완다 카기나 지역 5세 이하 아동 영양실조 예방사업(2012): 굿네이버스 4) 케냐 주민 식수원 관리 역량 강화(2015): 삼성엔지니어링, 팀앤팀 5) 말라위 실명예방사업(2013–201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연세의료원

출처: 저자 작성

34) KOICA 보건 사업 중, '행동변화,"BCC(Behavior Change Communication)'를 중심으로 적용된 사업을 검색해본 주요 결과이다.

2. KOICA 기획사업 사례 분석

가. 네팔 무구 지역 모자보건 환경 개선사업(2013-2018)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모자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지연, 서비스 접근 지연, 인식행동 지연이라는 3 Delays 모델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로 서비스 제공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며 의료 인력 역량 강화 활동을 한다. 둘째로 서비스 접근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 지역에 떨어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한다.

〈표 7〉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활동	예산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장비 및 물자 지원	75%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아웃리치 클리닉	–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교육, 캠페인, 지역 조직 활성화	3%

출처: 저자 작성

이 중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요소

정보 요소에 있어서는 주의 환기, 참여 경험, 반복 노출의 활동을 한다. 주의 환기를 위하여 모자보건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기본적인 형태의 콘텐츠로 모자보건 정보를 담은 달력, 포스터, 책자를 제작한다. 노출의 방법은 분실 가능성이 큰 배포를 지양하고, 노출도가 높은 장소에 비치한다. 더 진화된 형태의 콘텐츠로 노래, 라디오 방송, 영상 자료를 만들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교육과 캠페인에 활용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실제적 지식을 다루며, 참여할 수 있는 실습과정을 포함한다. 캠페인에서는 주민 인식 증진 및 가정과 마을 공동체에서 모자보건 행동의 변화 도모한다.

참여 경험 활동으로는 모자 보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이는 기존의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교육 대상을 양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기자랑, 놀이, 노래와 춤, 보건 주제로 포스터와 글짓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인식의 변화를 위한 참여 경험을 제공한다.

반복 노출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미디어 지형[35]을 분석한다. 사업 지역 특성 상 라디오 방송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효율적임에 따라, 사업 활동 및 보건교육 메시지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한다. 지역 라디오 방송사와 계약하여 방송 제작(20분 분량, 40회)한다. 방송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하며 관심을 유발한다.

2) 행동변화 요소

행동변화 요소의 측면에서는 경험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 이용자들이 편안하도록 보건시설과 편의시설을 새로 디자인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 지역사회의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3)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을 위한 지역 홍보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우선, 반복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역 홍보원들이 소외 계층 가정, 임신 혹은 수유기의 여성을 방문하여 관찰 및 지도한다. 행동이 현지 상황에 부합하여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긍정적 이탈자[36] 사례를 발굴하여, 마을 상황에 부합하는 행동양식을 전파한다.

지역사회 주도로 행동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부녀회, 기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마을의 보건부녀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홍보원들이 보건부녀회원들을 교육하였고, 매월 부녀회 모임에 참여하여 마을의 보건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또한 마을 단체와 협력하여 보건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보건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 보수 작업에 지역사회 조직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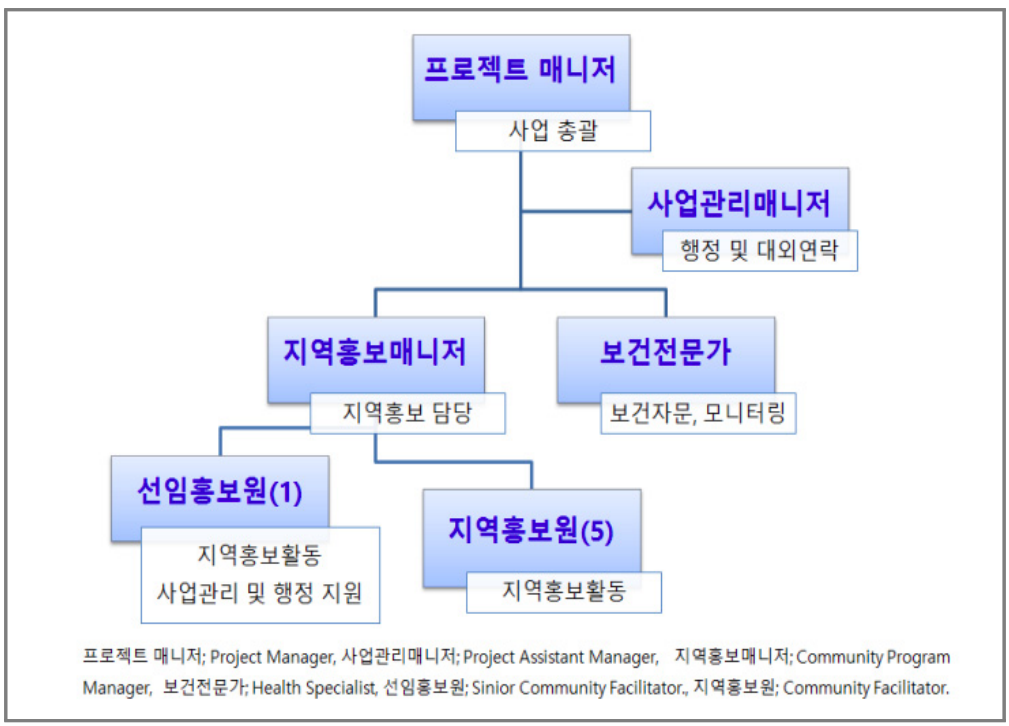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의 규범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력자를 활용한다. 지역의 교사, 이장, 부녀회, 종교지도자 등 영향력을 가진 인사와의 관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과도한 노동부과 등 성과 관련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35) 미디어 매체의 변화에 따른 현지 수용자들의 사용 실태를 일컫는다.
36) 긍정적 이탈자(Positive Diviance)란 지역사회 내에서 대다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 행동으로 인하여 건강한 상태를 지닌 사람을 일컫는다.

4) 전문가 협업

전문가와의 협업은 사업 실행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부분의 인력을 총 7명 배치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홍보매니저의 총괄 하에 선임 홍보원 1명, 지역 홍보원 5명이 포함되었다.

〈그림 23〉 KOICA 기획사업 내 행동변화 전문 인력 구성도



출처: KOICA 기획사업 실행 관련 자료

〈표 8〉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콘텐츠, 노래, 교육, 캠페인	지역 홍보담당 인력 (community facilitator)
	참여 경험	교육, 캠페인, 이벤트	
	반복 노출	라디오 방송	
행동변화 요소	초기값 디자인	–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경험 디자인	보건 편의시설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	–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지역홍보원	
	커뮤니티 주도	지역사회 조직의 사업 참여	
	사회 규범화	지역사회 유력자	

출처: 저자 작성

나.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 개선사업 (2015–2018)

본 사업의 목적은 산모가 집이 아닌 분만시설에 와서 분만하도록 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3 Delays 모델의 모든 부분을 소셜 마케팅으로 다룬다. 우선 산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 분만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다. 서비스 접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시설에 이르는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비용은 없지만, 심리적 비용인 시설 분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식과 행동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시설 분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이끄는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 해결 방향에 따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비스 제공 지연을 해결하기 하여 시설 분만을 위한 인프라와 기자재를 지원하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로 서비스 접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송 수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라디오와 휴대폰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표 9〉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활동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시설 분만을 위해 보건소에 내소했을 때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인프라 구축, 인력 역량 강화, 의료 기자재 지원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재정적 가격: 무료 유지 심리적 가격: 시설 분만의 장점, 가정 분만의 단점 부각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물리적 접근성 개선	후송 수단 지원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시설 분만에 대한 인식 및 행동변화 유도 홍보활동	라디오/휴대폰 홍보, 교육, 주민 동원

출처: 저자 작성

이 중, 모성보건 서비스 이용 결정 지연을 극복과 인식 개선 및 행동변화를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요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우선, 수혜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메시지는 의료시설의 안전함과 깨끗함, 전통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강조하였다.[37] 형태는 지역사회의 문맹률(54%)이 높은 것을 감안, 활자 중심이 아닌 그림 위주로 제작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한다. 또한 홍보 자료가 버려지지 않고, 장기간 보관되도록 하기 위하여 달력이나 돗자리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제작한다.

반복 노출을 위하여 사업 브랜드를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활용한다. 미디어 지형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보급률이 90%에 이르러, 개인 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진행한다. 매스미디어의 경우 라디오 보급률은 10%에 불과하고, TV의 경우 상영할 수 있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고 장비가 부족하며, 전기가 없거나 전파 수신 사정 등 환경이 열악하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지양한다. 대신, 지역사회의 미니 미디어를 활용한다. 기존의 소식지, 차로 돌면서 하는 확성기 방송, 교회 모임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옥외 광고판을 활용하였다.

2) 행동변화 요소

행동변화를 위하여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경험 디자인을 위하여 보건소에 전통과 관습이 반영된 공간을 만든다.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반영하여 임산부가 출산 전부터 가족과 함께 대기하고, 출산 후에는 함께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였다.

3) 습관화 요소

습관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역 내 보건 분야 종사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사회 규범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남성과 청소년 대상 교육에 역점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도자, 종교 기관 등의 협조를 받는다.

37) 1차 메시지-전통과 연계(예: “전통을 의료시설로 옮겨왔다”, “산파가 인정하는 모성 홈”); 2차 메시지-모성 홈 이용자가 어느 정도 생긴 후에는 확산과 규범 메시지(예: “네 이웃도 이미 다녀왔다”).

4) 협업

사업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내 보건 행동변화 전문가와 전문 기업과 협업한다. 국내에는 보건 사업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과 전문가 집단이 소수로 존재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협업한다.[38] 사업 실행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내의 보건 관리원들과 협업한다.

〈표 10〉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콘텐츠 제작	전문가 참여
	참여 경험	–	
	반복 노출	사업 브랜드, 문자, 매스미디어 홍보	
행동변화 요소	초기값 디자인	–	
	경험 디자인	지역문화를 반영한 공간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	–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	
	커뮤니티 주도	지역 보건종사자	
	사회 규범화	대인미디어	

출처: 저자 작성

다.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 개선 캠페인 지원 사업 (2013–2016)

본 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 가정들의 가족계획 실천율 제고 및 성생식 보건 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근, 인식행동의 세 가지 지연을 해결한다. 본 사업은 이 중에서도 인식행동 지연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비스 제공 지연의 경우 정부의 정책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나, 사업의 초점이 아니므로 적은 예산만을 투입한다. 서비스 접근 지연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 보건 인력을 파견한다. 인식행동 지연 해결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를 이용한 전파를 통하여 생식보건 캠페인을 진행한다.

38) 해당 사업에는 (주)카멜웰드와이드 김상욱, 홍보전문가 조봉균, 보건사회마케팅전문가 김광기,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백혜진 한양대학교 교수, 지역 보건 사업 전문가 허목 등이 참여했다.

〈표 11〉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예산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정책 역량 강화	5%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지역사회 보건요원	30%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생식보건 캠페인 활동	40%

출처: 저자 작성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생식보건 캠페인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요소

우선, 주의 환기를 위하여 메시지를 정교하게 개발한다. 지역사회에서 출산에 있어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식의 메시지는 배제한다. 또한 출산은 신의 선물이라는 주민들의 인식과 종교를 주요 원인으로 한, 산아 제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교한 메시지를 개발한다.

반복적 정보 노출을 위해서는 사업에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 명(Small Happy and Prosperous in Ethiopia, SHaPE)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노출한다. 현지 미디어 지형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이 신문에 대한 노출도는 낮고 라디오 및 TV 보유도는 80% 이상으로 높아, 이 두 매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2) 행동변화 요소

초기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별도의 활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습관화 요소

습관화를 위하여 지역사회가 사업을 주도한다.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중시하여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4) 협업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홍보전문가와 협업하였다[39].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는 에티오피아 현지 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한다.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보건 관련 대학이 수행하게 되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제작기관을 입찰 방식으로 뽑는다. 이때, 한국 홍보전문가를 파견하여 라디오/멀티미디어 제작업체 현지 입찰 자문과 프로그램 품질관리, 프로그램 제작과정 모니터링, 현지 제작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현지 기관과 한국 전문가 간의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

〈표 12〉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적절한 메시지 개발	홍보전문가,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참여 경험	–	
	반복 노출	라디오 드라마, 사업 브랜드	
행동변화 요소	초기값 디자인	–	
	경험 디자인	–	
	게이미피케이션	–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	
	커뮤니티 주도	대인 커뮤니케이션	
	사회 규범화	–	

출처: 저자 작성

3.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 사례 분석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은 NGO나 기업이 기획하고 실행하되 재원의 일정 부분을 KOICA가 분담하므로, 해당 과정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다.

39) 해당 사업에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참여했다.

가. 탄자니아 지역 보건 인력 활용 모성건강 관리사업 (2015-2018): 굿네이버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활용한 본 사업은 굿네이버스에 의하여 기획되고 실행된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모성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근, 인식행동 지연의 문제를 해결한다. 서비스 제공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자재와 자원을 제공하며, 보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실행한다. 서비스 접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 인력을 통하여 소외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표 13〉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소 기자재 지원, 의료약품 지원, 역량 강화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커뮤니티 헬스 워커 양성 및 활동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지역주민 인식 개선

출처: 저자 작성

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인식이 모성 보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권한, 일부다처제 문화 등이 문제이다. 보건과 관련하여 보건 시설에 대한 인식, 모자 보건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정보 요소

주민들이 바람직한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포토보이스(Photo Voice)[40] 활동을 하였다. 주민들이 보건 관련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40) 포토보이스(Photo Voice)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 과정에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촬영된 각자의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가 가능하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해당 활동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는 "포토보이스에 참가하기 이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여자들의 존재 이유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포토보이스를 하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부터 내 와이프를 챙길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널리 얘기하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2) 행동변화 요소

첫 번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습관화 요소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당 행동이 안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보건요원은 지역사회 보건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며, 행동변화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표 14〉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	–
	참여 경험	포토보이스	
	반복 노출	–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	
	커뮤니티 주도	지역 보건 인력 활용	
	사회 규범화	–	

출처: 저자 작성

나. 방글라데시 가지뿔 지역 시력회복 지원사업(2009–2015): 하트하트재단

본 사업은 안보건 분야 전문 NGO인 하트하트재단에 의하여 기획되고 실행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안과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실명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KOICA와 민관협력 사업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세 가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한다. 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안과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과 분야 준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보건 인력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하여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서비스 접근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동 진료를 수행한다. 이동 진료는 공공 보건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이동 진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 중에 환자를 찾아내 무료로 수술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식행동 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표 15〉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인프라 확충, 안과 수술 및 치료 실시, 보건 인력 역량 강화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지역사회 아웃리치 이동진료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초등학교 실명 예방교육, 비타민보급

출처: 저자 작성

이 사업은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중, 초기 단계의 활동을 실행하였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습관화하는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의 환기를 위하여 실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손 씻기, 눈 건강을 위한 운동 등을 직접 실습하는 활동도 수반한다. 지역사회 내의 기존 안보건 관련 행사인 세계 눈의 날(World Sight Day)[41]과 연대하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안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한다. 정보의 반복적인 노출을 위해 포스터, 리플릿, 라디오 광고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본 사업의 주체인 하트하트재단은 자체 평가에서 이러한 인식과 행동변화를 위한 활동은 실질적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42], 향후 사업기획에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보건 사업에서 인식과 행동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각 기관마다 입장 차이가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즉각적 효과가 드러나고 사업 활동이 난해하지 않은 것을 택하게 된다.

41) 세계 눈의 날(World Sight Day)은 매년 10월 8일 개최된다.
42) '안보건 예방 활동'은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성이 있어 향후 사업 구성 요소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다.

〈표 16〉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예시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교육	없음
	참여 경험	참여형 교육, 이벤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비타민 보급	
	반복 노출	포스터, 리플릿, 라디오 광고	

출처: 저자 작성

다. 르완다 카기나 지역 5세 이하 아동 영양실조 예방사업(2012): 굿네이버스

이 사업은 굿네이버스가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지원하였다. 인식행동 부분에서는 사업 대상을 어머니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어머니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하였다. 장기적으로 모자 보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어머니들이 각 가정 내에서 아동 영양 관리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7〉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예산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영양식 지원	63%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	–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어머니 교육, 캠페인 활동	3%

출처: 저자 작성

라. 케냐 주민 식수원 관리 역량 강화(2015): 삼성엔지니어링, 팀앤팀

이 사업은 기업과 NGO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 사업은 식수 문제 해결을 목표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을에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식수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인식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손 씻기 도구(Bucket Tap 및 비누)를 제작하고 보급하여 사용을 교육하였다.

〈표 18〉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교육

출처: 저자 작성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활동을 하였다.

1) 정보 요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보건 관련 메시지를 개발하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학생들에게 친근한 아이템들을 매체로 활용한다. 그림으로 만든 메시지로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티셔츠, 모자 등을 제작하여 나누어주는 것이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손 씻기 도구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양동이 세척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 행동변화 요소

별도의 행동변화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3) 습관화 요소

지역사회 중심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의 개선 활동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또한 우물 개발 과정에도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우물은 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높아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낫다.

〈표 19〉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구체적 활동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	전문가
	참여 경험	참여형 이벤트	
	반복 노출	사업 브랜드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	
	커뮤니티 주도	주민들 설치 참여	
	사회 규범화	–	

출처: 저자 작성

마. 아프리카 말라위 실명예방사업(2013–201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연세의료원

본 사업의 목적은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률 감소와 트라코마 수술 적체율 해소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보건 시설을 지원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였다. 서비스 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동형 실명예방센터를 만들어 소외된 지역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식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표 20〉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안보건 시설 지원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지역 아웃리치 프로그램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캠페인 활동

출처: 저자 작성

1) 정보 요소

주의 환기를 위해서 보건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손 씻기 및 세안의 중요성, 시력검사의 중요성, 안질환 예방법, 안보건의 중요성, 안질환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참여 경험을 위해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다. 대상자에게 매회 안질환 관련 특정 주제와 카메라를

1대씩 제공하여 주제와 연관된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촬영된 사진 결과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포토보이스 결과물은 주민참여형 안보건 인식 개선 행사 기간 동안 연간 1회 전시한다. 학부모들이 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벤트로 주민참여형 안보건 인식 개선 행사 개최한다. 세계 눈의 날 행사를 포함하여 주민참여형 안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주민들이 안보건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포토보이스 결과물을 전시하게 한다. 반복 노출을 위하여 아웃리치 팀의 수술 관련 전반적인 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보여준다.

2) 습관화 요소

주민들에게 백내장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고 지역사회 내에 안착되기가 어렵다.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문이 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지인들이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활동을 한다. 매체는 일대일의 구전이 아닌, 전파력 확대가 가능한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로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다.[43] 커뮤니티 주도를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활용한다.

〈표 21〉 INH,C 모델 사업기획 적용

요소	구분	예시	협력
정보 요소	주의 환기	교육	–
	참여 경험	포토보이스, 이벤트	
	반복 노출	모바일 기기 활용	
습관화 요소	행동 반복	–	
	커뮤니티 주도	지역 조직 활용	
	사회 규범화	지인의 경험담	

출처: 저자 작성

43) 'Peer for Fear'전략이라 한다.

Ⅴ. 분석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가. 통계 분석

위에서 KOICA 보건 사업 중 행동변화와 관련 있는 총 8개 사업을 분석하여, 사업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소, 행동변화 요소, 습관화 요소, 협력 요소를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정보 요소에 포함되는 활동은 8개 사업, 습관화 요소에 속하는 활동은 6개 사업이 포함하여 비교적 잘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동변화 요소를 포함한 경우는 단 2개 사업에 그쳤다. 이는 정부 요청사업과 민간 파트너 주도 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더욱 분명해진다. KOICA 주도 기획사업 3개 중 2개 사업이 행동변화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에 바탕을 둔 사업 5개의 경우, 행동변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없었다. 습관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2개에 그쳐 민간 파트너 주도의 사업기획은 정보 요소 제공에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대상 KOICA 보건 사업 분석 결과

구분	해당 요소가 포함된 사업 개수				
	총계	정보 요소 I	행동변화 요소 N	습관화 요소 H	협력 요소 C
전체	8	8	2	6	5
정부요청	3	3	2	3	3
민간파트너 기획	5	5	0	2	2

출처: 저자 작성

나. 기획 주체에 따른 분석

정보 요소의 경우, 보건 사업에서 전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이다. 반면 행동변화 요소와 습관화 요소는 최근에 강조되어 온 부분들이다. 습관화 요소는 보건 사업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대두되었고, 행동변화 요소는 최근 소셜 마케팅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정부 요청사업의 경우,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에 비하여 비교적 전통적인 요소와 비전통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한 편이다. 이는 KOICA 직원의 사업기획 시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파트너 기획사업의 경우, 정보 요소를 제외하고 행동변화, 습관화, 협업 요소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NGO와 기업은 전통적 방식의 정보전달 사업을 반복 혹은 고도화시키는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민간 파트너는 최근에 등장한 소셜 마케팅의 개념과 사례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둘째로 소셜 마케팅을 알더라도 새로운 기획보다는 기존 사업의 기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파트너 사업은 KOICA에 의해 선발되어 예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규 기획보다는 기존에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사업모델을 지역적으로 확장하거나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제한된 예산 조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전문 인력과의 협업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파트너 기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대부분 기관 내부 인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KOICA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은 곧 제한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INH,C 사업기획모델 활용 방안

위의 통계 분석과 기획주체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INH,C 사업기획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가. 행동변화를 최종 성과 지표로 설정

보건 사업에서 수혜자들의 행동변화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보건 사업의 목표에 행동변화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 지표 설정 시에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의 성과를 공급과 투입 중심으로 보거나, 일률적으로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업 결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행동변화를 측정하는 방식 역시 표준화된 설문지에서 고도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나. 사업기획에 소셜 마케팅 도입

보건 사업기획 시, 수혜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각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과 자원 투입 등의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수혜자의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옮기려면 소셜 마케팅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마케팅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행동변화 요소 기획

행동변화 요소인 넛지는 아직 사업기획에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기획자들이 교육과 같은 기존 보건 사업에서 충분히 다루어 온 활동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넛지에 대해서는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초기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활동이 필요하다. 사업기획자들이 행동변화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영할 때, 효과적인 사업이 기획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라. 습관화 요소 기획

지역사회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획에 반영할 때, 지역사회에 보건 관련 문화가 안착하고 습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토보이스 활동을 확대 적용하여서도 지역사회에 특정 행동이 자리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 지식 및 성공사례 공유

우선 해외 우수사례들에 대하여 학습과 적용을 시작할 수 있다. 선진국 공공영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 사례 자료들과 툴킷들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USAID의 지원을 받아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에서 개발한 보건 분야 행동변화를 위한 연구 결과물들이 웹사이트[44]에 공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KOICA 보건 사업 중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여 큰 효과를 얻은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파트너 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KOICA가 해야 한다.[45]

바. 공동 사업기획 및 협업

사업기획 시 KOICA가 참여하는 범위에서 해당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경험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프로그래머 등 기존의 파트너가 아닌 전문가들과 더욱 활발하게 협업해야 한다.[46] 또한 개발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 그룹들과

---

44) Health Communication Capacity Collaborative(HC3)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healthcommcapacity.org/) (접속일: 2016. 11. 30)

45) 이 외에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플랜코리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필리핀, 인도네시아 세이프스쿨 지원, 2015-2017)의 경우 스마트폰 게임 앱을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급하였다.

46) 현재 해당 분야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학계에는 보건 분야 커뮤니케이션 관련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있으며, 대학별로는 서강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내에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조직이 있다. 기업으로는 엔자임헬스 등 보건 커뮤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것도 KOICA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기업들의 소셜 마케팅 전문 인력들과 협업할 수 있다.[47] 국내의 전문가들은 주로 국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해왔으나, 이를 개도국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번잡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줄을 서게 만든 프로젝트는 개도국에서도 필요한 상황에 적용 및 시도가 가능하다.

〈그림 24〉 선을 그어서 줄을 서게 만든 넛지 사례



출처: 이종혁 교수의 공공소통 프로젝트 LOUD 블로그 (http://loud.tistory.com/) (접속일: 2016. 9. 9)

3. INH,C 모델의 확장 가능성

가. 실행단계에서 적용

사업기획 단계에서 행동변화 요소와 구체적 활동을 기획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실행 단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구축되는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기획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반영하여 추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추가 노력은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장 진행 중인 사업에 현지에서 널리 사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을 홍보하

니케이션 전문 기업이 있다.

47) 마케팅 회사의 소셜 마케팅 전문 부서, 소셜 마케팅 전문기업, 대학교 소셜 마케팅 연구소 등이 있다.

여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KOICA가 남수단에서 진행한 보건 사업[48]에서는 현장 KOICA 직원의 아이디어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라디오 방송국과 협력해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다.

나. 타분야 사업에 적용

INH,C 모델은 보건 분야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개발 협력 사업에서 주민들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내용의 사업들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49] 실제로 인권 및 젠더 관련 사업인 경우에도 소셜 마케팅 방법론이 적용되어 행동변화를 위한 활동들이 진행된다.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지원모델 구축사업'은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인식행동의 지연을 해결한다.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한다. 즉, 여성 폭력 관련 센터를 구축하고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다. 인식행동 지연의 해결을 위하여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적절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미디어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미디어를 활용한다.

〈표 23〉 4P와 3 Delays에 따른 사업 분석

4P	3 Delays	해결 방향	예산
Product	서비스 제공 지연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72%
Price	서비스 접근 지연		
Place	서비스 접근 지연		
Promotion	인식행동 지연	교육, 공익광고, 캠페인	20%

출처: 저자 작성

48) 남수단 주혈흡충증 2차 퇴치사업(2011-2013)이다.
49) 주민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하는 것을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라고 한다. C4D는 소셜 마케팅보다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소셜 마케팅은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법론의 활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4P 전략 등을 일컫기 때문이다.

Ⅳ. 결론

보건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 수혜자들의 실제적인 행동변화는 중요하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변화가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다. 본래 개발사업이 기반하고 있는 전통경제학은 인간의 행동변화를 적실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새로 등장한 행동경제학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행동변화를 개인의 심리 및 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한다. 행동경제학은 시장영역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는 마케팅이 본래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변화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공공영역에서도 전통경제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사업 대신 행동경제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사업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 또한 등장하고 있다. 공공영역에 마케팅 방법론을 적용한 것을 소셜 마케팅이라 한다. 소셜 마케팅은 국제개발 사업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특히 보건 사업에 있어서 그 사례들이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 사업에서 소셜 마케팅이 적용되어 개인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로 개인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정보 요소라 부르고,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주의 환기, 참여 경험, 반복 노출을 뽑았다. 둘째로,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를 행동변화 요소라 부르고, 대표적인 활동으로 초기값 디자인, 경험 디자인, 게이미피케이션을 뽑았다. 셋째로, 처음 시도된 행동을 습관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습관화 요소라 부르고, 대표적인 활동으로 행동 반복, 커뮤니티 주도, 사회 규범화를 꼽았다. 이를 모아 INH,C 모델을 도출하였다.

INH,C 모델을 바탕으로 KOICA 보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소 중 행동변화 요소 도입이 부족하였다. 이는 KOICA 직원 기획의 경우보다 민간 파트너의 경우 두드러졌다. 행동변화 요소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우선 수혜자들의 행동변화를 사업의 중요한 성과 지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기획에 있어서 소셜 마케팅을 도입하여 행동변화 요소와 습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실행단계에 있어서도 해당 요소들을 시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기획 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INH,C 모델은 다른 분야의 사업기획 시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기현. 2014.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들: 민중의 지팡이로 쿡쿡 찌르다-넛지를 통한 범죄 예방, 마!라이트”. 『제일기획 사보』 2014년 12월호. 서울: 제일기획.

_____. 2015.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조직. 『제일기획 사보』 2015년 3월호. 서울: 제일기획.

배너지, 아비지트(Banerjee, Abhijit)·뒤플로, 에스테르(Duflo, Esther). 2012.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이순희 역. 서울: 생각연구소.

이스털리, 윌리엄(Easterly, William R.). 2011. 『세계의 절반 구하기』. 황규득 역. 서울: 미지북스.

이진용. 2010. “소비자행동 관련 분야의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연구동향 고찰: 2000-2009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2호:193-236.

탈러, 리처드(Thaler, Richard H.)·선스타인, 캐스(Sunstein, Cass R.). 2009. 『넛지』. 안진환 역. 서울: 리더스북.

코틀러, 필립(Kotler, Philip). 2007. 『필립 코틀러의 퍼블릭 마케팅』. 이진원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Andreasen, Alan R. 1994. “Social Marketing: Its Definition and Domain.”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vol.13.

Axsom, Danny and Yates, Suzanne and Chaiken, Shelly. 1987. “Audience response as a heuristic cue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1):30-40.

Brazg, Tracy, Betty Bekemeier, Clarence Spigner, and Colleen E. Huebner. 2011. “Our Community in Focus: The use of Photovoice for Youth-Driven Substance Abuse Assessment and Health Promotion.” *Health Promotion Practice* vol.12(4).

Chaiken, Shelly.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5).

Fang Wan and Namita Bhatnagar. 2011. “Which Rejection Makes Brand Yearning Stronger? the Impact of Consumer Exclusion, Brand Exclusion, and Ego-Defensive Goals on Brand Evaluat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39.

Chaiken. 2013. “Impact of community awareness campaigns on protective behavior: Responding to threats when the earth tremble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Fall 2013, vol.32.

Jolls, Christine and Sunstein, Cass R., and Thaler, Richard. 1998. "A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 1765.

Kramer, Leila, Pamela Schwartz, Allen Cheadle, J. Elaine Bortho, and Merrick Wright. 2010. “Promoting Policy and Environmental Change Using Photovoice in the Kaiser Permanent Community Health Initiative.” *Health Promotion Practice* vol.11(3).

N. Craig Smith, Daniel G. Goldstein, and Eric J. Johnson. 2013. “Choice Without Awareness: Eth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Default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Fall 2013.* vol.32.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Thaler, Richard H., and Sunstein, Cass R. 2008. “Metric and Scale Design as Choice Architecture Tool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Spring 2014, vol.33.

Shintaro Okazaki, Amadeo Benavent-Climent, Angeles Navarro, and Jrg Henseler. 2015. “Responses When the Earth Trembles: The Impact of Community Awareness Campaigns on Protective Behavior.”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Spring 2015. vol.34.

Nancy R. Lee, and Philip Kotler. 2015. *Social Marketing: Changing Behaviors for Good.* New York: SAGE Publications.

Nava Ashraf. 2013. “How behavioral economics is promoting better health around the world",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2013.

글로점(glo germ) 홈페이지: http://www.glogerm.com (접속일: 2016년 4월 5일)

라이프부이(lifebuoy) 홈페이지: http://www.lifebuoy.com/ (접속일: 2015년 6월 2일)

런던대학교(UCL) 행동변화 센터 홈페이지:
http://www.ucl.ac.uk/behaviour-change (접속일: 2016년 11월 30일)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en/publication/wdr2015 (접속일: 2016년 7월 2일)
세이브 더 칠드런 손 씻기 사업 넛지 적용 사례:
http://www.youtube.com/watch?v=yPPapHwSI7s (접속일: 2016.5.3)
유니레버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sustainable-living/sustainable-living-news/news/The-power-of-collective-action-and-the-need-for-more.html (접속일: 2015년 6월 2일)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psc.gov.au/publications-and-media/archive/publications-archive/changing-behaviour (접속일: 2016년 7월 2일)
Health Communication Capacity Collaborative(HC3) 홈페이지:
http://healthcommcapacity.org/ (접속일 : 2016년 11월 30일)
Health Communication Capacity Collaborative 커뮤니케이션 전략 웹페이지:
https://sbccimplementationkits.org/courses/designing-a-social-and-behavior-change-communication-strategy/ (접속일: 2016년 11월 30일)
LOUD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loud.tistory.com (접속일: 2016년 9월 9일)
SAFETY LAB AND BLIKKIESDORP 4 HOPE 소개 페이지: http://blog.bigantacademy.org (접속일: 2016년 3월 26일)
Sure wash 홈페이지: http://www.surewash.com (접속일 : 2016년 6월 3일)
The FIt for School Progam 홈페이지: http://www.fitforschool.international (접속일: 2016년 7월 3일)
The SuperAmma Campaign 홈페이지: http://www.superamma.org(접속일: 2016년 7월 2일)
The SuperAmma Campaign School game 홈페이지: http://www.superamma.org/School-Game.html (접속일: 2016년 7월 5일)
Tools of Change 홈페이지: http://www.toolsofchange.com (접속일: 2016년 7월 2일)
Taylor & Francis Online: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810730.2014.933288(접속일: 2016년 7월 2일)

USAID 행동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아프가니스탄):https://www.usaid.gov/news-information/fact-sheets/communication-behavior-change-expanding-access-private-sector-health (접속일: 2016년 7월 2일)

C-Change DRC Final Report: https://www.c-changeprogram.org/sites/default/files/C-Change-DRC-Final-Report_0.pdf (접속일: 2016년 4월 11일)

Communication for Change: https://c-changeprogram.org/sites/default/files/SBCC%20Theory%20PowerPoint_August%202011.pdf (접속일: 2016년 11월 3일)

C-Modules: A Learning Packge for Social and 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SBCC):https://www.c-changeprogram.org/sites/default/files/sbcc_module0_intro.pdf (접속일 : 2016년 9월 7일)

The Fit for School Program 홈페이지: http://www.fitforschool.ph/ (접속일 : 2016년 7월 3일)

재미 이론 홈페이지: http://www.thefuntheory.com (접속일 : 2015년 6월 2일)

III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2. KOICA ODA도서관 2017년도 학술DB 목록
3. KOICA 2016년 12월 ~ 2017년 3월 발간물 목록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을 수집·정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ODA도서관은 개가제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 하시며 자료보유현황 및 열람시간,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자료검색, 자료 이용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보유 현황(2017년 4월 현재)

-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보고서 : 9,681권
- 국내/국외 학술DB : 9종
  ※ 구독목록은 'KOICA ODA도서관 2017년도 학술DB(국내/국외) 구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 35,533권
- 비도서자료 : 1,642점

2. 자료 열람시간

구분	시간	비고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3.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 직원 : 열람, 대출, 복사 가능
- 외부이용자 : 열람, 복사 가능
  (단,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원문 공개파일은 외부이용자 모두 열람 및 출력 가능)

4. 자료 검색

-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ODA도서관
- KOICA ODA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

5. 자료 이용문의

- 전화 : 031-7400-950, 951
- 이메일 : library@koica.go.kr

KOICA ODA도서관 2017년도 학술DB 목록

'학술DB 통합검색'은 ODA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DB' 부분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번호	DB명		내용	비고
1	KISS 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 (KISS)	국내 학회지, 학위논문 원문검색시스템으로 1,327개 학술기관의 학술지 및 논문 3,279여종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2	DBpia	누리미디어 (DBpia)	국내 학회, 협회 및 출판사 36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946여종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3	KYOBO 교보문고 | SCHOLAR 스콜라	교보문고 (스콜라)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 DB로 418개 학회, 학술지 622여종 원문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4	JSTOR	JSTOR	주요 학술저널의 현재 및 과거자료에 대한 Archive 원문 자료 구독으로 2,000여종의 인문사회학 분야의 학술저널을 17세기 data까지 Archive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5	EBSCO HOST	ASC (Academic Search Complete)	가장 광범위한 다 학문분야(Multi-Disciplinary) Full text 데이터베이스로 13,800여 종의 색인, 초록 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약 9,100여 종의 저널 원문 제공. Full text 저널 중 7,900여종 이상이 Peer-Reviewed 저널로 구성 이용율 상위 100여종의 저널에 대해서는 최대 1886년 또는 창간호 이후의 원문 수록. 저널별 원문제공기간 상이함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6	EBSCO HOST	BSC (Business Source Complete)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주제 분야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경영/경제/금융/회계/행정/무역 등 3,800여 종의 학술저널 및 매거진을 비롯한 21,000여 종의 출판물에 대한 Full Text를 제공 200여 국의 국가경제보고서, 산업보고서등을 제공하며 저널별 원문제공기간 상이함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7	eLibrary	World Bank e-Library	World Bank Group에서 출판하는 8,000여종 출판물에 대한 Online Collection 구독 및 2,500여종의 World Bank eBooks 구독, 4,200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구독 Soci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verty Reduction, Conflict & Development, Gender, Urdan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등 총 28개 주제분야 원문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8	OECD iLibrary	OECD iLibrary	OECD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원문 구독 OECD Books(17종), Papers(16종), Statistics(35종) 원문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9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s	EIU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 정치, 국가 기본정보 및 분석 리포팅 서비스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열람가능	로그인 후 이용

KOICA 2016년 12월 ~ 2017년 3월 발간물 목록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1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2017.2	공공행정팀	2017	한국국제협력단
2	협동조합을 활용한 ODA 사업 모델	농어촌개발실	2017	한국국제협력단
3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2017-2019 / 200만불)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7.1	동남아1실	2017	한국국제협력단
4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Pre-Feasibility Study Report 2017.2	동남아시아1실	2017	한국국제협력단
5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2017.2	사회개발실	2017	한국국제협력단
6	파키스탄 카수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립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2017.1	서남아시아팀	2017	한국국제협력단
7	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2016.12	월드프렌즈총괄팀	2017	한국국제협력단
8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ODA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9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안내서: 2017년도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2016.12	ODA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10	창립 25주년 기념 KOICA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ODA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11	요르단 자르카 기술고등학교 설립 사업(2017-2020/750만불)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6.3	교육보건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2	요르단 자르카 기술고등학교 설립 사업 (2017-2020 750만불)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6.12	교육보건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3	협동조합 ODA GUIDE BOOK	농어촌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4	세나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최종보고서 2016.10	서아프리카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5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ODA 사업 방향성 논의: 외국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KOICA의 기후 전략 및 정책 사례 중심으로 2016.12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6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위한 위험관리 및 사업성과 제고 방안 2016.11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7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제8차 아태개발협력포럼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8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위한 기초 연구 2016.10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19	신기후체제 하의 KOICA 기후변화 사업 방향 2016.11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0	KOICA 농업분야 CSV 사업기획을 위한 가치사슬분석법(Value Chain Analysis) 적용방안 2016.12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1	2015 KOICA Annual Report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2	개도국 정부경쟁력 지표의 ODA 전략 적용방안: 베트남,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2016.11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3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창업프로그램 성공사례 및 KOICA의 시사점 연구 2016.12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24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2016.12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5	제10회 서울 ODA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국제개발협력 15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방향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6	The 10th 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	연구개발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27	(해외봉사단원을 위한)요르단 아랍어 교재	요르단 사무소	2016	한국국제협력단
28	(처음읽는)세네갈 이야기: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29	(찬란하게 빛나는 섬)스리랑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0	(Mi segunda Patria,)에콰도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1	(13월의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에티오피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2	(구원의 땅,)엘살바도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3	(The Hashemite Kingdom of)요르단: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4	(아프리카의 진주,)우간다: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5	(함께 만드는 730일)우즈베키스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6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7	(아프리카의 미니어처,)카메룬!: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8	(신비한 앙코르와트의 나라)캄보디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39	(서아프리카의 파리,)코트디부아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0	(축제의 나라)콜롬비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1	(총 라흐맛!)키르기즈스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2	(Kribu)탄자니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3	(싸바이)태국: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4	(남아메리카의 심장)파라과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5	(내 손안의)페루: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6	(Mabuhay,)필리핀!: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7	(VIVA)볼리비아: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8	(머이깍반)베트남: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49	해외봉사단 청렴 및 실천윤리: WFK 해외봉사단 통합교육교재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0	성인지: WFK 해외봉사단 통합교육교재 = 性認知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51	(황금의 나라) 미얀마: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2	(바람이 시작되는 곳) 몽골: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3	(아나 무차따위야)모로코: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4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르완다: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5	(시간도 머무르는 곳)라오스: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6	(본디아)동티모르: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7	(신대륙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도미니카공화국: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8	(Hola!)니카라과: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59	(너머스떼!)네팔: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60	부부함께 코이카 사랑 이야기: KOICA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61	해외봉사단원과 국제개발협력: WFK 해외봉사단 통합교육교재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62	건강과 안전: WFK 해외봉사단 통합교육교재	월드프렌즈교육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63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길라잡이: 봉사단원의 첫 글쓰기	월드프렌즈운영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4	나무나 세네갈: KOICA 해외봉사단원 활동경험담	월드프렌즈운영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5	세계 곳곳에 꿈과 희망을 심다: 제11회 대한민국해외봉사상 수상자 활동수기집	월드프렌즈운영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 여객터미널 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용역 (2015-2016) 2016.7	중동중앙아실	2016	한국국제협력단
67	세계경제외교대(UWED) · 세계언어대(UWL) 통역교육 역량강화 및 세계경제외교대 전산기반 평가시스템 개선사업 종료평가 최종보고서 2016.12	중동중앙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8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2015-2020 / 700만불)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6.11	중동중앙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69	Advanc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State Capac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2016.10	지역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70	베트남의 국가역량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급인적자원 개발: 베트남 미래비전 DEEP 사업 1차년도 보고서 2016.10	지역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71	코이카 프로젝트 맵: Asia and Pacific / Africa /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016.8 = KOICA Project Map	지역총괄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72	코리아에이드 프로그램 현장업무 매뉴얼 2016.11	코리아에이드 사업운영팀	2016	한국국제협력단
73	(August 2016) Baseline Study Guidelines	평가심사실	2016	한국국제협력단
74	The End-of-Project Evaluation Report for the Water Supply and Water Utilization Project for Yarmag District in Ulaanbaatar, Mongolia 2015.12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75	KOICA 평가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2015.12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76	(2015년도) 무상원조사업 수원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15.12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77	(2015) Beneficiary Satisfaction Survey on KOICA's ODA Programme Worldwide 2015.12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78	The End-of-project Evaluation on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Supply in Senegal 2015.12	평가심사실	2015	한국국제협력단
79	요르단 3개 지역 보건소 건립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건축	중동중앙아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80	요르단 3개 지역 보건소 건립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보건의료 2014.5	중동중앙아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81	요르단 3개 지역 보건소 건립사업 2차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건축분야 2014.10	중동중앙아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82	요르단 3개 지역 보건소 건립사업 2차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보건의료 2014.10	중동중앙아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대한미국 대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조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원조사업 관련 정보 수집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70%)하였으며, 이는 △원조관련 정보의 분산(41%),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26%),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 비공개(22%)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완료 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DA원조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 및 민간기업 등 ODA 유관기관 간 서로 원조정보를 등록, 조회, 평가,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공유, 정보 Q&A, 커뮤니티 개설 및 이슈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자료로는 원조정책,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평가관련 정보, 선진원조 동향, 연구보고서, 국별, 지역별, 분야별 정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를 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할 예정으로, 우량사업에 대한 적기의 검토와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은 ODA 유관기관 간 원조정보 및 지식, 노하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방지 및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 선진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동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기관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아래의 팩스 번호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E-mail : oda@koica.go.kr　　FAX : 031-740-0778
- ODA원조정보 공유시스템 : www.oda.go.kr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 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Ⅰ. 『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Ⅱ. 『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논문이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대를 동봉한다.
  Email : callforpapers@koica.go.kr
  Tel : (+82)31-740-0759　FAX : (+82)31-740-077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461-833)
- 원고접수는 각 호의 원고마감일에 따른다.

호	원고 기고 주제	원고마감일
2017년 1호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유주제	2017년 2월 31일
2017년 2호		2017년 4월 31일
2017년 3호		2017년 7월 31일
2017년 4호		2017년 9월 31일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Ⅰ.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제출 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한국국제협력단 외 다른 곳에 게재 또는 발간되었거나 향후 그러할 계획이 없는 창작 글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인지 및 확인 후 대표저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친필본 사본을 원고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 게재 확정 후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 원고 제출 전 논문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원고의 사전 표절 검토를 권고한다.

3. 게재희망 원고 중 협력단 외부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명/지원기관명/연구기간/참여연구자명 등을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4. 협력단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편집 규정에 맞추어 요약 투고 가능하며, 대상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협력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투고한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명/발간부서명/연구기간/발행일자/연구자명 등을 원고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6.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용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또한 연구자는 투고 이전에 그 내용을 연구용역 또는 사업 담당 소관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하며, 협력지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에 해당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문표기
  이 논문은 0000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프로젝트명"의 일부로 수행된 연구임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under the title of "프로젝트명" in 0000년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7.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8.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발간한다. 매 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매 호의 원고마감일은 직전 호의 국제개발협력지에 별도 안내된다.

9. 원고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10. 원고 제출시 연구자는 영문 또는 국문초록이 포함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본(별지 서식 2호), 그리고 원고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전자메일(callforpapers@koica.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다.

> 전자메일 : callforpapers@koica.go.kr
> 전화 : (+82)31-740-0759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13449)

11.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12.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13.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4.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

가. 원고는 표지, 목차, 표 또는 그림 일체를 제외한 기타 부분(참고문헌 산입)에 대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로 제한한다.

나.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원고분량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한다.

2. 원고 구성

가. 원고는 표지, 국문(영문)요약, 주제어(3~5개),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구성한다.

나.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 간단한 필자소개를 명기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다.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라.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비롯한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서 쓴다. 또한 본문 내에서 반복 언급되는 용어를 축약어로 나타내고자 할 경우 첫 번에 한하여 '(..., 이하 축약어)'로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축약어로 표기한다.

[예 1] 세계은행(World Bank)…. (생략) 세계은행이 발표한…

[예 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생략) SDG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마.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바.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사.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 과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삽입한다.
2)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 한다.

아.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인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한다.

3. 원고의 형식

가.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글씨체: 휴먼명조, 본문 글자크기 13p, 각주 글자크기 11p, 표와 그림 제목 및 출처: 12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나.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 “1.”, “1)”, “(1)” 순차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4. 저자명 표기

가.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동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저자명을 표기하고, 각주에 대표저자와 공동저자 구분 및 저자정보를 별도 표시한다.

5. 표 및 그래프 작성

가.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나.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다.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초과할 수 없다.

Ⅲ. 전거 표시 요령

1. 전거 표시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전거 표시 요령을 준용한다.

2.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 1] “…이상백(2009: 23)…”; [예2] “…라 했다(이상백, 2009: 23).”
2.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2011)”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병기한다.
[예] “…(이상백 · 김채윤, 2006)”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 윤근섭 · 한상복, 2014)”; “…(문승규 외, 2014)”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2017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가.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 신문제호는 「 」, 논문제목은 “ ”로 둘러싼다.

   나.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다.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라.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1) 영문저자 2인 이상 표기시 ‘제1저자 성, 이름, 제2저자 이름 성 and 마지막 저자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마.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바. 온라인 자료의 경우 링크주소와 접속일을 함께 표기한다.

   사.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기관은 ‘도시명: 출판기관명’으로 표기한다.

   아. 국문 참고문헌의 저자명이 기관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자.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이정희 · 우승지. 2009.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파주: 법문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파주: 나남출판. pp.125-149.
- _____.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pp.93-122.
- Easterly, William. 201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Cambridge: MIT Press.
- Beger, Peter. L., and Xinhuang Michael X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amuel Leinhardt. San Francisco: Jossy-Bass.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54.

(2) 학술지

- 홍은경. 2016.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국제개발협력지』 2016-4호: 73-96.
- Mullin, Walter J, and Miguel Arce. 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1(4): 424-40.

(3) 연구보고서

- 김수진. 2015.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슬로베니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현. 2015.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5-20.
-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World Bank. 2013. "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 Solutions: Initiatives of th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World Bank.

(4) 인터넷 문서

- 통계청. 2014. 『보건·사회·복지 통계자료』. http://www.kosis.kr (접속일: 2014.11.10.).
- Dunning, Casey, and Jared Kalow. 2016.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 posted on CGD website on 17 May, 2016, available at http://www.cgdev.org/blog/sdg-indicators-serious-gaps-

abound-data-availability (접속일: 2016.11.01.).
- IAEG-SDG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접속일: 2016. 04.28.).

(5) 학위 논문
- 이순아. 2013. "경제위기 전후 빈곤결정 양상의 변화-미시요인 및 거시요인의 영향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6) 학회 발표
- 한승주. 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4.23.,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법학대학원)
- IAEG-SDGs. 2016. "the 47th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utcome on global SDG indicators," presented at the 3rd meeting of the IAEG-SDGs on 30 March-1 April, 2016, Mexico.

(7) 번역서 및 번역보고서
- 베버, 막스(Weber, Max).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흥준 편. 『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pp.195-210.
-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별지 서식 1호]

논문게재신청서

대표저자	성명	(국문)	(영문)	
	소속		직위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공저자	성명	(국문)	(영문)	
	소속		직위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논문제목				
작성언어	한국어		영어	

논문요약	

* 논문요약은 국문 기준 500자 내외, 영문기준 200단어(words)로 제한하며, 3~5개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s)제시

[별지 서식 2호]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상기 본인은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하였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상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연구자료 : ODA연구 2017-01-018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1호

발 행 2017년 04월
발 행 인 김인식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김수진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13449)
전 화 031) 740-0759
팩 스 031) 740-0772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02)805-8874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2X